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지구경영학과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 상담의 사주명리학적
적용가능성 연구
- 인본주의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

2019년 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은 태

사회복지 상담의 사주명리학적
적용가능성 연구
- 인본주의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광 린

이 논문을 평화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이 은 태

이 은 태 의

평화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심사위원장 _____ 조 남 호



심 사 위 원 _____ 김 기 승

심 사 위 원 _____ 심 준 영



심 사 위 원 _____ 서 호 찬



심 사 위 원 _____ 김 광 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고마움의 글

오늘 여기에 다다라 부족한 내용의 논문일지언정 박사학위를 마치는 개인적인 심정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저의 논문지도를 하여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 김광린교수님 고맙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조남호교수님, 심사의 현장에서 많은 용기와 격려를 하여주신 김기승교수님, 심준영교수님, 서호찬교수님,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의 저는 철산절벽 앞에 놓인 처지에서 사람의 한계에 대한 의문의 시각으로부터 명리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마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순간, 한순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처지는, 제가 가진 조건이었습시다. 그런 환경 속의 저에게 좌고우면함 없는, 일관된 태도로 상담연구실을 지켜준 나경미박사 고맙습니다. 物心兩面の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 계십니다. 김형규대표, 김동기회장님, 김남승부장, 이미선사장, 유광식사장, 김득수원장, 김선희도반, 라미향원장, 김동건원장, 김은미원장, 윤미경박사, 콘츠모임의 이영철소장 및 회원분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일익을 담당하시는 나경민님, 한선경대표, 오도선소장, 그리고 저의 불편한 건강상태 회복을 위해 후원을 하여 주신 매나테크 정지만사장님, 김미자 사장님, 박종택원장 등 저에게 많은 힘이고 용기였습니다. 언제든 숲 길가, 토굴에 자리 내어 주시는 일담스님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도 많으신 분들 일일이 표기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고마움에 대한 자세는 놓지 않겠습니다. 특히 저의 상담실과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옛글의 “나를 찾지 않는 서운함보다 항상 나의 부족함을 위한 공부를 하는 자세”로 지금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담설전정(擔雪填井)하는 자세로 마음을 다집니다.

항상 오빠의 안녕을 원하는 동생, 경희, 난희, 명희 그리고 조카들 이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내 마음에 뭉친 듯 풀리지 않았던 불효에 대한 회한의 심정이 다소 풀릴 듯합니다. 내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더해 이 논문을 받칩니다.

2019년 1월

이 은태

국문초록

사회복지 상담의 사주명리학적 적용가능성 연구- 인본주의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날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복지 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복지현장에서 사용되는 서구식 상담 기법에 동양사상을 융합함으로써, 마음의 빈곤과 소통의 부재를 안고 고통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사유체계는 분명히 동양적 사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상자들로서 서구식 방식의 상담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구의 심리상담 이론 중 인간중심의 가치를 담아 인본주의 심리학의 일가를 이룬 칼 로저스의 이론이 동양의 사유 체계와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 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칼 로저스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상담이론에 동양사유체계의 음양오행론을 도구로 하여 인간 생애주기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가능한 사주명리학을 보완한다면 상담의 결과가 클라이언트에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상담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진실하고 무조건 긍정하는 태도로 공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주명리학 이론의 도구가 되는 사주명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성정이나 사고방식을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담자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러한 점이 사주명리상담을 사회복지 상담에 활용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상담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복지상담에서 상담자의 자기이해를 위해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둘째, 사회복지상담에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주명리학의 성정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복지상담에서 클라이언트를 진실하고, 긍정적 태도로서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적

용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첫 번째는 사회복지상담에서 상담자의 자기이해를 위해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에 관한 이론 중에서, 인본주의 이론은 정신역동주의나 행동주의 이론에 비하여 사회복지 이념과 사회복지상담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복지실천 전반에서 인본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실성과 존중, 공감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본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로저스에 의하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공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담자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철저한 자기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자는 상담자 자신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주명리학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사주명리학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상담자의 자기 이해에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문제 두 번째는 사회복지 상담 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에서 사주명리학의 성정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명리고전인 『연해자평』, 『적천수』 등의 문헌을 통해 타고난 개인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명리 이론을 탐색하고 클라이언트의 성향분석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에 더욱 공감하고 해소할 수 있는 치유적 보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상담에서 클라이언트를 진실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사주명리이론 중 격국 및 사주유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가치관과 성향을 파악하여 상담에 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담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적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이 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인간중심 상담에서 사주명리학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이론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문헌적 연구와 사례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성격과 인간심리를 근간으로 인간이해를 다

루고 있는 사주명리학과 서구 심리학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학문적 성과는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동, 서의 학문이 따로 일 수 없다. 인간을 향한 따뜻한 가치관을 가진다면 어떤 학문이라도 복지 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주명리학은 인간의 성정과 심리 등의 이해(理解)를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회복지실천, 인본주의상담, 인간중심상담, 사회복지상담, 사주명리상담,
칼 로저스, 매슬로우, 성정론, 기질론

목 차

국문초록	i
------------	---

I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범위과 방법	5
3. 용어의 정의	6
1) 인본주의 이론	6
2) 자기이해 이론	8
4. 선행연구 고찰	9

II . 이론적 논의14

1. 사회복지와 인간의 행복	14
1) 사회복지의 정의	14
2) 사회복지의 가치	18
3) 사회복지실천의 발달	18
4) 사회복지실천 현장	21
2. 사회복지 상담의 의의와 역할	22
1) 사회복지사의 상담가로서의 역할	22
2) 사회복지사의 상담 과정 및 인본주의 상담이론	24
3) 서구 심리상담 이론과 동양적 사유의 성정이론의 접근	29
3. 사주명리학의 상담분석 이론	36
1) 음양오행의 심리적 측면과 통변성	36
2) 십성론의 이해와 상담범위	41

3) 격국론의 이해와 상담범위	49
4) 용신론의 이해와 상담범위	53
III. 사회복지 상담을 위한 사주명리의 접근	61
1. 사회복지상담의 체계	61
1) 서구 상담의 이론 및 시스템	61
2) 인본주의 상담과 욕구이론	62
3) 측정도구 - 설문지 기법	67
2. 사주명리상담의 체계	74
1) 성격심리 분석	77
2) 진로직업적성 분석	83
3) 생애주기의 시기와 때의 선택	92
3. 욕구이론과 사주명리의 비교	93
4. 측정 도구의 비교와 효과성	95
1) 서구 질문지법의 장·단점 분석	96
2) 사주명리학적 적성 및 성격검사의 필요성	100
5.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사주명리학의 적용	101
1)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101
2) 사주명리 상담자의 자기이해	103
6. 사주명리상담에 대한 소결	105
IV. 사회복지와 명리상담 적용 사례	108
1. 미혼모 상담사례	108
2. 한부모가정 상담사례	116
3. 기초수급자 상담사례	124

4. 장애인 상담사례	130
V. 논의 및 결론	136
참고문헌	140
ABSTRACT	148

표 목 차

<표 II-1> 인간중심 상담의 발전	29
<표 II-2> 간지의 음양, 조후, 신강신약 분석표	39
<표 II-3> 격국별 용신표	53
<표 II-4> 신강한 경우의 억부용신회용법	55
<표 II-5> 신약한 경우의 억부용신회용법	55
<표 III-1> 5단계 육구위계설	67
<표 III-2> MBTI 16가지 유형의 기능 순위	70
<표 III-3> MBTI 16가지 유형의 성격특성	71
<표 III-4> MBTI 16가지 유형의 직업에 대한 기대	72
<표 III-5> 십성의 심리와 전문능력	80
<표 III-6> 격과 십성의 직업의식	85
<표 III-7> 십성에 따른 직업적성	85
<표 III-8> 사주구조에 따른 직업목적과 활동유형	87
<표 III-9> 편중된 십성과 매슬로우의 5단계 육구와의 관계	95
<표 III-10> MBTI 성격유형	99
<표 IV-1> 미혼모의 사례 1회차 상담	108
<표 IV-2> 미혼모의 사례 2회차 상담	112
<표 IV-3> 미혼모의 사례 3회차 상담	114
<표 IV-4> 한부모가정의 사례 1회차 상담	116
<표 IV-5> 한부모가정의 사례 2회차 상담	119
<표 IV-6> 한부모가정의 사례 3회차 상담	120
<표 IV-7> 한부모가정의 사례 4회차 상담	122
<표 IV-8> 기초수급자의 사례 1회차 상담	124

<표 IV-9> 기초수급자의 사례 2회차 상담	126
<표 IV-10> 기초수급자의 사례 3회차 상담	127
<표 IV-11> 장애인의 사례 1회차 상담	130
<표 IV-12> 장애인의 사례 2회차 상담	132
<표 IV-13> 장애인의 사례 3회차 상담	134

그림목차

<그림 II-1> 사회복지학의 구성체계	16
<그림 III-1> 상담 접수단계의 과정	62
<그림 III-2> Holland 직업흥미유형	73
<그림 III-3> Holland 직업흥미유형 특징	74
<그림 III-4> 인코스과 아웃코스의 모형	84
<그림 III-5> 노력지향과 결과지향의 십성	87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복잡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불안과 좌절,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역은 관심과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어 무조건적인 물질적 지원을 통한 구빈을 위주로 한 자선적 사업목적에서 탈피하고, 예방중심적인 차원으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정신적, 심리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중 상담은 복지업무 중 클라이언트와의 면대면 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복지실천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소임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상담의 기술은,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질이면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기관중심으로 지정해 놓은 행정적인 업무가 과다하여 시간에 쫓기는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전문적 상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상담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관계하는 모든 복지전문가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중요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물질적 원조만큼이나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올바른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상담과로 개칭 및 신설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사회복지상담의 주체인 사회복지사들은 서구에서 활용하는 상담도구나 심리학 이론의 학습을 통해 상담이론을 구축하여 왔다. 따라서 서구식 상담이론은 정통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에 적절한 상담 이론의 적용이나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응할 만큼의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²⁾ 현재 대부분의 상담현장에서는

1) 현재 부산카톨릭대학, 부산장신대, 부산여대, 부산예술대, 전남도립대, 세한대 등에 사회복지상담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2) 홍덕건, 「동양적성상담 이론에 의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영산

서구의 상담 이론으로 동양적 사유와 문화에 익숙한 클라이언트들을 상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질문방법이 성정 및 적성검사지로서 활용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물음에 답을 작성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의 난이도 수준이 높아 대중적이지 못한 점, 긴 검사 시간에 비해 제공 받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보고식 심리 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인가? 이 연구자는 사주명리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동양의 사유적인 음양오행의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주명리상담은 개인의 인지능력이나, 시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성향을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타고난 성격(personality)이나 적성(aptitude) 등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자기이해를 할 때, 적합한 진로방향성을 선택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서구에서 유래한 성격 및 적성에 관한 자기보고식 검사 방법은 개인의 고유속성이나 타고난 기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³⁾

사회복지상담은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직무로서 클라이언트, 즉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상담의 근본 요건이다. 복지실천 현장에서 상담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자기이해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기이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 활동은 1921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서구의 상담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여 왔다.⁴⁾ 하지만 학문적 성격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활용하여도 무방한 분야로는 깊이나 폭넓은 개발이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 등의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다루는 인문적 사유는 민족마다의 심리특성, 역사, 문화, 종교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그에 따른 이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사회복지상담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서양의 사고방식, 언어와 개념 등, 다양한 차이는 완전하게 일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11), p.11.

3) 김기승,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pp.3~4.

4) 김혜영 외,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공동체, 2010), p.37.

한국의 민족정신인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은 우리 자신이 우주적 질서와 조화에 의해 태어난 신성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 정체감과 자존의식이 담겨 있는 사상이다.⁵⁾ 홍익인간의 보편정신의 사유 체계에서, 인간(人間)의 의미는 오늘날 단순히 불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국어의 본래 용법에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自然)이 관계적으로 얹혀서 형성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⁶⁾ 이와 같은 사유 속에서 사람의 존재는 조화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규정되었다.⁷⁾ 인간을 신(神)과도 같은 귀한 존재감으로 여겼던 우리선조들의 삶 자체가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동양적 사유체계에서 인간 이해는 유가와 도가의 사상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들 사상은 학문적인 전통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일상에서도 동양적인 사유체계로 인간 이해를 규정해 왔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가와 도가의 사람 이해를 근간으로 하여 동양적인 상담 이론의 정립을 시도하는 연구는 의미 있는 일로 복지 상담에서 유용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 두 학파의 오랜 역사를 통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다듬어 왔던, 인간과 삶의 이해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논리를 살펴보았다. 유가의 정통으로 인정되어 온 맹자(孟子)에서는 성선론적인 인간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 이해란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전제하여, 그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간이 금수(禽獸)와 다른 근거로서 맹자(孟子)의 사단설(四端說)은 다음 내용과 같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수오지심(羞惡之心, 불의를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또한 공경지심(恭敬之心, 공경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四端)이 충분히 확충되면 인간은 사덕(四德),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네 가지 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도가에서 보는 인간이해를, 인간의 본성 또한 선하고 착할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원래의 성품이 허정(虛靜, 깨끗하고 평온함)하고 질박(質朴, 순수하고 소박함)하다는 지론(持論)을 펼친 것이다. 맹자(滕文公上)가 보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사단(四端)⁸⁾의 성향을 가지

5) 김광린,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21세기적 가치, 『평화학논총』 제7권 2호 (2017), P.5.

6) 유창돈, 『李朝語辭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 p.621.

7) 박금혜, 「홍익인간사상, 남북통일, 그리고 평화-홍익인간의 평화비전 실현을 중심으로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p.27.

8) 『孟子』, 「告子上篇」,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 求則得

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사덕(四德)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다.⁹⁾ 한편 노자는 『도덕경』 57장(我無爲而民自化)에서 인간은 누구의 간섭이 없는 자연스러운 무위의 환경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인간을 이해하였다. 도가에서 보는 인간이해의 관점과 유가적 인간이해는 다소의 관점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보는 맹자의 사상이나, 도가의 인간 신뢰 사상은 서구 상담 이론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온 인본주의 이론과 흡사한 면이 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기결정권에 가치를 두는 심리 상담 이론으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 되고 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로저스 자신도 사고와 행동이 동양과 서구의 교량과도 같다는 평가에 인정할 정도로 동양 철학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인본주의의 대표적 이론을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펼친다. 인간의 잠재력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통해 자기실현을 갖춰 나아가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의식 있는 존재로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각과 태도들을 바꿀 수 있는 사유적 존재라는 사실을 중시한다.¹⁰⁾

서구의 상담학자들이 동양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Hall¹¹⁾은, 전통적인 동양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적응이나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성숙한 인격 형성 문제를 깊은 통찰로서 다루어 왔고, 서구 심리학자들이 서구적 논리로서 해석을 통해 차별해 왔던 어떤 범주에 대한 사실적 경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학계는 동서의 융합의 방법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동양의 지혜를 통해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상담에 사주명리상담을 보완적 상담도구화 하려는 시도 또한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주명리학

之，舍則失之。或相倍蓰而無算者，不能盡其才者也。” 인의예지는 외부로부터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다. 다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인의예지는 구하면 얻고, 버려두면 잃는다” 고 말했다. 사람간의 차이가 무한히 벌어지는 까닭은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때문이다.

9) 풍우란 저, 박성규 번역, 『중국철학사』(서울: 까치글방, 1999), p.199.

10) 김윤정, 『알기쉬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서울: 학지사, 2011).

11) Hall, J. A., Carswell, et al., "Iowa Case Management; Innovative social casework", *Social Work*, 47(2)(2002), pp.132~141

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론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기본적인 사상의 틀로서, 동양인의 사고와 행동에 밀접한 관계를 역사적으로 갖고 문화와 종교 그리고 사상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깊은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음양오행론의 역사가 유구한 세월만큼 그 활용도 역시 넓다. 그에 따른 응용 분야역시 다양하여 오늘날의 동양문화에도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 음양오행사상은 인간 및 사회 현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그 원리를 우주 및 자연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실용적인 사상이자 통합적인 방법론의 원리이다. 한국은 물론 동양에서의 음양오행사상은 사회 및 문화 전반에 걸쳐 한방과 건강은 물론 사람의 체질, 인간심리·소질에 따른 직업, 예술·학문, 및 교육, 철학 등, 다각도의 연구에서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서구에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는 정신(마음)을 임상적 실체의 대상으로 보고 영혼과 신체, 주관적 객관, 이성적 감성, 자아, 무의식 등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상대적 갈등의 요인으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이원론적 태도를 고수하였다. 반면 동양사유 체계에서는 마음과 사물, 영혼과 신체 등을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작부터 통합적 자기인지로부터 출발하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여 온 것이다. 이는 동양의 음양오행론에 근간한 ‘심신일여(心身一如)’라는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의 심리 상담치유와 사주명리상담의 활용 가능성의 근거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역사적으로 동양인의 사고와 행동에 깊게 영향을 끼친 음양오행론을 근거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한국적 더 나아가 세계적 복지상담의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음양오행사상에 나타난 자기 이해를 사주명리학적으로 규명해서 복지상담 현장에서의 심리상담 치유의 활용성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논문은 전체 5장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총 3장까지 본론으로 구성하고 4장에서 임상사례와 5장에서 논의 및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에 의한 비교연구와 함께 가설적 주장을 뒷받침할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지상담의 사례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연구의 방법을 밝히고, 사회복지상담에 명리상담의 보완 가능성에 대한 실제의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사주명리

이론을 활용해서 개인의 성격, 성향 등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복지 상담에서의 명리상담이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완수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이 연구의 독창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혔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제반 이론적 논의를 거쳐 복지 상담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복지상담의 이론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서구상담의 인본주의와 동양사유의 명리상담에 대한 고찰을 하고, 이어서 사주명리의 이론에 대해 명리상담에 필요한 음양오행론의 다른 속성, 십성론의 속성과 심리, 격국론, 용신론의 활용성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실례검증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직업에 따라 명리학의 직업 진로적성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상담의 체계로서 서구상담 이론체계 시스템을 살피고 인본주의 제창자로 알려진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 및 욕구이론가의 매슬로우 학설들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서구상담의 기반인 측정도구인 설문지 기법을 살피고 서구 상담이론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복지상담 이론과 명리상담의 연관시켜 비교하면서 실제로 복지상담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임상적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상담현장에서 명리학적 보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명리상담에서만 건강 사회복구의 시기와 때를 생애주기에서 제시를 통한 희망과 비전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복지상담에서 논의되는 내담자의 심리적 영향력을 고찰하여 그에 따른 명리상담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명리상담의 언어적 설득 기능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상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명리상담과의 복지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5장은 논의를 거쳐 결론으로,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복지상담현장에서의 명리학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으로 적절성과 전망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인본주의 이론

서구의 인본주의 이론가는 로저스와 매슬로우다. 매슬로우는 원래 심리학자들의 중 행동주의 이론가로 활동하였으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영향에 대해서만 초

점을 두는 행동주의의 관점에 반대 하였다. 인본주의이론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데, 인간이 자신과 세계에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본주의 이론을 현상학적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본주의이론이 개인에게 ‘현상이 나타나는 방식’과 개인이 그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¹²⁾ 인간은 원래 다양한 주관적 경험을 통한 자신을 형성하고 특정한 성격 유형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고정된 성격발달 패턴은 없으며, 그보다는 삶의 경험에 따라 각 개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성격발달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격독특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 발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데, 자기이해를 통한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해 나가는 긍정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간주하는 이론으로 로저스는 인간은 이러한 자기실현의 경향성을 토대로 계속 성장해 가는 존재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인간이 자기실현의 경향을 발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정한 한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고 보고, 상담자는 이러한 유기체의 경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상담자의 일치성(진실성과 진솔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수용과 양육), 정확한 공감적 이해(다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가 내담자에게 잘 전달되면, 내담자의 방어가 약화되어 내담자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더 개방적으로 보게 되고 결국 사회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¹³⁾

인본주의의 또 다른 주요 이론가로 욕구이론가로 널리 알려진 매슬로우를 말한다. 인본주의이론을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학문적 분류를 할 때는 정신분석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 이어 제3의 세력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정신분석에서는 신경증적 행동을 병리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성격의 건강한 발달을 다루지 못하였다고, 비판 받으며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관찰 가능한 단순한 행동체계로만 취급할 뿐 가치관, 감정, 희망, 행동의 선택, 창조성 등과 같은 인간의 측면을 간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Maslow, 1970).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관점을 가진다. 실존주의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매슬로우

12) 오창순 외, 『인간행동과 환경 3판』 (서울: 학지사, 2015), P.197.

13) 김춘경 외,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0), pp.219~248.

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창조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성장조건이 적당하면 사람은 자신의 잠재적으로 보유한 능력을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2) 자기이해 이론

자기이해는 자신의 경험세계에 대해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을 수용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러내며 조절할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공개적인 부분, 자신은 알고 남은 모르는 비공개적인 부분,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맹목적 부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부분이 있는데 자기이해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공개적인 부분을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즉 자기이해란 자신에 대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⁴⁾

인간은 누구나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또 자신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관념체계인 자아개념(self-concept)은 인간본질의 규명을 위해 형성해야 하는 심리적 구성요소이다.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각 신념 및 태도의 독특한 체계이다. 즉 자아개념은 한 개체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개념이자 자기상(self-image)이다.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총체적 지각으로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현대심리학에서는 자아개념을 자기(self), 자아(ego), 자기개념(self-concept),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 자기지식(self-knowledge), 자기체계(self-system), 자기상(self-image), 자아정체감(ego-identify), 자기도식(self-schema)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용어라 할지라도 학자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¹⁶⁾ 자아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기상(self-image), 자아정체감(자아정체성, self-identification), 자아존중감, 자긍심(self-esteem) 등이 있다¹⁷⁾. 이 연구에서는 자아(ego)보다는 자기(self)가

14) 김권수, 『성공을 부르는 인간관계』 (서울: 기문사, 2010), p.21.

15) 양준석, 「애니어그램 집단 워크샵이 자기이해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p.17.

16) 석만 외,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서울: 운주사, 2008), p.341.

보다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이라 보고 자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한다.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자신의 생애주기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에 용이할 것이다.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행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주변으로 부터 변덕스럽다는 평가를 들을 소지가 많으며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진다. 인간관계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신뢰를 주기 어려우니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에 곤란을 겪는다. 자기이해에 따라 오는 부가적인 이득은 타인을 알고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이다. 즉 자신을 돌아보는 만큼 타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이해의 측면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넓어질수록 타인을 배려하고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며 이제껏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인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이해심과 수용성이 생긴다.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의 기본요건이라고 할 것이다.¹⁸⁾

사주명리상담에서 자기이해의 적용은 심성의 심리구조상 분별력, 직관력이 풍부하고 상황판단을 잘하며 다재다능하며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심리적 욕구를 가지는 편인의 특성과 통제력, 관리력인 편관의 특성과 동일시 비유한다. 자기통찰력을 표출하는, 식상의 창의적이고 연구적인 성향과 표현력이 포함된다.

4. 선행연구 고찰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을 향한 봉사직이다. 그 전문직의 고유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그 가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는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이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의 기초 지식과 이론들은 사회복지의 고유이론만은 아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이론은 의학이나 생물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심리상담학과 같은 타 학문의 이론에 크게 의존에 왔다. 이는 응용실천 학문이 지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 연구에서 목표를 갖고 있는 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서구의 상담이론과 사주명리상담과의 활용 가능성에

17) 김권수, 앞의 책(2010), p.23.

18) 이재창,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서울: 문음사, 1995), p.495.

19) 김윤정, 『알기쉬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서울: 학지사, 2011), P.13.

대한 탐구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사주명리이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실천학문의 패러다임을 시도하려는 연구의 논문들 중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서구심리학자의 이론과 도가이론과의 접목에 대한 논문 등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송진휘의 「기업 성인학습자 성격 특성으로서의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핵심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잠재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심리적인 주요 관심 요인이 측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방법으로 학습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검사나 진단도구인 성격검사의 사용빈도가 잦아지는 데에 따른 개인의 선천적으로 가진 성격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성이 될 수 있는 음양오행을 주요기반으로 그 성격의 속성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 연구자는 음양오행론으로 사람의 잠재된 속성을 및 기질을 파악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타당성이 있으며, 음양오행론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음양오행 유형은 타고난 개인의 출생 년, 월, 일, 시에서 유추하여 부호로 치환하는 것인데, 여러 이유로 질문법의 지필검사를 하기 난처한 대상자들에 대한 지필검사의 문제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음양오행론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논리적 기반의 바탕을 기반으로 모듈형 단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성인학습자의 개별욕구에 맞춰 조화로운 상황을 구성하여 조직 내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HRD 직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오행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음양오행의 기질을 통한 구체적 속성과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가진다면 개인의 조직에서의 직무성과를 향상하고, 개인의 위축된 자세의 심리적 속성에 대해서 제고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개발 및 능력개발 위한 통합적인 방법으로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²⁰⁾.

20) 송진휘, 「기업 성인학습자 성격 특성으로서의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함혜수의 「감정노동종사자의 직무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주명리학적 연구」²¹⁾에서는 산업화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감정노동종사자의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선천적 소질에 따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사주명리 변인들과의 관계적 요인을 밝혀 직무적성검사로서의 사주명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직업선택 시 감정노동에 취약한 취업인에게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실증연구와 양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질적 연구도 함께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감정노동 직무적합성을 사주명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직장 내에서 개인 각자에게 보다 효용성 있는 직무를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성애의 연구논문²²⁾에서는 노자와 로저스의 인간관을 비교하였고 노자의 무아와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노자와 로저스의 수용적 자세에 관한 것과 노자의 무욕과 로저스의 무조건적인 진실성 등을 비교검토하면서, 노자의 사상에 따른 사유적 세계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사유적 세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노자와 로저스의 이론의 접목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노자와 로저스의 내면적 동기가 충만함을 보고 상담자의 꾸준한 수용적 태도로 자기 수련의 학습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자의 사유적 논리와 로저스의 사람중심상담이론을 접목시킨다면, 상담을 주도하는 상담자는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무욕의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미의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상관성에 관한 사주명리학적 연구」²³⁾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사 사주의 구조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명식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의 사주 구조적 성향에 따른 직무적합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이직의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실증연구를 하고 보완적으로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사주구조분

21) 함혜수, 「감정노동종사자의 직무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주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22) 유성애, 「노자『도덕경』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23) 나경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상관성에 관한 사주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류는 ‘사주를 이용한 적성검사 프로그램인 ‘선천적성검사(AAT)를 이용하여 타고난 천성, 명식에 따른 신강신약과 격국 및 용신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사의 사주구조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는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구대상자인 사회복지사의 사주구조에 따른 분포도를 보면, 신강인 경우와 비겁 천성, 관성격, 관성용신이 가장 관계성이 많았다. 자기효능감은 식상이 비겁과 함께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무만족도는 심성 중재성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조직의 형태에 따른 직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개인의 출생정보인 사주구조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김영재의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²⁴⁾에서는 상담 시 내담자만의 고유한 문화적 환경과 배경을 참조하여야 효율적인 상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원주의 상담 수행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식을 결정하는 사회적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는 효율적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행요건으로 보았다. 우리문화에서는 사주명리학이 한국식 인생여정의 상담으로 무수한 세월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자리를 잡아 왔기 때문에, 점복문화에 내재된 우리의 생활에서의 전통적 의식을 이해하면 내담자와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담전문가의 지향적 목적과 사명은 내담자의 환경 즉, 신체적, 지적, 사회적, 직업적, 영적인 부분 등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하여 그에 따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로상담을 포함한 인생 제반 상담에 있어서 사주명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용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이다.

정국용의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²⁵⁾에서는 사주명식이 제시하는 성격특성이나 성향의 유형이 서양의 설문지법으로 유추하는 성격이론에서와 같이 성격예측의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한 서구 이론의 성격특성과 사주명식에 의한 성격특성예측은 매우 유사하며, 사주명식을 도구화하여 개인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주

24) 김영재,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25) 정국용,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연구자는 서양의 성격이론의 예측도구인 지필식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사주명리학 이론을 추천하고 있다.

이재규의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존중의 의미」²⁶⁾에서는 로저스 문헌에 나타나는 상담에서의 내담자에 대한 존중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의 목표와 방법이 함의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존중은 실천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하며 단순히 좋은 의도나 태도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지지되었다는 것이다. 존중은 내담자의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이며, 인간이라면 마땅히 사랑과 긍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내담자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도록 돕고 내담자가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분위기를 통하여 존중이 실천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존중이 상담에서 시사하는 바는 상담의 모든 행위는 내담자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주명리의 근원을 통한 타고난 기질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성향, 성격, 진로적성, 방향 및 학습관련 등 삶의 전반에 대한 융복합을 위해 학사고찰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명리이론을 활용한 사회복지상담의 활용을 시도하는 것은 이 연구가 최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위 선행연구들은 학위논문으로서 우주론적인 명리학의 관점을 논한 연구자들의 연구방향이 이론적 배경으로 시사점이 높고 사회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폭넓은 안목으로 명리이론을 조명하였다. 특히 성격에 대한 심리학적 조명에 대한 연구 또한 이 연구에서의 학문융합을 시도하는 방향성에 동의하게 되었다.

26) 이재규,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존중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복지와 인간의 행복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스러운 삶의 수준을 성취하고 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을 우선적으로 증진시켜 나아가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욕구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욕구 즉, 의·식·주, 직업, 교육, 건강, 화목한 가정, 쾌적한 환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인간의 필수적인 욕구로서 삶의 유지가 불안정 상태로 생존과 자원의 동력인 인간성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욕구의 최저 수준이라 함은 자립과 자조가 곤란해진 사람으로, 자립과 자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복지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마친 사회복지사들의 조직화된 시스템이다. 이념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사회의 구상으로 빈곤이 없고 국민이 자유롭게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안은 개인들 스스로가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할 수 없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현실적 상황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의 개입이 시도되는 것이다. Friedlander와 Apte²⁷⁾는 “사회복지란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만족할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계획된 원조,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가족들과 지역공동체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녕(well-being)을 증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 등을 말한다.” 라고 했으며, Johnson은 사회제도나 조직 간의 체계적인 활동으로 사람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목적으로 하는 사회사업과 전문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²⁸⁾ 사회복지라는 용어에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전체가

27) Friedlander, W. & Apte, 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NJ: Prentice-Hall, 1980).

28) Johnson, A., *Encyclopedia of Social Work*(US: NASW, 1965).

복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안녕상태라는 뜻과 이러한 안녕상태를 위한 사회의 제도 및 노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초적인 생활 보장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와 기회 및 권리가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의 헌법²⁹⁾에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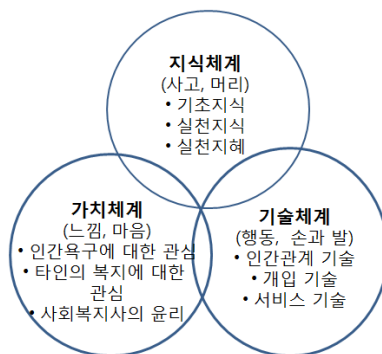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행복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 우리 인간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화두이다. 고대철학자들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당사자들의 입장마다 다르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형이상학적 의미를 지닌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인간의 삶의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만족과 즐거움의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만족과 즐거움은 행복을 구성하는데 만족한 조건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요소가 없이 단순한 만족과 즐거움은 감정적인 요소로서 결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욕망을 채움으로써 완벽한 만족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욕망에 의해서 인간은 오히려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잘사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적 삶과 관조적 삶의 문제로 말한다. 사회복지의 의미에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가교의 역할이 있는 것

29)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는 노동할 권리, 제33조는 노동3권의 보장, 제34조는 복지권, 제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4조에는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한 복지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에는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에는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다. 그러한 행복에 대한 전제로서 사회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생활한다는 사회적 형평성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사회복지의 개념적 이해로 협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광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의 의미를 다소 소극적이고 한정된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서 협의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개인을 경제적·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인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

사회복지를 협의로 해석하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요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개인을 경제적·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인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 협의의 사회복지의 Wilensky와 Lebeaux³⁰⁾가 말한 잔여적(보충적)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사회복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육정책, 보건, 의료, 주거, 취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개념이다. 광의의 사회복지의 Wilensky와 Lebeaux가 말한 제도적 사회복지에 해당된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사회복지학의 구성체계.

30) Wilensky, H. L. & Lebeaux, C. N.,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The impact of industrialism on the supply and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New York: Free Press, 1965).

한국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유난히 많은 소외계층이 많은 나라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목적을 가진 응용학문인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일종이다. 사회과학은 인간이 만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은 다른 학문분야들을 융합하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종합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은 개인에서부터 사회에 이르는 광범위한 관심영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정치학, 법학, 역사학, 철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지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심리학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철학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체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복지학은 다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은 가치 지향적이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은 인간이며, 인간이 태어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를 관여하므로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여 인간중심의 가치를 담아내는 인본주의와³¹⁾ 같은 특정가치를 지향한다. 이는 사회복지학이 실천적 목적을 가진 학문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특성이다.

Wilensky와 Lebeaux는 1950년대의 미국의 사회복지현상을 분석하는 개념모델로서 제도적 사회복지와 잔여적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규정하였다³²⁾. 가족이나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가족이나 시장 기능을 대신하여 일시적 도움을 주는 것의 형태를 잔여적(보충적) 사회복지의 체제이다. 이는 긴급사태, 자연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활성화된다. 반면 가족과 시장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축소된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한정적·비정상적·응급조치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제도적 사회복지의 정상성, 사전 예방성 등이 참조되는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의 실천의 개념적 일원으로 사회제도화된 것이다. Wilensky와 Lebeaux는 국가가 산업화되면서 잔여적 사회복지에서부터 제도적 사회복지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 두 개념은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사회적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31) 칼 로저스(1902~1987)에 의해 주장된 인간중심(person-centered)주의는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막강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인본주의이론은 기존의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험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된 상담이론이다.

32) Wilensky, H. L. & Lebeaux, C. N., 앞의 책(1965).

2)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우선시되는 요소로서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이를 사회복지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가치는 사회복지가 수행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여,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복지실천 대안 중에서 가장 우선시 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사회복지가 클라이언트의 대상을 향해서 지향하는 주요 가치와 목표를 갖는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이자 목표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있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가치는 인권사상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존엄하며 동일하게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때 확보될 수 있다.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포함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란 창조적이고 교양 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의 자립은 경제적 자립은 물론 클라이언트 당사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삶,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이라는 관점이 강조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 목표를 둔다. 빈민, 장애인, 노인, 고아 등과 같은 요 보호자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전체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이자 가치이다.

3) 사회복지실천의 발달

사회복지실천은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자선조직협회에서의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으로 발전으로 사회행동과 개혁으로 발전한 세틀먼트하우스(settlement house), 이들의 전통성과 가치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선적 박애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보다 체

계적인 사회복지실천으로 유지 발전하게 되었다. 자선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의 종교적 출발에서 교육적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에서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실시는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의 복구 등 외국인 선교사의 지원과 활동을 통한 구조, 구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가족이나 이웃과 관계에 의해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는 관계로 형성되어왔다.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사회와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은 사회복지실천의 현장과 대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복지실천의 목표가 단순히 생계와 보호의 차원이던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옮겨가고,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신역동 이론에 뿌리를 둔 개별사회사업의 이론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생태학이론, 행동이론, 체계이론을 포함하는 여러 이론들을 받아들여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였다(Barnes, 1990). 1980년대 사회개혁(society reform)의 물결과 비차별, 반 압박 등의 움직임이 거세진 1990년대에 즈음하여 강점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클라이언트 옹호와 관련한 이데올로기가 확장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담을 포함하는 casework의 필요성이 덜 강조되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상담의 필요성이 줄었다기보다는 사회복지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된 결과이며, 실천의 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른 현상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Seden³³⁾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사회복지가 처음 들어올 때는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이라는 용어가 아닌 '사회사업(Social 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개념은 사회사업보다 큰 개념으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실천수준에서 일차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미국사회복지사회협회(NASW)에서는 사회사업(Social Work)을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적 기능발휘 능력을 향상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목적달성에 우호적인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원조하는 전문적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³⁴⁾

33) Seden, J., *Counselling Skills in Social Work Practice*,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9).

34) 정원철, 『사회복지상담』 (과주시: 양서원, 2005).

사회복지실천은 직업으로서의 가치와 훈련, 연구, 지식의 체계를 가진 전문적인 실천체계이다.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실천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임무와 관련되어지며, 빈곤, 박탈, 차별, 불행한 환경에 처한 개인을 원조하는 전문 활동으로 정의된다. 사회복지실천은 훈련받은 실천가(이하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며 사회서비스(공공부문의 교육, 의료, 건강, 주거, 사회보장 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Payne, 2005). Zastrow(2010)는 ‘사회사업(social work)³⁵⁾은 사회사업의 가치, 원칙 및 기술들을 하나 이상의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개인, 가족, 및 집단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나 집단을 도와 사회적 서비스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선하도록 돕는다. 또한 관련 입법과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며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인간발달과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여 사회제도, 경제제도 및 문화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들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관계나 사회제도에서 개인의 능력과 탄력성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관계적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문제해결과 예방에 노력하는 클라이언트를 원조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Barker, 1995). 더 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사회변화를 위한 옹호, 사회적 안전장치 구비를 위한 촉구활동과 사회적 배제를 배격하고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 역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적 항목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이론의 토착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체계의 토대를 모델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실천의 컨텐츠는 미국의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임상사회복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주의 실천모델이 주를 이루는데 반해 한국은 사회복지실천의 교육모델과 실체가 일반주의 실천모형에 훨씬 더 가깝다.³⁶⁾ 1990년대에는 전통적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모든 측면을 통합한 것으로, 다양하고 복합적 욕

35) 이 연구에서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실천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인용문원 저자의 글에 의해서만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실천을 구분하여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36) 김인숙,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4).

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강조되었다.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의 관심이 치료(cure)에서 보호(care)의 방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공식·비공식적인 지원체계의 기능을 향상시켜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게 된 것이다. 그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까지 확장하여 분야적 통합, 방법적 통합, 개인과 환경의 대상적 통합으로, 직·간접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³⁷⁾

한편 1990년대 한국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996년 임상사회복지사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003년 초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실시되고 2005년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시작되면서 전문사회복지실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처음 시작된 교육부 시범사업과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문제, 가정·지역사회의 관계망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였다. 이는 학생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준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으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변화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한층 다양한 개입방법과 전문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4) 사회복지실천 현장

사회복지실천은 사회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중요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이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나 장소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의 실천현장은 사회복지실천분야 또는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주제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적시한 장소의 개념을 넘어 복지실천이 이뤄지고 있는 전문분야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과 같은 대상별 분야나 정신건강, 약물남용, 의료, 교정, 학교, 산업현장 등의 문제영역 별 분야가 포함된다.

37) 최옥채,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비평-사회복지실천론 교과서와 논자들의 연구문헌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4).

한편 좁은 의미의 실천현장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포함된다. 사회복지기관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환경이다.³⁸⁾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분류는 기관의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1차 현장(사회복지관)과 2차 현장(병원, 학교, 동사무소)으로 나누어진다. 기관의 설립주체나 재원조달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행정기관, 서비스 기관(직접 서비스)으로,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³⁹⁾

이전에는 생활시설(수용시설)이 주요 실천 현장이었던 것이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현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⁴⁰⁾ 김혜란⁴¹⁾은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기관의 목적, 기관을 설립한 주체 및 재원조달방식,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직무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직무에 따른 성향을 파악하고 각 현장에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상담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은 기관의 목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의 모든 기관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목적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개입계획을 세우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2. 사회복지 상담의 의의와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상담가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38) 엄명용 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0).

39) 강선경 · 최원석,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12).

40) 위의 책.

41) 김혜란 · 홍선미 · 공계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주시: 나남출판, 2006).

그래서 행동을 수정하며, 현실적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복지상담가의 역할은 초기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 생활전반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상담이 지나치게 복잡할 수도 있고 실제의 서비스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효과적으로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클라이언트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상담가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치료자, 교육자, 중재자, 중개자, 정보제공자, 대변자, 안내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치료자로서의 역할로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돕기 위해 개인, 집단, 가족단위의 개입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것이다. 개별적 접근은 아동, 청소년, 일반성인, 노인, 장애인 등 이들 개인의 발달문제,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성문제 등과 관련한 상황에 따른 개별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상담사는 대상군에 대한 전문적 이해 및 개입방법 관련 전문적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안에 따른 집단단위의 접근으로는 특수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해결 중심적 단기집단 상담프로그램이 해당되고, 가족단위의 치료적 접근으로는 부부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고부간 갈등 등 가족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족상담의 형태로 진행하기도 한다.⁴²⁾ 클라이언트의 생활에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고 효과적인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학습을 통해 익히도록 교육자로서 역할로 돕는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교육과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삶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위기를 예견하고 예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⁴³⁾

예방적 개입의 교육은 집단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방적·교육적 접근은 개인노출에 대한 고정적 선입견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에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⁴⁴⁾ 클라이언트와 그의 연결망 간에 잘못된 상호작용이나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42) 조휘일 외, 『사회복지실천론』(서울: 학지사, 1999), pp.208~209.

43) Sheafor et al.,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2nd ed.*, Boston: Allyn & Bacon(1991), p.92.

44) 조휘일 외, 위의 책(1999), p.210.

개선해 주는 중개자의 역할은, 반드시 중재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직 중립의 위치에서 양자의 상대에 관한 이해와 양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성원과 갈등이 심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그 가족 전원을 만나거나 가족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⁴⁵⁾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동기와 능력을 사정하며, 그들이 가장 적합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서비스와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각 개인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사정을 해야 하며, 그런 자원에 접근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⁴⁶⁾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지식의 보고(寶庫)로서, 사회복지사는 일반대중이 활용 가능한 서비스와 욕구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돕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가로서 인간행동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환경이 개인에게 어떻게 관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 클라이언트의 잠재한 욕구와 기능을 사정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내용에 관한 판단과 개입하는 전략을 적용하는 테크닉과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상담 과정 및 인본주의 상담이론

사회복지사의 상담서비스 과정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목적수립을 위해 계획단계를 계획하고 탐색 단계를 거쳐 문제해결단계의 과정과 평가와 종결 단계를 바탕으로 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중 사정·계획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사는 상담가로서 클라이언트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담개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여 상담개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

45) 최옥채, 『사회복지실천론』(서울: 인간과 복지, 1999), p.201.

46) Sheafor et al., 위의 책(1991), p.90.

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사정은 미리 파악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의 개입 영역과 시기 그리고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정 즉 클라이언트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해야 하는 시기와 범위는 그 개입의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의 목표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가능성의 탐색에 따른 개입 계획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을 통해 개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은 클라이언트의 당면한 문제 혹은 잠재한 욕구에 대한 참조를 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구체적인 상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상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당면한 문제 혹은, 잠재욕구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방법과 개입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펼쳐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가져야 한다. 사정과 계획단계에서의 상담가의 임무는 클라이언트의 잠재욕구 혹은 당면한 문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신상의 정보인 성, 나이, 주요활동, 가족관계와 가족의 상황, 처한 문제 혹은 잠재한 욕구에 관련한 구체적인 원인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잠재욕구를 각 유형별 욕구의 수준에 따라 순서를 정해 상황에 맞는 욕구의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또한 바람직하다. 상담사가 주목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처한 문제 또는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의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⁴⁷⁾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위해사정 계획단계를 거쳐 세워진 계획에 맞춰 단계별 치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치유 개입단계는 당면한 문제해결단계로 사정,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당면한 문제 해결방안을 토대로 상담사가 클라이언트의 잠재욕구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다.

치유 개입단계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잠재욕구 혹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문제해결을 통해서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데 활용해 나아가는데 있어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대처능력이란 클라이언트 자신이 희망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상담가로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여 자기통찰을 통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신 스스로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타인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주도해야 한다.

47) 최옥채, 앞의 책(1999), pp.155~158.

치유 개입단계에서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상담사의 핵심적인 책무는 클라이언트의 잠재욕구 혹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 책무는 사회복지사가 상담사로서 사례에 개입하는 이유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한 목표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목표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상담가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잠재욕구나 당면문제의 상황 및 자원 활용 정도에 의해 진행된다.⁴⁸⁾ 이 단계에서 상담가로서 사회복지사는 치유자, 교육자, 정보제공자, 중재자, 중개자, 대변자, 안내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치유 개입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은 심리치료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심리치료 이론은 크게 정신분석적 접근과 행동중심의 접근 그리고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구분되고 있다(김정희 외, 1998, p.371).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해당되는 인본주의 상담은 동양 사유적인 사상과의 일치되는 점이 많아 인본주의적 즉,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 사주명리학의 접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간중심 상담의 이론은 로저스식 치료(Rogarian therapy)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학자인 칼 로저스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모델로 삼는 치유자 집단보다는 인간중심 접근을 토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방식을 찾는 치유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다⁴⁹⁾. 인간중심 접근법의 중심가설이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념, 기본적인 태도,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대한 자원을 자신 안에 갖고 있으며, 어떤 토양이 제공되기만 한다면 그 자원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토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⁵⁰⁾. 첫 번째 요소는 진정성, 진실성, 일치성이고 두 번째 요소는 수용, 배려 또는 존중 혹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며, 세 번째 요소는 공감적 이해이다. ‘진실성(realness)’이라는 말 대신 때때로 ‘일치성(congruenc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치성이라는 말은 그 순간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이 잘 들어맞는다, 또는 일치한다는 뜻이다. 그 순간에 상담자는 통합이 되고 전체가 되며 완전히 하나가 된다. 물론 상담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어느 정도는 불일치

48) 최옥채, 앞의 책(1999), pp.189~191.

49) Stephen Joseph, P. Alex Linley 저, 이훈진 · 김환 · 박세란 번역, 『긍정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9), pp.71~72.

50) Carl R. Rogers 저, 오제은 번역, 『사람-중심 상담』, (서울: 학지사, 2007), p.131.

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진실성 또는 진정성(genuineness) 또는 일치성이 최고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상담자는 배우게 되었다.⁵¹⁾ 칼 로저스는 그의 말년에 인간중심 접근법의 기초라는 글을 쓰면서 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였다.

진정성(genuineness), 진실성(realness), 일치성(congruence)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치료자 자신이 직업적인 모습이나 개인적인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록 클라이언트는 건설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치료자가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흐르는 감정들과 태도에 대하여 개방적이 되는 것을 뜻한다. 투명성이라는 용어는 이 조건에 알맞은 말이다. 치료자는 클라이언트 앞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만든다. 클라이언트는 치유자 쪽에서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 치유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기만 하다면 그가 그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으며,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서 경험한 것, 인식된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표현된 것이 모두 잘 들어맞고 일치하게 된다.⁵²⁾ 즉, 여기서 의미하는 진실성이란 치유자가 자기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경험과 항상 접촉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의 자각도 부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일치성이란 치유 관계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감정들을 막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유하고 표현하려는 의지를 요구한다.⁵³⁾ 두 번째 태도는 변화의 토양을 만드는 데 중요한 수용, 배려 또는 존중이며 칼 로저스는 이것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conditional positive regard)’이라고 불렀다. 타인에게서 받는 존중이 크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느끼는 자기존중도 선택적으로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일러 주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조건에서만 우리 눈에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전체적으로 유감스러운 과정은 많은 사람에게 결국 평가적이고 처벌적인 부모나 대리부모에게서 배우게 된 가치의 내면화를 유도하게 되고, 실현을 위한 인간 유기체의 욕구와는 거의 또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⁵⁴⁾ 따라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그 순간 어떻게 하든지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경험할 때

51) 위의 책, p.34.

52) 위의 책, p.131.

53) Brian Thorne 저, 이영희 · 박외숙 · 고향자 번역, 『인간 중심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스』 (서울: 학지사, 2007), p.99.

54) 앞의 책, pp.88~89.

치료적 발달과 변화가 더욱 잘 일어난다. 치유자는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 배려하고 클라이언트를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용한다(Rogers, 1979). 만일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상처받기 쉽게 유약하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한 잠재력을 자기 내면에서 찾아내려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치유적 에너지가 요구된다.⁵⁵⁾

칼 로저스의 공감에 대한 정의는 초기의 것과 후기의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초기(Rogers, 1957, 1959)의 정의에 따르면 공감적이란 것, 또는 공감의 상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참조 틀(internal frame of reference)’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감정적인 요소와 의미를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처럼(as if)’이라는 조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처나 즐거움을 그가 느끼고 그것의 이유들을 그가 지각하는 대로 지각하되, 마치 자신이 상처받거나 즐거운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마치 ~처럼’이라는 특징을 잃어버린다면 그 상태는 동일시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후반기(Rogers, 1975)에는 젠들린(Gendlin, 1962)의 ‘경험’ 개념을 빌려 공감의 정의를 내렸다. 공감은 상대방 안에서 흐르고 있는 느껴진 의미들의 변화가 무엇이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순간순간 민감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그 사람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의미들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이 느낀 것이 정확한지 자주 그와 함께 점검하고, 그의 반응에 의해 안내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가 클라이언트의 내면세계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신뢰할 만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함께 해주는 것은 당신이 편견 없이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당분간 자신의 견해와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상담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심리적 촉진관계로서 일치성, 수용, 그리고 공감이라는 핵심 조건들 외에 마지막으로 로저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조건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치료자의 일치성, 수용,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클라이언트가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⁵⁶⁾ 인본주의적 접근은 개인의 주관적 세계에 초점을 두고 정신분석이나

55) 위의 책, p.102.

56) Brian Thorne 저, 이영희·박외숙·고향자 번역, 『인간 중심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스』(서울: 학지사, 2007), pp.98~99.

행동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결정론에 반대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치유 개입단계에서는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상담기술이 요구되고, 상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치료 개입단계의 상담서비스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표 II-1>에서는 인간중심 상담의 발전과정에 관한 것이다.

<표 II-1> 인간중심 상담의 발전

연대	이론 및 연구의 특징	카운슬러 활동의 특징
비지시적 카운슬링의 시기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적 방법에 대한 비판 · 비지시적 방법의 개발 · 면담 녹음 기록에 의한 실증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적 · 비심판적 태도 · 수용 · 감정의 정리, 재진술, 환언 등
인간중심 카운슬링 전개의 시기(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론의 전개 · 다수의 실증연구의 수행 · 점차로 기법보다 태도를 중시 · 필요충분조건의 제시 · 과정 개념 · 과정 척도의 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감정의 반사 · 후: 태도의 3조건을 중시(자기일치, 무조건의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
카운슬링의 심화와 내담자중심 실존화의 시기(1950년대 종말~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과정이론의 전개 · 정신분열증환자에 대한 연구 · 체험과정요법의 발전 	체험과정의 추진과정에서 인간중심의 상담이론으로 시작.
인간중심접근으로 이행하는 시기(1960 · 1970년 대~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카운터 그룹의 실천 · 연구 ·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 · 포커싱 등 새로운 방법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치료에 통제하지 않고 사회적 흐름에서 활동을 추구 · 인간중심적 활동

3) 서구 심리상담 이론과 동양적 사유의 성정이론의 접근

음양오행의 기반인 사주명리학, 『연해자평(淵海子平)』은 년주(年柱)위주로 이론을 펼치던 이전의 사유체계에서 일주(日柱)위주로 이론의 새로운 틀로 전환

기를 형성한다. 당시의 정치 환경적 요인으로 왕권의 조직체계를 중시하던 년주 중심의 사상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일주 위주의 사상으로의 전환은 시대의 획기적인 변환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는 개인의 성정론에 관한 내용을 따로 장을 두어 비중 있게 다루어 온 것이다. 전술한 이론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인간의 성정 이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다.

삶의 질에 대한 목적을 가치로 현대적 용어로 표기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 상담에서의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 서구 심리학을 정신역동이론,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이론, 인본주의 이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⁵⁷⁾ 학자마다 주장과 심리상담의 현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가졌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시대와 나라의 문화적인 사유체계가 분명히 전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상적 주제로 인본주의 상담론 즉, 인간중심이론으로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정신역동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불리는 아들러, 융 그리고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고전 정신분석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목적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자아 기능을 강화시키고 지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이론들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아들러의 이론은 가족 상담과 집단사회 복지실천에 유용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치료하기보다 클라이언트가 가진 사회적 관심과 왜곡된 삶의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고, 클라이언트의 잠재된 창조성을 끌어내도록 격려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치료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사회복지사수험연구회, 2007).

집단 무의식과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한 융의 이론은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인간행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중년기 클라이언트의 심리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의 이론에 기반한 분석 심리치료에서 치료자는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발전 과정을 함께 체험하는 사람으로, 클라이언트가 내면세계의 목소리와 요구를 귀담아

57) 박선숙, 「사회복지상담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p.48.

듣고 자신의 내면의 삶을 탐색함으로써 정신의 정체성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에릭슨의 이론은 사회제도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관점에 일치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던 사회적 관계를 가족, 친구, 동료, 직장, 인류 공동체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타당성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아를 강화하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적 시각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연령에 따른 발달과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사회복지사수험연구회, 2007).

스키너와 같은 전통적인 행동주의 이론들은 인간을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역량강화를 중요시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이론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동주의이론들은 사정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사회복지사는 해결되어야 할 행동상의 문제, 예를 들면 상습적인 폭력이나 약물 및 알코올 남용과 같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될 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 조건과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강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개입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하도록 해 준다. 아울러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개입과정에서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아동 대한 개입에서 정적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하며, 행동수정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효과적이며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다.

모델링과 같은 사회학습이론의 기법 역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나 청소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개입기법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어떤 상황에 대하여 공포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델링 기법은 매우 성공적인데, 사회복지사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모델을 보여 주고 클라이언트가 어려움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델링된 행동을 연습하도록 한다(Forte,

2007). 측정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둔 행동주의 이론들은 사회복지실천에서도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실천 모델이 되고 있다.

즉, 문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입을 통한 효과성과 목표 달성의 정도를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최순남, 2002). 인간 환경에 대한 지각, 기억, 감정, 해석 등과 같은 인지이론의 핵심 요소들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장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 실제 생활에서의 위기개입,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 등에서 인지치료의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으며(김기태 외, 2006), 특히 정신 건강과 약물 및 알코올 의존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들에게 효과적인 실천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다(Parrish, 2010). 실제로 인지이론을 사용한 개입은 구조화된 접근이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개입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오창순 외, 2010).

이와 같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인지이론에 기반한 실천을 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 Forte와 Zastrow는 유의할 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Forte, 2007: 280~281; Zastrow, 1995: 613~614). 인지적 접근을 선호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간이 생리·심리·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지이론가들은 인간의 다른 어떤 측면들보다 정신적 능력과 사고 과정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반드시 비합리적 사고나 인지적 측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생화학적 혹은 신경학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약물중독의 경우도 그 행위를 지속시키는 클라이언트의 신념체계 뿐 아니라 신체상의 갈망이나 금단 증상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지이론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사고 과정은 비합리적이라고 간주하고 감정에서 자유로운 정보인식 과정과 논리적 사고 과정을 더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 사고와 감정은 분석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양질의 정보처리 과정은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인지이론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맥락과 다양성의 이슈를 참조해야 한다. 인지이론의 대표 학자인 피아제를 포함한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실패나 성공을 설명할 때 사회적 변수보다는 개인적 측면의 변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

다.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지구성을 가정하는 인지이론에서는 개인의 인지와 신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사건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이나 박탈, 학대,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근원을 가진 문제들에서조차 그 핵심을 간과한 채 개별적 사고의 전환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그렇다.

또한 인지이론에서는 합리성을 개별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사고방식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사고 과정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는 집단적 맥락이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 간에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진 합리성의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 집단의 기준과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지적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합리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척도를 고려하고, 클라이언트가 처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되는 생각이나 잘못된 정보처리 과정을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동료집단, 학교 그리고 사회화의 맥락 속에서 추적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인지치료는 매우 지시적이고 교육적이므로 치료자의 가치와 철학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처신은 매우 중요하다.

인지이론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인지 발달의 초기단계에 있는 클라이언트일 경우, 인지치료의 활용 및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사고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반추하는 능력이나 동기화에 한계가 있는 클라이언트는 비합리적 신념을 규명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인본주의 이론적 체계화에 기여한 칼 로저스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크게 공헌한 것은 치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연구한 것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연구들을 고무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전에 치료과정을 객관적으로 연구했음에 비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 그는 실체에 대하여 뉴턴적이고 기계적이며 직선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전통적 관점의 과학적 지상주의에 빈 말로라도 동의하는 것에도 이상 찬성하지 않게 된다.⁵⁸⁾ 즉, 칼 로저스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을 개진한 초기와 중반에는 심리상담의 과정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시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서 그는 학문적인 심리학 분야활동에서 작업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⁵⁹⁾

58) Joseph, S., Linley, P. A. 저, 이훈진·김환·박세란 번역, 『긍정심리치료』(서울: 학지사, 2009), pp.154~155.

그 연유는 무엇일까?⁶⁰⁾ 칼 로저스는 과학적 연구의 궁극적 효용성에 대해서 양가감정(兩價感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은 생애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그는 심리치료를 과학적으로 심리치료의 과정이 실제로 측정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고 고백하였다. 이에 대해서 브라이언 손(Brian Thorne)은 “로저스가 어떤 신념구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한 직업(기독교 목사)의 뒷에 걸려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갖게 되었던 혐오감을 떠올리게 만 든다.”고 표현했다.⁶¹⁾ 그래서 “로저스가 모든 것이 과학적 용어로 설명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혹은 “과학적 용어로 설명되는 날이 실현된다면 비극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는 지적을 한다. 일단 칼 로저스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세계인 ‘현상학적 장(phenomenal field)’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개인의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여 삶 속에서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각자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로저스에 따르면 각 개인은 주관적 세계에서 생활하며, 과학자가 말하는 객관적 세계조차도 주관적(主觀的)인 지각, 목적 및 선택 등의 산물이라고 한다.⁶²⁾ 그리하여 칼 로저스는 현상학적 접근방법(phenomenological approach)을 취하여 ‘지금, 여기’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주관적 의식세계 속에서 자신과 외부세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경험하는지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연구하였다. 칼 로저스가 말년(1979년)에 밝힌 ‘변형된 의식상태’에 대한 설명은 그의 현상학적 접근이 극대화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내가 내 안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과 어떻게든 접촉할 때, 아마도 약간 변형된 의식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매우 치료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내 내면의 영혼이 상대방의 내면의 영혼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는 것 같다.

심리치료 그룹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초월적이고 영적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러한 신비하고 영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⁶³⁾고 밝혔다. 칼 로저스는 각종 수치와 연구 설계로 정형화된 서구학문의

59) 위의 책, p.154.

60) 위의 책, p.72.

61) Brian Thorne 저, 이영희 · 박외숙 · 고향자 역, 『인간 중심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스』(서울: 학지사, 2007), p.47.

62) 노안영 · 강영신, 『성격심리학』(서울: 학지사, 2003), p.320.

근원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즉,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영역에서 과학으로 설명되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량화, 또는 정량화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특히 칼 로저스가 언급한 ‘변형된 의식상태’는 더욱 그러하고 그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인 치료적 조건 세 가지⁶⁴⁾ 또한 객관적으로 반복하여 검증하는 데 난해한 점이 존재한다. ‘변형된 의식상태’와 같은 현상은 서양과학의 영역이 아닌, 동양철학(哲學)이나 인문학(人文學)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칼 로저스가 동양의 철학사상에 주목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는 매우 자연스럽다. 다음은 그가 평소 좋아하고 깊이 공감하고 있는 구절로 『도덕경(道德經)』 57장의 내용이다.

내가 무위(無爲)하니 백성은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며,
내가 일삼는 것이 없으니 백성은 스스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자 하니 백성은 스스로 소박해진다.⁶⁵⁾

칼 로저스가 자신의 문헌에서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인용한 내용으로 서구적 문화에서 동양적 사유에 대한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따라서 자신이 언급한 『도덕경(道德經)』의 구절에서 매우 깊이 공명(共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점은 많은 시사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가 주장하는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자의 ‘비지시성(nondirective counseling)’을 통해 사람의 가치 실현성향에 대한 신뢰이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상담의 비지시적 상담은 앞서 전술한 노자의 ‘무위사상(無爲思想)’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비지시적 상담에서는 상담의 기술보다는 포용적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강조하여 클라

63) Rogers, C. R. 저, 오제은 역, 『사람-중심 상담』(서울: 학지사, 2007), pp.143~144.

64) Stephen Joseph, P. Alex Linley, 이훈진·김환·박세란 역, 『긍정심리치료』(서울: 학지사, 2009), pp.72~74.

65) 김홍경, 『노자: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서울: 들녘, 2003), pp.286~287.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상담자의 ‘무위(無爲)’를 중시한다. 만약, 상담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면,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설교하게 될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57장 구절을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본다면, “상담자가 간섭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자신을 돌본다.”, “상담자가 지배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의 스스로 바르게 행동한다.”, “상담자가 설교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개선한다.”, “상담자가 강요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라고 상담론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도덕경(道德經)』의 위 구절은 비지시성, 즉 상담자가 클라이언트의 대한 ‘무위(無爲)’를 강조한 말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중심 상담의 기저(基底)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의 대한 상담자의 비지시성 그리고 실현성향에 대한 믿음, 치료적 조건 세 가지와 『도덕경(道德經)』의 ‘무위사상(無爲思想)’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중심 상담이론과 동양의 노자 · 장자 철학 사상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 다수의 비교연구(김성주, 1995, 유성애, 2003,) 등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상담이론의 대부분이 서구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시작된 이론인 것에 반하여,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은 동양의 철학적 사유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양과 서구의 사유적인 체계가 다르더라도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만날 수 있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융복합을 통해 실천 학문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3. 사주명리학의 상담분석 이론

1) 음양오행의 심리적 측면과 통변성

사주명리의 음양오행은 심리적 측면과 상담의 통변성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체질, 심리, 기분, 건강, 섭생, 환경 등과 개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주명리학 이론의 주된 논지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향과 우주로부터

받고 태어난다는 사실적 기반을 전제한다. 즉 타고난 기운의 성향, 기질은 사주 명리학의 상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는 것이다. 사주명리학의 상담의 순서는 연월일시를 60갑자로 치환하여 네 기둥 여덟 자 중 일간을 중심으로 남은 일곱 자를 음양으로 분류한다. 이 때 일간의 음양, 오행적 속성을 파악하여 오행이 상호 작용하는 관계인 십성(十星)과 간지의 회, 합, 형, 충을 기본으로 삼아, 강약론, 격국론, 용신론, 육친론 등으로 당사자의 성향을 이해한다.

이어서 태어난 월지를 일간과 대비하여 격국을 설정하며, 명식의 주인공의 음양, 오행적 속성을 참고하여 격국을 통해 당사자의 가치관 및 직업성향을 파악한다. 일간의 신강, 신약을 분류 일간에 절대 필요한 용신오행을 선별한다. 사주명리학의 상담순서에 『연해자평평주(淵海子平評註)』 「계선편(繼善篇)」에서 다음과 같은 고대의 음양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천지의 기(氣)를 품수 받았다. 명(命)은 천지의 음양(陰陽)의 기운(氣運) 속하여 길러진다. 대자연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살고 있으므로 모두 오행(五行)의 이치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음양과 오행(五行)의 수(數)를 품수 받음은 사람이 속한 목화토금수를 떠나지 않은데 있다. 천지가 대자연의 만물을 생하고 형태를 완성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자연 만물의 령(靈)을 얻었다. 따라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늘과 땅의 정기(正氣)를 받아서이다.⁶⁶⁾

천간 지지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항상 상대적인 값이다. 이것을 상(象)이라고 하는데,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다면 높은 산은 양이고 낮은 산은 음이 된다. 하지만 낮은 산과 언덕이 있으면 낮은 산이 양(陽)이 되고 언덕이 음(陰)이 된다. 서구의 심리학에서는 유형에 따라 인간의 태도를 외향성(外向性)(extraversion)과 내향성(内向性)(introversion)으로 구분하였다. 외향성은 객관적 태도이고, 내향성은 주관적 태도를 말한다. 만약 객관적인 성향이 우세하면 그 사람은 ‘외향자(外向者)’라 하고, 주관적인 성향이 우세하면 ‘내향자(内向者)’라고 불린다.⁶⁷⁾ 외향자는 객관적인 현실의 외부 세계를 지향

66) 徐升, 『淵海子平評註』 「繼善篇」, “人稟天地, 命屬陰陽. 生居覆載之內, 盡在五行之中. 人稟二五之數, 猶天地之生物以成形. 人得萬物之靈, 乃天地之正氣方爲人. 所屬陰陽五行, 不離乎金木水火土也.”

67) C. G. Jung 저, 설영환 번역, 『C.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2007), pp.153~154.

하고 대인관계에 솔직하고 사교적이고 솔직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긴다. 내향자는 내적이고 주관적 삶에 가치를 두어 내성적이며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주명식 구성이 음기(陰氣)가 태왕(太旺)한 당사자를 내향자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편적으로 내성적이고 보수적이며 자기의 내면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자신의 감정표현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매우 신중한 처신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음기가 태왕할 경우 자기 마음속의 내재된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우울감을 자주 경험한다. 또한 대중 친화적인 면에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을 사귀는 일에도 소극적이다. 상대적으로 양기가 태왕한 사람보다 주변을 더 의식하고 정신 세계에 몰입하는 심리상태를 보인다.

한편 양기가 태왕한⁶⁸⁾ 사주명식의 구성자는 외향자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긍정적 · 미래지향적이고 자기와 타인, 대상과 사물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다.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대중적인 심리성향을 보인다. 또한 표현력이 탁월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며, 때로는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다. 음기가 태왕(太旺)한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이 주체자야(主體自我)가 되어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면이 강하고, 때로는 물질추구의 심리특성을 보인다.⁶⁹⁾ 그러나 전적으로 내향자나 외향자인 경우는 없다.

음일간(陰日干)이 양월(陽月)에 생하거나 특히 음일간 중에서도 辛金 · 癸水일 때를 말하고 양일간(陽日干)이 음월(陰月)에 태어났을 때를 말하는데 특히 갑목(甲木), 병화(丙火)일 때, 그리고 음일간이 양월에 생(生)하더라도 관성과 인성, 아니면 식상과 재성을 추구할 때는 다른 심리적 성향을 드러낸다. 양일간이 음월에 태어났다 이 경우도 인성과 관성으로 향할 때의 심리적 성향이나 또는 재성과 식상을 향할 때에도 또 다른 심리적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성향에 대해서 칼 융은 ‘무의식적’ 과 ‘의식적’ 일 때로 분류한다. 의식적인 외향자와 내향자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직접 표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방 드러난다고 말한다.⁷⁰⁾ 이는 양일간이 양월에 출생하여 식상과 재

68) 陽氣가 太旺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命主가 陽日干이면서, 특히 甲木과 丙火나 때로는 乙木이나 丁火가 陽月에 태어나고(특히 巳午未月), 傷官과 偏財가 왕성함을 말한다.

69) 고재민, 「四柱命理의 宮星과 格局用神論研究」, 대구한의대 박사학위논문(2016), pp.41~42.

70) 위의 책, P.154.

성을 향할 때와 음일간이 음월에 태어날 경우에 관성과 인성의 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외향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비사교적이며, 자기주장을 굽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양일간이라도 음월에 태어날 경우에 관성과 인성이 열정적으로 작용할 경우면 일간 자체는 양(陽)이지만 성장환경인 출생한 달이 음기운이 작용하는 계절이면서, 또한 일간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관성과 인성 때문에 전형적인 외향적 성향을 띄우지 않는다. 다만 환경에 따른 주변 상황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양일간이 양월에 태어나고 명식의 식상과 재성(특히 상관과 편재)이 일지(日支)와 시주(時柱)에서 역할을 다하면 외향적인 심리특성을 드러낸다. 음일간이 음월에 태어나고 원국의 관성과 인성(특히 편관과 편인)이 연주(年柱)와 월주(月柱), 때로는 일지(日支)에서 역할을 다한다면 내향적인 심리태도를 보인다.

양일간이 음월에 태어나고, 원국에 식상과 재성이 투출(透出)하지 못하고 관성과 인성이 있으면, 본래 외향적이지만 주변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심리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음일간이 양월에 태어나고, 원국에 관성과 인성이 천간으로 투출하지 못하고 식재가 있으면, 원래는 내향적이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는 외향적 심리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성향 자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라는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간의 태어난 달과 그리고 열 가지의 십성 작용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이론의 활용으로 전공이나 직업, 직무, 배우자 관계 등을 포함한 진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대인관계와 취미활동, 사회활동에서 지향하는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음양이 가리키는 두 가지 속성에서 고유의 성정을 보면 음과 양의 어떤 면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본성도 달라지는 것이다. 아래 <표 II-2>는 음양의 특성을 구별해놓은 예이다.

<표 II-2> 간지의 음양, 조후, 신강신약 분석표

분석기준	음양구분	특성
간지의 음양	양간지	정신적인 면의 추구, 일차적 양성표출
	음간지	물질적인 면의 추구, 음성표출

기후조건	난조 구조	조급, 단순성, 율동적, 외향적,
	한습 구조	내향적, 사색적, 인내, 내밀성, 분석적
신강/신약	신강	적극적, 자신감, 능동적, 통제력, 자만심
	신약	소극적, 수축감, 피동적, 의지력, 방어심

* 출처: 김기승, 『사주심리치료학』 (서울: 창해, 2004), pp. 19~21, 연구자 재정리.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은 선함을 타고난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성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인본주의적 사유는 타고난 성품이 원래 선하다는 논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선한 품성을 익히고 노력하면 더욱 선한 품성을 유지하고 악한 품성을 습관적으로 행한다면 저절로 악하게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경계로서 순자(荀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蓬生麻中 不扶自直 (쭉이 삼대 사이에서 자라면 돕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자란다).⁷¹⁾

쭉이 가진 본래의 본성은 곧은 것이 아니다. 곧게 자라는 삼대나무의 특성인 삼대 밭의 환경을 만나 삼대의 지주 역할로 곧게 자랄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사람도 성장 환경의 경우에 따라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다. 사주명리학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천간 지지에 자리한 음양을 분류 하고 음양의 관계적으로 십성을 치환하여 사주 명식을 구별하게 되며, 사주에 분포된 음양의 배합에 따라 격국과 용신에 따른 삶의 성패와 길흉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명식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파악하는, 즉 자기인해를 통해서 삶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사주명리학적 지혜인 것이다. 음양의 구별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일간이 음양의 기세를 따라 종격(從格)이 되는 조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일간이 양간일 경우에는 기를 따르고 세를 따르지 않는데 비해서 음간은 세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기와 세의 구별은, 월령(月令)을 얻는 것을 기(氣)라고 하고 월령과는 별개로 시주를 중심으로 무리를 지은 것은 세(勢)라고 한다. 시주를 중심으로 득세한 것은 무리를 지어 세를 얻은 것이 된다. 또한 득세한 것을 왕(旺)이라 하다. 반대로 실시한 것을 쇠(衰)라고 한다. 또한 득세한 경우를 강(強)이라하고 실세

71) 『荀子』 「勸學篇」, “蓬生麻中, 不扶自直.”

한 경우는 약(弱)이라 한다. 또한 득시할 경우라도 실세를 하게 될 경우는 이때 신약하게 되면 왕변위약(旺變爲弱)이 되고, 비록 실시했을지라도 득세하여 신강하게 되면 약변위강(弱變爲強)이 된다. 왕쇠는 월령에서 기를 얻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강약은 천간과 지지에서 무리를 지어 세를 얻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명식의 구성에 따른 십간, 십이지 배치에 의한 순서로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의 구분으로부터 명식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음양에 대한 이론은 명식의 기준을 종격론(從格論)과 성격론(性格論)으로 구별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어 양일간이 득시한 경우에는 중하지 않지만 명식의 구성에 따라 음일간은 득시한 경우라도 세력을 따라서 중할 수 있다. 명식의 구성이 신강일 경우 양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신약은 음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게 된다. 성향을 나눠보면 신강 구조는 적극성을 띄고, 자신감이 넘치고 활동적이다. 또한 통제력이 높고 자신감이 넘친 행동을 한다. 신약구조는 소극적이고 위축감으로 인해 피동적이며 방어심이 강하다. 성향에 맞는 직업, 직무를 선택하게 되면 직무 능률이 효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론으로 음양의 이론으로 분석한 성향론은 사주명리학의 직업론에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사주명리학은 중화(中和)를 얻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여, 음양과 오행의 중화를 추구하게 되며, 사주명식의 중화를 이루는 오행이 곧 용신(用神)인 것이다. 용신을 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신강신약을 구별하게 된다. 용신을 정하는 취지는 사주명식의 중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다.

2) 십성론의 이해와 상담범위

사주명리학 십성론의 주요 상담 범위는 개인의 타고난 선천적 성격, 심리, 행동, 지능, 혈육관계, 인간관계 등의 성향과 길흉화복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는 나의 부모, 형제, 처자의 육친(六親)은 팔자(八字)안에 있다고 하였다⁷²⁾. 일간이 나머지 일곱 자와 맺는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일간과 일곱 자와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어가 육신(六神)이며 일명 십신(十神) 또는 십성(十星)이라고 한다. 십성(十星)

72) 심효침 저, 이을로 강해, 『子平眞詮講解』(동학사, 2009), p.135, “人有六親, 配之八字, 亦存於命.”,

은 육신(六神)을 세분화한 명칭으로 일간과 다른 간지의 생극(生剋)관계와 음양(陰陽)의 차이를 가린 것이다⁷³⁾.

십성의 관계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등과 같은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대인관계, 지식과 기술, 의식주와 재산, 권리와 의무 등으로도 나타난다(함혜수, 2008)⁷⁴⁾. 양원석(2002)⁷⁵⁾은 사주팔자(四柱八字)란 조물주(造物主)로부터 받은 자신의 창조명세서이고, 전생(前生)의 성적표이며 현생(現生)의 계획표로 인생의 각본(脚本), 설계도(設計圖), 타고난 운기(運氣)의 부호, 일기예보라고 하였다. 즉, 십성(十星)은 생년월일시를 사주(四柱) 즉, 연주(年柱)인 연간(年干)과 연지(年支), 월주(月柱)인 월간(月干)과 월지(月支), 일주(日柱)인 일간(日干)과 일지(日支), 시주(時柱)인 시간(時干)과 시지(時支)와의 관계를 사주(四柱)의 주인인 일간(日干)을 기준으로 배속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상생상극(相生相剋)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십성(十星)에 따른 기질과 작용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문헌 중 유안의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水는 木을 생한다. 木은 火를 생하고, 그래서 火는 土를 생한다. 土는 金을 보면 생하고, 金은 水를 보면 생한다. 자식이 어머니를 생하여 의롭다고 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하며 양육하고 보호하면 모자는 서로 뜻을 얻어 전일하다고 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제지하면 제재한다고 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이기려 하면 묶여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한다. 이겨서 살육하면 승리는 한다. 하지만 보은을 받지 못한다. 전일함으로 일을 해나가려면 둘 다 공이 있게 된다. 의로움으로 이치를 행한다면 명성이 날로 세워져 추락하지 않는다. 보호함으로 양육하게 되면 만물이 번창한다. 하여 묶여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파멸하여 죽게 된다.⁷⁶⁾

상기의 내용은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이론으로서 비유하여 사람의 가져야

73) 김기승, 앞의 책(2011), p.193.

74) 함혜수, 「사주의 편중된 십성이 개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p.9.

75) 양원석, 『명리학개론』(대유학당, 2002), p.28.

76) 劉安, 『淮南子』, 「天文訓」(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子生母曰義, 母生子曰保, 子母相得曰專, 母勝子曰制, 子勝母曰困. 以勝擊殺, 勝而無報. 以專從事, 而有功. 以義行理, 名立而不墮. 以保畜養, 萬物蕃昌. 以困舉事, 破滅死亡.”

하는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따른 도리를 말하고자 하는 문헌의 저의에는 사주명리학의 사유적 담론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간으로 명리이론의 십성의 관계론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다음은 『子平眞詮評註』에 나오는 십성관계론이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이론을 보면 水는 木을 상생하고 金은 木을 금극목 한다. 그러나 오행을 음양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생하고 극하는 것이다. 水는 木을 상생하는 인수지만 음양으로 분류하면 편인과 정인으로 분류한다. 金은 木을 상극하는 관성이지만 음양에 따라 정관 편관으로 분류 된다. 나를 생하는 인수는 편인과 정인의 작용이 비슷하여 좋고, 나쁨을 논할 수 없지만, 나를 상극하는 관살에서는 정관과 편관에 판단을 명확히 하여 그 관계성을 보다 상세히 살펴야 한다.⁷⁷⁾

이와 같이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조화로 일간(日干)과 타 간지와의 관계가 십성으로 명칭을 갖게 되고,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곱자의 관계를 대칭하여 다음과 같은 명칭이 정해진다. 비견(比肩)은 명식의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의 오행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명식의 일간(日干)과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겁재(劫財)라고 한다.

일간이 생(生)하면서 음양이 같으면 식신(食神), 음양(陰陽)이 다르면 상관(傷官)이다. 일간(日干)이 극(剋)하고 음양(陰陽)이 다르고 오행(五行)이 같으면 정재(正財)가 되고, 일간(日干)이 극(剋)하고 음양(陰陽)이 같으면 편재(偏財)이다. 일간(日干)을 극(剋)해 오고 음양(陰陽)이 다르면 정관(正官)이다. 일간(日干)을 극(剋)해 오고 음양(陰陽)이 같으면 편관(偏官)이 된다. 일간(日干)을 생(生)하면서 음양이 같으면 편인(偏印), 음양이 다르면 정인(正印)이라고 한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명식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에 따른 각각의 관계성에 의한 명칭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육친, 십신, 십성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이유는 오행의 속성을 음양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어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십성이 갖는 속성을 보면, 비견은 주체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77) 심효침 저, 서락오 평주, 『子平眞詮評註』 (대만: 무릉출판유한공사, 2002), p.29. “然以五行而統論之, 則水木相生, 金木相剋. 以五行之陰陽而分配之, 則生剋之中, 又有異同. 此所以水同生木, 而印有偏正. 金同剋木, 而局有官煞也. 印綬之中, 偏正相似, 生剋之殊, 可置勿論, 而相剋之內, 一官一煞, 淑慝判然, 基理不可不細詳也.”

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일이나 설정된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며 추진하는 정신적으로는 의지와 집념이 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나 추진력은 때로는 지나친 고집이나 경쟁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신체를 활용하는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강하게 표출하고 비타협적인 면을 지닐 수 있고, 지나칠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외로울 수 있다. 흔히 독불장군이 되어 자신만 옳다고 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직업군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이 적합하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자유직업이 좋다. 자영업, 지점(支店) 운영, 출장소, 교사, 조경, 지부(支部), 지점(支店), 지회(支會), 변호사, 청부업, 주유소, 회계사, 세무사, 의사, 기자, 체육인, 교수, 군인, 경찰, 군사전략가 등이 적합하다

전공학과로는 약학과, 의학과, 방사선과, 경제학과, 한의학, 경호학, 체육과, 장의사학, 안경학, 이비인후과, 기계공학, 등의 방향이 좋다. 겁재가 원국에서 기·구신의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때나 대인관계를 할 때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개를 더 가지려고 하다가 있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흔히 욕심은 금물이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과 원만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겁재의 성향으로는 동업적 투자와 공동투자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일에는 주의를 요하고 특히 투기 또는 도박이나 사기(詐欺)⁷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수의 보장 등의 권유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겁재가 희(喜)·용신(用神)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활용하여 자신이 재물을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겁재는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비견보다 뛰어나고 경쟁심도 대단히 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겁재는 흉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역시 원국의 구성을 잘 살펴서 긍정의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직업군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증권업, 영화산업, 예술인, 사채업, 고고미술이나 도자기업, 오락업, 청부업, 호텔, 여관업, 변호사, 교수, 회계사, 의사, 카지노, 기자, 요식업, 교사 등이 적합하다. 학과적성으로는 체육과, 경제학, 약학과, 경호학, 국제 정치학과, 장의사학, 군사학, 외과, 치과, 국제금융

78) 나경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상관성에 관한 사주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학과, 국제 정치학과, 연기, 영화학과 국제금융학과, 등의 학과가 유리 하다.

식신의 기본적인 특성은 활동성과 창조성, 생산과 투자, 식복(食福)을 상징한다. 특히 식신은 참신하고 성실성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재능이나 기술로 표현되거나 연구하고 기획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외부에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식신을 식복 또는 일복이라고 말하듯이 항상 일 자체를 즐기고 성실히 임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식신이 회·용신일 경우에는 일관성을 지니고 할 수 있는 연구나 발명, 또는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과학자나 발명가, 시나리오나 글을 쓰는 문필가나 방송의 해설자나 논설, 기획이나 연출 등과 같은 업무가 적성에 적합한 직업이나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일이나 활동을 선호하므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에 어울릴 수 있다. 물론 일간이 강하고 식상과 재성이 회·용신일 경우에는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재물을 크게 축적하거나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직업군으로는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연구원, 예능분야, 미술, 음악, 체육, 식품제조업, 컴퓨터, 디자인, 금융, 슈퍼마켓, 종교분야, 학과적성으로는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예능분야학과, 사회심리학과, 섬유공학과, 식품공학과, 아동심리학과, 미생물학과, 수의학과, 네트워크정보사업 등이다.

상관의 기본적인 작용도 식신의 경우와 기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일간과 음양이 다르므로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식신(食神)은 한 가지 사물에 대한 깊은 탐구심이나 연구심이 강하지만 상관은 사물의 운용(運用)이나 활용(活用)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식신은 성품이 온후하고 여유가 있으면서 침착하다면 상관은 덩벙되거나 요란하면서 수다스럽고 활발할 수 있다. 또한 상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기를 강하게 원하고, 호불호(好不好)를 거침없이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식신은 연구하고 사색(思索)하는 정신적인 방면의 활동이나 일을 좋아하고 일관성이 강하며, 상관은 자신을 대외적(對外的)으로 표현하고 육체적인 방면의 폭넓은 활동이나 일을 선호하여 때로는 허세를 부리거나 윗사람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신은 정신적인 노동의 일이나 직업을 선호할 수 있고, 상관은 육체적인 노동이 포함된 일이나 직업을 선호할 수 있다.

직업군으로는 예체능 종사자, 과학, 변호사, 가수, 발명, 대변인, 역술, 필설직, 디자인, 종교인, 아나운서, 코디네이터, 유통업, 제조업, 가수, 문필가, 네

트위크정보사업 등의 방향이 유리하다. 전공분야로는 호텔학과, 정신과, 정치외교학과, 언론학과, 영상학과, 어문학과, 성악과, 연극과, 관광통역과, 종교학과, 무역학과, 언론정보학과, 문예창작과, 사진예술학과, 천문기상학과, 의상학과, 정보통신과 등이 선택이 유리하다.

편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상대방을 전적으로 억압하거나 통제하고 제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신을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강하게 재물을 추구하므로 필요한 곳에는 돈도 잘 쓰지만 냉혹한 면도 지니고 있다. 더하여 지리에 밝고, 공간적인 개념이 다른 심성에 비해 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국의 편재가 용신이면서 상관이 온전할 경우에는, 사업가나 모험가의 성정이 강하고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현실적인 설계도나 실체적으로 구성하는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현실성과 이재理財에 밝을 수 있다. 강력하게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이기도 하다.⁷⁹⁾

직업군으로는 유동재물(流動財物)로서 무역, 부동산, 생산업, 증권, 투자, 사업, 음식점, 경영, 전당포, 유흥업, 약물업, 생산업, 축산업, 여행사 금융업 등이 유리하다. 전공학과로는 경영학과, 건축과, 항공학과, 토목과, 물리학과, 외교학과, 철도학과, 설치미술, 무역학과, 조소학과, 산부인과, 수학과 등의 방향이 유리하다.

정재는 자신만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고정적인 재물로서 쉽게 변동이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재물이다. 그러나 정재도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 충(沖)이나 합(合)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변동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재운(正財運)이 오면, 남명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미혼일 경우에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물론 일주(日柱)가 충·극이 되는 경우에는 성사(成事)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재도 편재와 유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성품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직업군으로는 고정재물(固定財物)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업, 상업, 무역, 특허 인증 대행사업, 세무사, 회계사, 생산제조업, 건축업, 부동산, 경리, 관리, 운수업, 학원, 신용사업, 등이 유리하다. 전공학과 분야로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토목과, 금융학과, 원예과, 내과, 성형외과, 재료분석학과, 회계학과, 건축공학과, 무역학과, 통계학과, 가정관리학과 분석심리학과 등의 선택이

79) 박주현, 『사주심리학 2권』 (서울: 삼명, 2007), P.277.

유리하다.

편관(偏官)은 기본적으로 권위와 명예를 특히 중시하고, 원칙(原則)과 소신(所信), 법질서(法秩序)와 결단성(決斷性), 과감성(果敢性) 등을 대표하는 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비의 절제된 행동이나 인내심과 엄격함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편관은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미와 여기에 따르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관은 원칙이나 법을 중시하고 사회성과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직이나 관직을 의미한다. 기신으로 적용할 때의 특성은 폭력성과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강패나 소인배 등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관성(官星)이 원국에 있어야만 관직(官職)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관성이 온전할 경우에 관직에서 입신출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물론 오늘날에도 관성이 온전하면서 격(格)을 이루고 회·용신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⁸⁰⁾에 관직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다양성과 속도의 시대이며 나아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심성이 고루 유용하게 활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직업군으로는 편관의 성향으로는 무관이나 특수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 대인관계에 서열과 상하가 관계가 있는 직업이 유리하다. 군인, 종교지도자, 교도관, 군무원, 경찰, 경비원, 형무관, 별정직, 정치가, 하사관, 장성, 기술직 등의 방향이 유리하고 전공학과 선택은 요리학과, 불교대학, 국방대학, 신학대학, 정치학과, 경찰대학, 경호학과, 사관학교, 체육학과 등의 선택이 유리하다.

정관은 기본적으로 편협(偏狹)된 사고나 행동을 하지 않고 합리적이며, 법이나 규칙 또는 사회규범을 준수하여 정도(正道)를 지향하고 신사다운 행동을 한다. 또한 심성(心性)이 정직하고 성실하면서도 마음이 관대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서로간의 다툼이나 분쟁보다는 타협과 화합을 중시한다. 나아가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지닌 평화주의자(平和主義者)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관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직장의 상사나 윗사람은 간섭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자신과 상호 협력하거나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편관과 달리 정이 있는 상하관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정관은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공

80) 박주현, 같은 책, p.312.

평무사(公平無私)한 업무처리를 중시하므로 법이 없어도 정도를 가는 영국 신사 처럼 매너가 좋고 친절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합리적이면서 사회규범을 중시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理性的)인 행동과 사고를 선호한다.

직업군으로 정관은 일반적으로 정찰업적(正札業的)인 직무가 적합하다. 학자, 행정관, 관공계통, 총무, 군인, 경찰, 회사원, 통계업, 비서, 공무원, 위탁관리, 지배인, 의류제조업, 사법관 등이 유리하고 전공학과는 독서지도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학과, 교육학과, 사회과학과, 비서학과 등의 선택이 유리하다.

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직관(直觀)과 예지(叡智)의 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비롭고 특수한 분야의 학문이나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홀로 사색에 잠기거나 종교나 철학 또는 신비한 분야에 심취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에 대한 흥미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다양성이나 유연성보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편향된 경향이 강할 수 있다. 또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교적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도 비교적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롭고 신비한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존의 의식이나 발상을 전환(轉換)하거나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유발하여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물질만능의 시대에 정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업군으로는 편인의 성향상 전문성이 있는 직업에 유리하다. 학자, 디자인, 예술인, 의사, 역술, 종교가, 인테리어, 보석, 오락, 부동산, 언론인, 여관, 골동품, 미용, 배우, 출판업, 임대업 등이 적합하다. 전공학과 선택은 심리학과, 디자인학과, 정신과, 약학과, 정보학과, 무용학과, 음악과(관현악), 신문방송학과, 예술, 종교학과, 문화, 교육학과, 철학과, 사학 등이 유리하다.

정인의 기본적인 성정(性情)은, 윤리나 사회규범에 순응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인의 성정은 타인에게 포근하고 온정적이며 남을 해치지 못하는 선(善)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재물보다는 명예나 안정을 중시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자애심과 정(情)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며, 꼭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인이 원국에 온전하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올바른 인간성을

지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 또한 정인의 학문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학문을 의미하고, 삶의 방식은 의(衣), 식(食), 주(住)와 명예를 중시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역시 편인과 유사하게 예지(叡智)와 통찰력(通察力)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직관이나 판단력이 강할 수 있다. 또한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를 존중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할 때는, 합리적인 소비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므로 검소하고 절제된 행동을 하며 이로 인하여 재물(財物)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교적 인색할 수 있다. 물론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직업군으로 정인은 교육, 학원, 육영, 문화, 언론, 종교, 출판, 정치, 번역, 출판, 행정, 통역, 컴퓨터 관련 직종, 방송작가, 응용미술, 예술, 일반예술, 저술, 기사, 창작적 업무 등이 유리 하고 전공학과 선택은 문화인류학과, 교육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문예창작과, 국문학과, 사학과, 유아교육과, 어문학과, 종교학과 등이 유리하다.

3) 격국론의 이해와 상담범위

사주명리학 격국론의 주요 상담범위는 한 인간의 사회성, 사회적응 능력, 재능방향, 직업체질, 직무능력, 직업적성,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능력과 가치관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격국(格局)이란 사주명식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하여 일간에 가장 강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기운을 뜻한다. 사주명식의 주체는 일간이다. 일간이 사주명식의 주인으로서 명식의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절대적으로 일간에게 필요한 오행을 선별 되어야 하는데 그런 필요에서 격국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격국은 격(格)과 국(局)이 합쳐진 것이다. 격은 명식에서 일차적인 강한 세력으로 표기되는 오행이다. 일간이 명식의 운용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이 되고, 국은 격에 이은, 격의 작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순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격국은 사주명식의 기본적인 틀이므로 격국에 나타난 오행 즉 십성의 명칭에 의한 사주명식의 대략적인 특성이 정해지게 된다. 사주를 파악하는 것은 고전적 의미로는 당사자의 육친관계, 결혼, 질병, 성격, 성향, 직업, 부귀, 빈천, 수명 등 삶의 여정에 대한 중대한 사건과 길흉을 예측하여 흉을 피하고 길함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사주 감정의 순서로는 출생정보에 의한 명식이 이뤄지

먼 먼저 격국을 정하고 이어서 용신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에 따른 회기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단계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명리학 이론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 것이다.

격국의 크게 분류하면 정격(正格)과 외격(外格)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격국 이론에 따라 성격(成格)과 파격(破格)으로 구분된다. 성격이 되면 부귀하고 파격이 되면 빈천하다고 보게 된다. 격국 이론에 따르면 격국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파악하고 용신에 의한 그 사람의 길흉을 파악하게 된다. 격국을 분류하면 정격(正格)에는 정팔격(正八格), 십정격(十正格) 등이 있다. 고전명리서에서는 비견격, 겁재격을 정격에 침삭치 않았으나 최근에는 명리연구자들은 십성 전체를 정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활용하고 있다. 십정격에 건록격과 양인격을 비견격과 겁재격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적천수천미』에서는 정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일간을 극하여 오는 재성을 편(偏)과 정(正)으로 나누고, 일간을 생하여 오는 인수 역시 편(偏)과 정(正)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식신과 상관을 논함으로써 팔격이 정해진다. 명리 가운데 올바른 이치 보는 팔격(八格)은 정인과 편인, 그리고 정재와 편재 또한 정관과 편관 그리고 식신과 상관이 바로 그것이다. 격을 정하는 이치는 먼저 월령에 어떤 지지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어떤 오행이(신이) 투출했는지를 본다. 그리고 사령(司令)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진가(眞假)를 정한다. 그런 다음에 용신을 선정하고 청탁을 분류하는 것이 경험하여 보면 순리에 옳았다. 만약 월에서 건록과 양인을 만난다면 격으로 선정할 수 없다. 반드시 일간의 회기를 살펴서 혹시 다른 지지에서라도 천간에 투출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써도 무방하다. 그런데 격국에서는 정과 편으로 분류하여, 정격은 반드시 오행의 상생 이치의(상리常理)를 따른다. 상관생재격, 관인격, 재관격과 재살격, 식신제살격, 식신생재격, 상관패인격, 살인격(殺印格) 등이 있고, 오행의 기세를 종(從)하는 변격(變格)이 있다. 변격에는 종재격, 종관살격, 종식상격(종아격), 일간을 중심으로 비견으로 이뤄진 종왕격(從旺格)과 인성으로 이뤄진 종강격(從強格)이 있다. 종기격(從氣格), 일행특기격은 한가지 기운으로 수의 기운, 목의 기운, 화의 기운, 금의 기운, 토의 기운의 다섯 가지 격이 있으며, 일간을 중심으로 세력이 균등하게 이뤄진 종세격(從勢格)이 있다. 양기성형격(두가지 기운이 상생하거나 상극하는 열 가지 격) 등이 있다. 이 밖에 외격(外格)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연구하여 본 결과 오행의 바른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었다⁸¹⁾.

81) 袁樹珊 撰輯, 任鐵樵 增注, 『滴天髓闡微』(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전술한 바와 같이 격국은 사주명식에서의 전체적인 틀을 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격국에 의한 성정론과 가치관의 지향적인 직업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격국을 구성했다는 의미는 사주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가장 강한 기운의 오행이 격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오행의 속성을 적용하면 개인의 성정과 사업의 직종에 대한 범주를 이해할 수가 있다.

식신격은 매사에 연구하는 심성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능률적이며 희생과 창조적 성향으로 사색적으로 주어진 동기에 몰입을 하며 정신적 영역으로 자신을 구축하는 내면적 사유성을 갖는다. 식신격은 자신의 기여도가 높은 봉사정신의 기반으로 공적 희생과 상대에 배려심을 전재하는 이타적 실현성이 크다. 대체적으로 주어진 직무에 성실하다.

상관격은 예술과 정신적 성향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할 능력이 우수하다. 또한 사안의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상관격의 특성상 순간적 발상이 뛰어나 발명과 예능적 소질과 기질을 보인다. 이와 같은 소질로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라면 무난할 것이다. 개성이 강한 성향상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업무에 좋다.

편재격은 탐재와 유동적 성향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속성이 강하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대상에 예는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감하려 한다. 이제에 빠르고 목적실현을 가치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상과 공상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편재는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관심이 많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물리적인 변화, 변동에 매력을 느끼는 학과가 좋다.

정재격은 노력과 실리적 성향으로 정밀한 관리력을 통한 물질적인 면에서 편재보다는 완제품이나 음식을 다루는 일에 민감하다. 정확한 신용을 바탕으로 실수가 적어 장기적 행정, 관리에도 탁월하다. 정재격에 편인이 함께 하면 이익창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재무에 해당하거나 관리하는 학과나 직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편관격은 성향적으로 지지 않으려는 호승심이 강하고 경쟁력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인물이다.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주요한 역할의 인물이다. 정관이 있으면 음양이 갖추져 예술가, 평론가, 학자가 되고, 만약 식신 혹은 상관이 있고 경찰계에 투신하면 순조롭게 성공한다. 편인, 정인이 있으면 다재다예하다. 종교, 문예, 교육, 법률계에서 역할이 좋다. 비견, 겁제가 있으면 다양한 직업에서 발전이 있다. 정관격은 신뢰를 우선으로 한다. 정직하고 믿음을 지

킨다. 기본적으로 공직에 적합하다. 직장에서 쉽게 승진한다. 정관격이 정인, 정재, 편재가 긍정적 역할이면 경제, 공업, 상업, 정치 계통에 무난하다. 대체적으로 쉽게 만족한다. 상관, 편인이 있으면 도전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기자, 의사, 화가, 작가, 연예인 등에도 적합하다.

정관격은 규범과 모범적 성향으로 명예와 권위를 중요시한다. 원리원칙을 고수하며, 올바른 이론을 추구한다. 군자의 성향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봉사정신도 강하다. 따라서 교육이나 행정학, 법학과 등에 관심이 많다. 약자를 보호하는 봉사정신도 강하다. 이런 성향에 부합되는 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경우 대단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편인격은 재치와 추구적 성향으로 순발력과 재치가 있다.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비현실적인 면이 강할 수 있다. 정신적 사유가 깊은 종교에 심취하거나 예술적 성향이 많은 곳에 흥미를 느낀다.

정인격은 명예와 의무적 성향으로 숭고한 계승을 원칙으로 한다. 학업능력 또한 우수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항상 정확히 받고 정확하게 주려는 성향으로 교육자에 적합하다.

비견격은 비견은 일간과 같은 음양과 오행을 말하며 동질과 독립적 성향으로 독립심, 자존심, 책임감이 강하다. 자존감 있는 자세를 고수하며 책임진 일을 잘 수행한다. 식신이 회, 용신역할이 있으면 연구에 몰두하는 형이다. 한편으로는 개혁정신을 갖고 정당한 자신의 주관을 지키며,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관공직에서 투철한 행동과 사명의식으로 처신하여 성공하게 된다.

겁재격은 일간과 오행은 같다. 하지만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독단적 성향으로 비견격과 상당히 동일하게 성향이다. 비견격에 비해 재물에 대한 욕구나 경쟁의 성향은 다소 강하다. 겁재의 특성은 자존심과 경쟁심이 강하다.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직업이나 학과가 좋다.

격국론을 통한 직업적성을 탐색 할 때 참조해야 할 점이 있다. 격국이란 그 기질을 재능으로 잘 표현시켜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또는 긍정의 재능을 가지고도 생애주기에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성패의 결과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명식에 어떤 기질과 재능이 있다는 것과 그 기질을 표현시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격국론 자체만으로는 직업에서의 성패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적 유무의 판단은 다음 장의 용신(用神)에 의한 척도로 유추하게 된다. 아래 <표 II-3>에서는 각 격국에 해당하는 용

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II-3> 격국별 용신표

격국별		용신	내용
정격		억부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부조함
		조후	더우면 차게, 추우면 덥게
		병약	태과불급이 병이 되면 그 병을 제거
		통관	둘이 충돌하고 있는 관계를 화해
변격	전왕격	木 곡직격	木 從하는 木이 용신
		火 염상격	火 從하는 火가 용신
		土 가색격	土 從하는 土가 용신
		金 종혁격	金 從하는 金이 용신
		水 윤하격	水 從하는 水가 용신
	종격	종살격	관성 從하는 관성이 용신
		종인격	인성 從하는 인성이 용신
		종재격	재성 從하는 재성이 용신
		종아격	식상 從하는 식상이 용신
	화격	丁壬合化木格	木 從하는 木이 용신
		戊癸合化火格	火 從하는 火가 용신
		甲己合化土格	土 從하는 土가 용신
		乙庚合化金格	金 從하는 金이 용신
		丙辛合化水格	水 從하는 水가 용신
그 외 종강격, 종세격이 있음			

4) 용신훈의 이해와 상담범위

사주명리학의 용신훈 상담범위는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즉 무엇보다 좋고 나쁜 시기와 때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 재능발휘, 삶의 변화과정 예측, 길흉화복, 성공과 실패 운 등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용신(用神)이 사주명리학에서 갖는 의미는 길흉성패를 해석하는 기준의 척도로 활용되어 왔다. 명식의 당사자의 삶의 여정에 지대한 영향을 갖게 하는 척도로서 현대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용신이 갖는 의미는 중요한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 눈을 그리는 작업만큼 중요한 것이다. 문헌을 살펴보면 일간 위주의 최초로 알려진 □연해자평의 「계선편(繼善篇)」에, “용신은 손상하면 아니 되고, 일주는 건왕한 것이 가장 마땅하다.”⁸²⁾라고 했다.

용신이 힘이 있으면 부귀하게 되고 용신이 쇠약하면 빈천하게 된다. 오행으로 선정하여 십성으로 치환한 용신이 되면 그 용신에 해당되는 육친이 명식의 일간과의 관계성을 논하는 것으로 덕이 있고 없고 하는 관계 설정은 생하고 극하는 관계이다. 운에서 만나게 되는 오행이 용신이면 그 대운과 세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오행이 기신에 해당되면 그 대운, 세운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에 긍정의 역할을 하면 그 대운과 세운에서는 부귀하게 되고,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에 대해 부정의 역할로서 극하거나 합해서 힘을 약화시키면 그 운에 빈천하게 된다. 결국 용신을 정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생애주기 대부분에 해당되는 길, 흉, 성, 패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용신의 의미는 사주명식에서 필요한 유용지신(有用之神)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역할의 오행인 것을 용신이라 정의한 것이다.

사회복지 상담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이해를 통해 언제 어느 때 목표를 위해 시도할 것이고, 현재 문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초로서 활용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간을 중심으로 기준하는 사주명리학을 최초의 고전인 연해자평(淵海子平)의 「논대운」 편에서는 “출생월의 용신으로 그 격을 안다.”⁸³⁾라는 구절이 있는데, 연해자평에서도 유용지신(有用之神) 개념으로 용신을 활용하여 길흉판단의 유무를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사지신의 용신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연해자평』의 핵심사상인 명리학의 중화(中和)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연해자평』에서는 중화를 위해 용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의 명은 중화의 기를 얻어야 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가 중화되면 복이 두텁고, 치우쳐 무리를 지은 것이 극하면 재앙이 된다.”⁸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중화의 관념과 일치하는 견해는 유용

82) 徐升 編著, □『淵海子平 卷2』(臺灣: 瑞成書局, 1985), p.1, “用神不可損傷, 日主最宜健旺.”

83) 徐升 편저, □『淵海子平 卷2』(臺灣: 瑞成書局, 1985), p.19. “月之用神, 則知其格.”

84) 徐升 편저, 앞의 책, p.100,

지신의 의미를 가지는 용신인 것이다. 용신을 정하는 법은 보편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억부용신(抑扶用神), 조후용신(調候用神), 병약용신(病藥用神), 통관용신(通關用神), 전왕용신(專旺用神)의 다섯 종류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용신법으로 억부용신을 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익히 알고 있듯이, 고전 『명리약언』에서는 용신을 구하는 것은 억부용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적천수』에서는 사주명식에서 명식의 왕쇠의 판단을 할 줄 알면 이미 사주명리의 절반을 터득한 셈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연해자평』을 비롯한 대다수 고전에서도 억부용신을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여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사길신, 사흉신의 이론을 중시하고 억부를 무시했다고 비판받는 □『자평진전』에서도 각각의 격국에서 길흉을 논할 때는 반드시 억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표 II-4>에서는 신강할 때의 억부용신 활용방법이며, <표 II-5>에서는 신약할 때의 억부용신 활용법이다.

<표 II-4> 신강한 경우의 억부용신취용법

인성이 많은 경우	財星을 용신으로 취한다.
比劫이 많은 경우	官殺을 용신으로 취한다.
印劫이 섞여 있어서 강한 경우	食傷을 용신으로 취한다.
印星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	印星을 용신으로 취한다.
比劫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比劫을 용신으로 취할 수도 있다.

<표 II-5> 신약한 경우의 억부용신취용법

食傷으로 신약한 구조	먼저 인성(印星)으로 선정한다.
官殺으로 신약한 구조	먼저인성 (印星)으로선정한다.
財星으로 신약한 경우	比劫이 제 1 순위다.
食財로 신약한 경우	印劫을 모두 선정 것이 좋다.
財殺로 신약한 경우	印劫을 모두 선정 것이 좋다.
食財官로 신약한 경우	印劫을 모두 선정 것이 좋다.

조후용신(調候用神)은 기후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용신이다. 사주가 지나치게 한습한 경우와 지나치게 난조한 경우에는 사주가 균형을 잃게 되어 중화를 잃게 된다. 억부용신이 신강신약의 중화를 갖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라면 조후용신은

한난조습(寒暖燥濕)의한 중화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후용신은 여름인 4, 5, 월에 출생한 사주는 水를 용신으로 삼고 한겨울인 10월, 11월, 12월, 1월에 태어난 사람은 火를 용신으로 삼는다. 억부용신이 일간을 중심으로 중화(中和)목적의 두는 용신법이라고 한다면, 조후용신은 한여름과 한겨울을 염두에 둔 즉, 더울 때는 水를, 추울 때는 火에 균형을 둔 용신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연해자평에서는 조후용신에 대해, “남방의 뜨거운 불은 북방 수운(水運)으로 들어가면 이롭게 되고, 북방의 차가운 물은 남방 화운(火運)으로 들어가면 이롭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화기제(水火既濟)의 공을 이룬다.” 85)고 했다.

조후용신은 억부용신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용신법이다. 병약용신(病藥用神)은 사주명식에 병 있을때 약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활용한 용신법이다. 병약설은 장남(張楠)이□□의 저서『명리정종(命理正宗)』에서 병약설(病藥說)을 체계화한 용신법이다. 병약설은 사주에 있는 병을 제거하는 오행(약)을 만날 때 결과가 좋다는 것이다. 병약용신을 주장한 장남은 『명리정종』의 그의 저서「병약설류(病藥說類)」란에서 조고왕약(雕枯旺弱)의 네 가지 병과 손익장생(損益生長)의 네 종류의 약(藥)을 강조하였다. 네 종류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무엇을 병이라고 하는가? 사주팔자 원국에 있는 해로운 신이다. 어떤 것을 약이라고 하는가? 필요의 오행을 얻어 사주에 있는 해로운 오행을 제거하는 것이다. 각각의 병에는 반드시 약이 있다고 주자(朱子)가 설명한 것과 같다. 옛 글에 이르기를, ‘병이 있어 약이 있을 시는 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용신이 손상됨이 없다면 기이할 것이 없다. 또한 격에 있는 병을 제거할 때, 재와 록(財祿)이 따라온다.’ 라고 하였다. 이 네 구절에 명리책 만 권의 주요 요점이 다 들어있다. 사람에게는 중화를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중화만 따진다면 길흉과 변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부귀한 사람들은 먼저 그 근골을 고생스럽게 한다.⁸⁶⁾그렇게 하여 인내심을 발휘하게 하는 분발심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알게 하므로 운명의 묘한 이치를 알게 할 수 있다.

85) 徐升 편저, 앞의 책(1985), p. 186.

86) 張神峯, □『命理正宗』□ (臺灣: 武陵出版社, 2007), p.27. “何以爲之病? 原八字中, 原有所害之神也. 何以爲之藥? 如八字原有所害之字, 而得一字以去之之謂也. 如朱子所謂各因其病而藥之也. 古書云, ‘有病方爲貴, 無傷不是奇, 格中如去病, 財祿兩相隨.’ 命書萬卷, 此四句爲之括要. 蓋人之造化, 誰貴中和, 若一一於中和, 則安得探其消息, 而論其休咎也. 若今之至富至貴人, 必先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然後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 人命之妙, 其猶此乎!”

통관용신(通關用神)은 사주에서 두 가지의 오행이 대치하여 강약을 분별하기에 힘들 경우에 그 오행을 상생의 작용을 통해 소통하게 하는 오행이 바로 용신이다. 통관의 격으로는 살인상생격(殺印相生格), 재자약살격(財滋弱殺格), 식상생재격(食傷生財格)이 대표적이다. 전왕용신(專旺用神)은 사주명식에서 기세가 왕한 오행으로 기운으로 치우쳐지게 된 구조에서 도저히 그 세력을 거역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 기세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그 기세에 순응한 오행을 용신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격국의 분류로 종격(從格)과 화격(化格)과 전왕격(專旺格)은 이 원칙에 정한 것이다. 이 밖에 용신을 보면 재를 따르는 종재격, 식상을 따르는 종아격이 있고, 관살을 따르는 종살격을 전왕용신이라 한다. 기타 외격이라 부르는 일행득기격, 인성으로 왕하게 구성된 명식을 종강격, 비겁으로 구성된 종왕격 등이 있고 화기격 종세격, 종기격 등도 있다.

전왕용신의 원리를 통해서 『적천수』의 강중적과(強衆敵寡)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억부용신과 반대되는 전왕용신에서는 억부용신이 강약의 균형을 갖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과는 반대로 강한 기운을 따르고 약한 것을 버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전왕용신이다. 이러한 용신론의 활용은 복지상담에서의 삶의 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용신을 통한 사주 간지에 나타난 음양오행과 십성의 의미를 통해서 진로탐색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위한 직업적 효용에 따른 만족과 성취감을 갖는 것은 용신에 나타난 음양오행과 십성의 직업적 기질을 파악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일단 사주에 나타난 십성은 그 분야의 직업방향성과 직무의 소질이 있다고 간주하는 이론을 전제하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다. 그래서 그 기질이 재능으로 발현하여 삶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용신이다. 명식에서 유추된 직업을 가리키는 오행이 용신(用神)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방향의 직업적성에 따른 선택이 본인에게 잘 맞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부정적 요인인 기신(忌神)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업 분야에 소질과 관심은 있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주명리학에서의 용신이 갖는 의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삶에서의 길, 흥, 성패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사주명리학에 타고난 기질에 따른 삶의 방향성, 직업적 소질, 생애주기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발현의 시기를 알 수 있는 이론적 원리는 앞에서 음양오행론, 십성론, 격국론 등을 통해 설명하였다. 거기에 타고난 기질의 십성이 용신에 해당하면 긍정의 결과로, 기신에 해당하면 부정적으로 구별하여 그

방향성에 성공으로 연결되는지의 여부를 용신론에 입각해서 유추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용신과 무력한 용신의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한 용신 사례 1>

(坤命) 壬 甲 乙 辛
申 午 未 巳

壬 辛 庚 己 戊 丁 丙
寅 丑 子 亥 戌 酉 申

甲木 日柱가 未月에 출생하고 천간으로 지장간의 乙木이 월간으로 투간하여 겁재격이다. 월지의 未土에 통근된 겁재격은 천간 辛金의 극에 의해 乙木이 손상되는 듯 하지만 辛金의 뿌리이고 장생지인 巳火는 지지의 巳午未 삼합을 이루는 관계로 뿌리를 잃었다. 실령 실지 실세로 신약 구조인 용신 壬水는 장생지 申金을 얻어 용신이 건왕(健旺)하다.

<건강한 용신 사례 2>

(坤命) 甲 癸 壬 丁
寅 丑 子 亥

戊 丁 丙 乙 甲 癸
午 巳 辰 卯 寅 丑

癸水가 子월에 출생하여 비견격이다. 지지가 亥子丑, 방합을 이루어 水氣가 왕성하니 甲木으로 설기해 주는 것이 좋다. 丁火가 무근한데 다행히 甲木이 寅木에 통근하여 용신이 건왕한 사주가 되었다.

용신으로 선정된 오행이 뿌리를 얻지 못한 상태 즉, 甲乙 용신이 申月이나 酉月에 출생하여 오행왕상휴수사의 이론에 입각한 이론으로 금(金)극(剋)목(木)으로 사(死)라 하여 무근(無根)이라 한다. 또한 巳午月에 출생(出生)하게 되면 오행용사(五行用事)가 휴(休)가 되어 역시 무근(無根)이 된다. 亥, 子월에 출생하여 용신을 생할 때는 상(相)이라 하고 辰월 戌월 丑월 未월에 태어나면 오행용사가 수(囚)가 되어 무근이 된다.

또한 용신이 월령의 기운을 얻지 못하면, 때를 얻지 못한 이유로 실령이라 한

다. 용신이 득시(得時)했으나 타주에 있는 다른 오행이 제극 당하여 실세하고 지지하면 무근이라고 한다. 용신이 통근하지 못하거나 용신오행이休나 囚나 死일 때 무근이 된다. 용신이 다른 오행에 극제를 받거나 형충(刑沖)이면 역시 무근이 된다. 다음은 무근의 사례예시이다.

<용신무근 사례 1>

(乾命) 壬 戊 庚 丁
戊 午 戊 巳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戊土가 戊月에 태어나 丁火가 투간하여 정인격이 되었다. 지지가 午戊로 반합하고 丁巳년에 태어나 火 기운이 旺한 사주로 매우 조열(燥熱)하다. 시간의 壬水는 통근하지 못하고 庚金의 도움으로는 강한 불길을 잠재울 수 없다.

<용신무근 사례 2>

(坤命) 丙 癸 辛 壬
辰 丑 亥 子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辰 巳 午 未 申 酉 戌

癸水가 亥월에 출생하여 壬水가 투간하였으니 겁재격이다. 지지의 亥子丑이 방합하고 시지의 辰土도 습토이며 월간의 辛金은 水를 생성하니 온통 물바다이다. 오직 시간의 丙火를 용신하고 싶지만 지지에 뿌리가 없어 용신으로 쓰기가 힘든 사주이다.

용신의 취용법은 대운 세운에서 적절한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다. 용신만 정확하게 선정한다면 사주해석은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용신(用神)의 작용성은 인생여정 에서의 부귀빈천과 학업의 성과, 특히 일상에서 추구하는 사안 등에 대한 결과에 많은 영향이 있다. 이와 같이 명식내 용신의 역

할이 격국과 조화를 이루며 일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은 환경요인에 따라 심리 및 행동체계를 운용한다. 그러므로 용신의 활용은 생태체계적(生態體系的) 설정에 따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사주명리에 적용될 수 있다. 개인에게서의 용신은 생태체계적 요인을 구성하며 생애주기에 길한 여정을 주도하는 기운으로서 삶의 질(質)에 긴밀한 관계를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주명리의 상담배경은 사회복지 상담의 적용에 매우 중요한 기반 조성으로 활용성의 가치가 있다는 게 연구자의 임상경험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얻게 된 결과이다.

Ⅲ. 사회복지 상담을 위한 사주명리의 접근

1. 사회복지상담의 체계

1) 서구 상담의 이론 및 시스템

서구상담에서 이론적 실천모형은 크게 나누어 보면 정신역동적 이론 모형, 행동주의 이론 모형, 인본주의 이론 모형 등 주요 심리학 세력에 의한 실천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설정하고 있다⁸⁷⁾. 그러나 이런 주요한 이론 모형 등도 역시 복지상담자가 갖추고 있는 능력이나 선호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채택되어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 검사 도구에 있어서는 성격검사, 문장완성검사, 적성검사, 그림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상담현장에서 최근의 상담경향은 장기상담 보다는 해결 중심의 단기상담을 통한 과제중심의 역량강화이론과 모델이 선호되고, 내담자의 특성과 호소 문제에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치료의 첫 면접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기대와 동기를 확인하며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실시한다. 단기치료의 초기단계에서는 내담자의 행동패턴을 확인하고 내담자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고 확장하여 내담자에게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서구심리상담에서 활용하는 이론과 같이 사회복지실천 상담에서도 아주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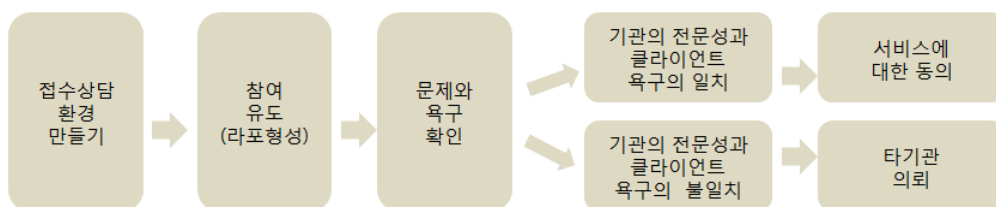
해결중심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담자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도록 돕는데 주력한다.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과거가 아닌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를 더 강조한다. 내담자가 원하는 미래를 정확히 이루어 내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해결중심이론은 전통적인 치

88) 박선숙, 「사회복지상담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P.116.

89) 같은 논문, P.254.

료적 관점에 의문을 제기했던 정신과 의사이며 최면 상담자인 밀턴 에릭슨(Milton H. Erickson), 해일리(Haley)의 전략적 치료, 개인구성치료(personal construct), 신경언어학적 프로그래밍(Neuro-Linguistic Programming: NLP)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상담에서 내담자와의 접수단계는 상담을 위한 세부적인 한 단계이지만 상담의 목적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적극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주어진 정보에 의해 이후 단계를 설정하게 된다. 접수 단계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 검토를 마치면 문제에 따라서 전문적인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타기관의 의뢰의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III-1>은 접수단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림 III-1> 상담 접수단계의 과정.

2) 인본주의 상담과 욕구이론

인간중심 상담(person-centered counseling)에서는 사람을 유기체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 동기를 가진 선한 존재로 보고 있다. 내담자들은 자신이 가진 환경에서 자신 스스로 실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에 환경이 촉진하기만 하면 자신 스스로 유기체로서 경향성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선함과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실현하려는 기본적인 경향성을 신뢰를 중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 상담의 신념의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창시자인 칼 로저스(Carl Rogers)의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원리와 인간관, 기법 및 적용에 대한 복지현장 에서의 활용성에 대한 탐색을 한다.

칼 로저스는 사람중심상담을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

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개념, 기본적인 태도는 심리적인 기반이 갖춰 지기만 한다면 자기 안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중심 상담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과거나 현실에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장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촉진하는 존경과 신뢰의 기반만 갖추어지면 자신의 인생 목표와 미래의 행동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를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드는 존재이고, 자기 이해와 자기 지시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Cain, 1987). 사람은 자기실현의 경향성을 중시하며 계속 성장해 가는 존재다. 사람중심 상담에서는 사람은 자기실현을 발휘하기 위해 항상 노력과 시도를 하고 도전하며, 어려움의 극복을 통해 진정한 한 사람으로 거듭 성장해 간다고 보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유기체의 성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상담자의 진실성과 진솔성, 그리고 긍정적 존중 또한 정확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내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면, 내담자의 경계가 약화되어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더 깊게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회적이고 건강한 사고로서 건설적인 태도로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다.

칼 로저스는 인간중심 연구를 하면서 인간에서 두 가지 성향성을 가정하였다. 그는 이 두 가지 성향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하나는 유기체의 특성인 실현성향이며, 두 번째는 형성성향이다. 이 두 가지는 인간중심상담이론에 접근하는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다른 개념보다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차후 주장하게 되는 인간중심 상담의 세 가지 이론인 치료적 조건은 실현성향, 형성성향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사람중심 상담을 주창한 칼 로저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기체는 각자 고유한 실현성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바로 명리이론의 기반이 되는 음양오행의 속성과 유사한 이론이다.

사주명리학이 가지는 첫 번째의 의의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사유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저스가 성정과 행동은 물론 그의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함을 배제하고 인본주의의 가치와 목적에 맞게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그의 활동과 저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복지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소중한 자세이다.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려 한다면 상담자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인생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1) 치료적 조건의 관점

칼 로저스는 사람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자세로 치료적 조건중 하나인 상담자의 진솔한 공감의 적절성⁹⁰⁾을 제시하였다. 『적천수(滴天髓)』에 이르기를, “사주원국에서 다섯 가지 기운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성정은 중화를 이루고, 원국이 탁하고 어지러우며 편고하면 성정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된다.”⁹¹⁾ 고 하였다. 즉, 사주명리학의 이론에서도 도를 지나치지 않는 오행간의 조화(調和)로움과 균형(均衡)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본주의 상담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적 조건으로 제시한 진실성,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는 명리학의 고전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언급한 오행의 속성의 의미와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즉, 木 기운을 상징하는 인(仁)과 측은지심(惻隱之心), 火 기운을 상징하는 예(禮)와 사양지심(辭讓之心), 土 기운을 상징하는 신(信)과 성실지심(誠實之心), 金 기운을 상징하는 의(義)와 수오지심(羞惡之心), 水 기운을 상징하는 지(智)와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다섯

90) Carl R.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한승호, 한성열 역, 1998, 서울: 학지사, p.320. “상담자가 만약 극단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따뜻함, 관심, 반응성의 특징을 가진 유대를만들었다면, 그리고 명확한 한계 내에서 정서적인 애착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자는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통제된 동일시’, ‘건설적인 침착성’ 혹은 ‘정서적으로 분리된 태도’ 등 다양하게 불린다. 임상장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엄밀한 과학적 분야에서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게 정의된다. 즉 객관성(objectivity)이라는 개념 속에는 도를 지나치지 않는 공감(共感, sympathy)의 능력, 진정으로 수용적이고 관심을 가진 태도,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거나 두려움이나 충격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이해심을 포함한다.”

91) 袁樹珊 撰輯, 任鐵樵 增注, 『滴天髓闡微』(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p. 386, “五氣不戾, 性情中和, 濁亂偏枯, 性情乖逆”

가지 속성과 인본주의 상담이론의 치유자의 태도는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명리학 이론에서 木 기운의 긍정적 역할은 사람을 측은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본주의 상담의 이론인 긍정적 존중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火 기운이 속성인 사양하고 겸손하려는 마음은 상대를 향한 배려로서 예(禮)를 갖추어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火 기운 또한 인본주의 상담에서 지향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같은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土 기운의 속성으로 성실하게 지속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은 인본주의 상담의 공감적 이해에서 갖추어야 하는 경청(敬聽)의 자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감의 정도는 내담자를 향한 주의 집중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성의 있는 태도로서 내담자의 경계의 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태도의 의(義)의 속성을 가진 金의 마음과 지혜를 상징의 속성인 水의 지(智)는 정신적인 영역을 주관하고, 지혜를 밝게 쓰는 것을 가치로 삼는다. 인본주의 상담에서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 점을 내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본주의 상담에서 치료적조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관계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명리이론의 ‘오행이 어떤 기운이 인본주의 상담에서 치료적 조건의 어떤 요소와 일치한다.’ 라는 요점도 유효하지만, ‘치료적 조건은 명리이론의 오행론적 관점 또한 상호간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결합되어 있다’ 는 논지 또한 일리가 있을 것이다.

사주명리학에서 오행은 독립적인 개체로서도 존재하지만,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이론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통해 오행의 속성 의미가 더욱 발현된다. 상생과 상극의 이론적 기반으로 한 사람의 사주를 구성하고 성정을 포함한 사주명식의 통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 욕구이론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사람은 본능과 갈등의 존재이며 무의식과 비합리성에 연합된 존재라고 하고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사람은 외부자극에 수동적인 존재로 환경에 귀속되는 피동적 존재라 한다. 이에 비하여 많은 인본주의 또는 제3

세력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환경조건이 적당하기만 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아가려는 존재라 하고 있다.⁹²⁾

인본주의에서는 인간본질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관점을 갖는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매슬로우는 오직 인간경험의 긍정적 초점에 맞추었다.⁹³⁾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김교현 외 역, 2005) 매슬로우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진다.(pervin et. al., 2005)

첫째, 매슬로우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욕구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가 보는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기본적 욕구인 목마름, 배고픔, 수면, 등 이고 자존감, 애정, 소속감과 같은 내재적으로 심리적 욕구로 구분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물과 음식 없이 제대로 살 수 없듯이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욕구들은 단계적으로 신체의 욕구에서 다시 심리적 욕구에 이르는 단계로 이동한다고 보았다.

둘째, 매슬로우는 신체 건강하고 자아실현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의 내면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매슬로우의 연구에서 결과로 자아실현적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스스로를 돌보면서도 도 다른 사람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인지하는 사람들이다.

자아실현적인 사람은 상대에 대해 의도적이거나 의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닌 사람과 상황의 독특성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아실현적인 사람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이건 자발적이며 창의적으로 대처 하며 현실의 여러 요구에 있어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많진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⁹⁴⁾

이와 같이 욕구의 연계성을 보면 낮은 단계의 욕구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에 동기부여를 한다. 즉, 상위 단계의 욕구가 증대되기 전에 아래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단계의 욕구는 태동되지 않는다.⁹⁵⁾ 다음 <표 III-1>은 욕구위계설을 요약 설명한 내용이다.

92) 같은 책, P.276.

93) 오창순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판』(서울: 학지사, 2015), p.209.

94) 같은 책, p.210.

95) 고병채, 『상담 심리학』(파주시: 양서원, 2011), p.276.

<표 III-1> 5단계 욕구위계설

단계	욕구	단계별 특징
5 단계	자아실현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이 단계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재능, 능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다. 선택을 받는 극소수만이 여기에 속한다(10%). 이 욕구단계의 저해요인은 ①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②안전욕구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안전에 대한 의심이 강하다. 이런 안전욕구 때문에 고령층의 사람에게 위협을 준다.
4 단계	자존심욕구 (self-esteem needs)	자존심욕구를 흔히 자존심과 타존심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순차는 자존심이 먼저 발달하고 타존심이 뒤에 발달한다. 그러므로 자존심 단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타존심 단계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무시당해도) 상관없다(自己卑下).’ 는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은 없어져도 좋다(모멸감).’ 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 and love needs)	이 단계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인 안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난다. 자기 가족 내에서의 위치 확보, 준거집단(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집단) 등을 갈망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고독의 아픔, 친애집단에 의한 주방, 소외, 배타감(남으로부터 거부되는 것) 등을 체험한다. 그 외에도 친구, 친척, 배우자, 어린이가 없을 때 욕구좌절이 온다.
2 단계	안전의 욕구 (safety needs)	Maslow는 안전의 욕구란 그들이 상대적으로 무력한 것과 어른에 대한 의존성 때문이라 하였다. 다른 요인보다 이 안전의 욕구는 지속성이 강하여 고령단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인기의 직업, 저축, 보험가입 등을 선호하게 한다. 장년기에 직업선택에서 안전직종을 선호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욕구의 영향이다.
1 단계	기본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5단계 욕구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동기로서 추동동기(의·식·주·성)이다. 일종의 본능적 동기에 속한다. 이 단계의 욕구수준은 가장 원초적인 동기로서 일종의 결손동기(defecency)이라고도 한다. 이 욕구는 저속적인 것이면서 장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결핍될 때 다른 단계의 욕구좌절에 영향을 준다.

* 출처: 고병채, 『상담심리학』 (과주시: 양서원, 2011), p.277.

3) 측정도구 - 설문지 기법

이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상담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개인의 성격이나 직업에 대한 이론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인

MBTI 성격유형과 Holland 직업흥미유형에 관해 살펴본다. 이어서 사주명리이론의 개인성향과 직업적성은 문헌에 의한 고찰과 현대에 이르러 제기한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동양과 서구의 개인의 성향 및 직업적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방법, 비슷한 점, 다른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비교하고, 사주명리 상담을 활용하여 복지상담 현장에서의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의 성격 파악과 직업 선호도에 관한 이론

MBTI는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심리적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선천적 선호경향과 직업선택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사주명리가 선천적이며, 선천적 경향을 따를 때 직업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직업흥미유형은 Holland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Holland 이론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직업 환경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이는 사주명리의 격이 인간이 활동하는 ‘시·공간’ 이고 인간의 역할을 요구하는 ‘직업 환경’을 유형화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이론은 사주명리의 직업적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MBTI 성격유형과 Holland 직업흥미유형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⁹⁶⁾

MBTI에서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어떤 공통된 특징에 따라 유형별로 나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4가지 척도에 근거하여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⁹⁷⁾ 융의 이론에 의하면 “선호경향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에’ 주의를 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영향을 미친다.”⁹⁸⁾ 이러한 선호경향을 4가지의 기본적인 척도에 의해 나타내고 있다.

96) 김정택 · 심혜숙, 『MBTI 질문과 응답』(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6), p.9, 『MBTI 질문과 응답』에 의하면, “칼 융은 심리경향이 선천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융에 의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심리적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97) 김정택 · 심혜숙,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7), p.10.

98) Isabel Briggs Myers, Mary H. McCaulley 저,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 번역, 『MBTI 개발과 활용』(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87), p.2.

먼저 외향과 내향에 관한 기준은 EI(Extraversion-Introversion)척도이다. 외향형과 내향형은 상호보완적인 태도이다. 일상생활을 할 때 개인의 관심의 방향이 외부 세계인가 내부 세계인가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밖의 사람이나 사물을 활용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개념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감각과 직관에 관한 기준은 SN(Sensing-iNtuition)척도로 감각을 통해 인지하려는 호감경향인지, 직관을 통해 인지하려는 선호경향인지에 따라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눈다.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 관찰한 내용이나 사안을 더 잘 인지하며, 직관형은 감각보다는 덜 확실한 직관을 통해 의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어떤 사안이나 사실의 이면에 감추어진 관계성이나 의미를 더 잘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고와 감정에 관한 기준은 TF(Thinking-Feeling)척도로 의사결정을 판단할 경우 무슨 방법의 판단에 더 확신을 갖는가 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호경향을 갖고 있는 사고형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려는 선호경향을 갖고 있는 감정형으로 나눈다. 사고형은 인정에 끌리지 않는 태도로서 엄정한 사고를 통해 판단하려 한다. 감정형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판단과 인식의 기준은 JP(Judgement-Perception)척도이다. 외부세계에 대응해 나갈 때, 판단적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인지 인식적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따른 행동인지에 따라 판단형과 사고형으로 나눈다. 판단형은 대체로 우리 삶은 행동반경 있어 외향적 행동을 통한 사고나 감정을 주로 활용하여 판단을 주로 한다. 또한 인식형은 삶에 있어서 직관을 외향적 측면의 감각을 대체적으로 사용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4가지 척도에 기준한 16가지의 유형은 4개의 문자로 표시된다. 이론상으로는 선호하는 사이에는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각 유형마다 주 기능은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지배적 기능으로 활용하며 두 번째 기능은 보조적 역할로서 작용한다고 한다. 다음 <표 III-2>는 MBTI 16가지 유형의 주 기능과 보조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2> MBTI 16가지 유형의 기능 순위

ISTJ 1. 주 기능 S 2. 부 기능 T 3. 3차 기능 F 4. 열등 기능 N	ISFJ 1. 주 기능 S 2. 부 기능 F 3. 3차 기능 T 4. 열등 기능 N	INFJ 1. 주 기능 N 2. 부 기능 F 3. 3차 기능 T 4. 열등 기능 S	INTJ 1. 주 기능 N 2. 부 기능 T 3. 3차 기능 F 4. 열등 기능 S
ISTP 1. 주 기능 T 2. 부 기능 S 3. 3차 기능 N 4. 열등 기능 F	ISFP 1. 주 기능 F 2. 부 기능 S 3. 3차 기능 N 4. 열등 기능 T	INFP 1. 주 기능 F 2. 부 기능 N 3. 3차 기능 S 4. 열등 기능 T	INTP 1. 주 기능 T 2. 부 기능 N 3. 3차 기능 S 4. 열등 기능 F
ESTP 1. 주 기능 S 2. 부 기능 T 3. 3차 기능 F 4. 열등 기능 N	ESFP 1. 주 기능 S 2. 부 기능 F 3. 3차 기능 T 4. 열등 기능 N	ENFP 1. 주 기능 N 2. 부 기능 F 3. 3차 기능 T 4. 열등 기능 S	ENTP⁹⁹⁾ 1. 주 기능 N 2. 부 기능 T 3. 3차 기능 F 4. 열등 기능 S
ESTJ 1. 주 기능 T 2. 부 기능 S 3. 3차 기능 N 4. 열등 기능 F	ESFJ 1. 주 기능 F 2. 부 기능 S 3. 3차 기능 N 4. 열등 기능 T	ENFJ 1. 주 기능 F 2. 부 기능 N 3. 3차 기능 S 4. 열등 기능 T	ENTJ 1. 주 기능 T 2. 부 기능 N 3. 3차 기능 S 4. 열등 기능 F

* 출처: Isabel Briggs Myers, Mary H. McCauley,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 역(1987),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p.27.

MBTI에서의 기능의 순위는, 사주명리학에서 타고난 선천적 기질과, 그 성향의

99) 앞의 책, p.28, “ENTP형은 직관(N)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잘 발달시키며 삶에 있어서도 직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가장 전념한다. 그리고 직관(N)을 제어하기 위해 T(사고)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T(사고)는 직관(N)이 열렬히 추구하는 것까지 거부하지는 못한다. 이 유형은 외부세계에서 새로운 가능성(N)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한다.(직관형은 자기가 계획한 활동들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소홀한데 ENTP가 더 ENTP가 지나치게 많은 활동들은 벌일 때 T(사고)가 요구된다. 즉 ENTP는 자기 내부세계(I)로 들어가 각 활동을 추진 또는 포기함으로써 요구되는 댓가와 결과를 분석한 뒤에, 어떤 계획을 포기할지 논리적 판단(T)을 하게 된다. ENTP의 열등기능은 감각(S)이다. ENTP는 가능성(N)만을 추구하는 데에만 정열을 쏟다가 현실(S)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훈련해야 한다. 유형 이론에서는 ENTP의 경우 감각(S)과 감정(F)이 가장 서서히 발달된다고 한다. 직관을 통해 선택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서 감각(S)과 감정(F)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ENTP는 자기가 입안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실들을 알아야 하고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감각(S)이 나서서 작용함으로써 직관(N)을 도울 수 있다. 더구나 그가 추진하는 계획이 팀워크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F)이 나서서 직관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속성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추하는 ‘용신’ 이론과 비슷한 역할의 활용적 의미로 볼 수 있다. 각 유형에 대한 성격특성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MBTI 16가지 유형의 성격특성¹⁰⁰⁾

유형	특성
ISTJ	신중하고 집중력이 강함. 논리적, 체계적, 현실적임. 책임감이 강함.
ISTP	과묵하다. 분석력과 관찰력이 우수하다. 사람보다 도구 활용 선호 . 사안에 대해 계열화하기 선호 .
ESTP	현실적 문제해결에 능함. 관용적이며 적응력이 강하고, 보수적인 가치관 지님.
ESTJ	현실적임. 구체적 활동을 조직화 선호. 사안에 주도하길 좋아함.
ISFJ	성실함. 내밀한 부분까지 잘 처리함. 철저한 일처리.
ISFP	다정다감, 겸손함. 여유적 태도로 편안함 추구 .
ESFP	모든 일을 긍정적 태도 . 실체적 기억력. 사교적이다.
ESFJ	능동적인 구성원이며 칭찬을 좋아함. 이야기하기를 좋아함.
INFJ	최선의 노력형. 철저한 원리 원칙을 중시함.
INFP	열정적이다. 충실하다. 목표를 완수하기는 하나 다소 분주적 성향.
ENFP	상상력이 풍부하며 재능이 많음. 즉흥적인 면.
ENFJ	상대의 감정에 맞추려고 함. 리더쉽 강함. 사교성.
INTJ	주도적적이며 열정적. 추진력강함. 독립적. 확고부동함.
INTP	이론적 과학적 추구의 경향. 지적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 많음.
ENTP	각 방향에 재능 많음. 의욕적. 달변가임.
ENTJ	열정과 지도력 . 다양한 정보에 밝다. 지적 욕구 많음.

* 출처: 0Isabel Briggs Myers, 0Mary H. McCaulley, 김정택 · 심혜숙0 · 제석봉 역 (1987),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pp.29~31.

MBTI 16가지 유형은 고유의 성향을 갖고 있다. 각 선호도별로 직업에 관한 제안은 <표 III-4>와 같다.

100) 앞의 책, pp.29~31.

<표 III-4> MBTI 16가지 유형의 따른 직업에 대한 기대

유형	직업에 대한 기대
외향형	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함, 외부 활동하는 것을 선호함.
내향형	주변의 조용함 선호한다. 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함.
감각형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정밀한 일을 좋아함.
직관형	어떤 문제에 대한 도전에 흥미. 문제 해결하는 일을 선호함.
사고형	논리적이고 다소 이상적이며, 사상, 물리적 대상 등에 관심.
감정형	이타심. 봉사하고 배려심 강함. 스스로 작업환경에 맞는 일을 원함.
판단형	순서적이며 체계적인 일을 선호함.
인식형	상황에 따른 변화 적응, 어떤 상황이던 이해하고자 하는 처신함.

* 출처: OIsabel Briggs OMyers, OMary H. OMcCaulley, 김정택 · 0심혜숙 · 제석봉 역 (1987),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pp.29~31.

유형이론에서는 선천적인 유형선호도가 환경보다는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한다. 마이어스는 1950년 초에 45개교의 의대생 5,355명을 12년 동안 종단 연구한 결과, 신입생 시절에 측정한 유형선호도와 전공분야가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⁰¹⁾ 이는 유형이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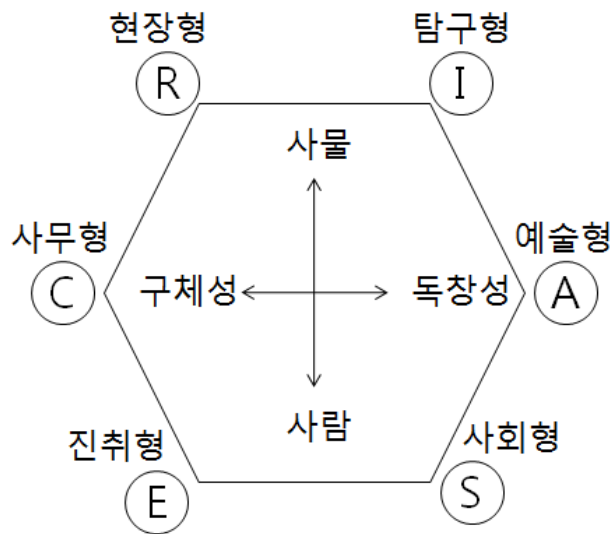
(2) 직업흥미유형

Holland 직업흥미유형은 4가지의 과정¹⁰²⁾에 기준하여 각종 직업에 해당되는

101) 위의 책, pp.133~134.

102) 김정택 외, 『STRONG 진로검사 매뉴얼』, (어세스타, 2013), pp.9~10, “가정 1.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진취형(Enterprising), 사무형(Conventional) 등 여섯 가지의 흥미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 2.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도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사람들의 직업흥미유형 및 서로 다른 직업 환경에 따른, 환경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개인들의 흥미유형은 환경이나 문화 등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에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각자 다른 형태를 보인다. 개인의 태도에 따른 각 유형의 전형적인 태도를 비교분석 하여 그 개인에게 가장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전형적 특징이 그 개인의 흥미유형이 된다. <그림 III-2>은 Holland 직업흥미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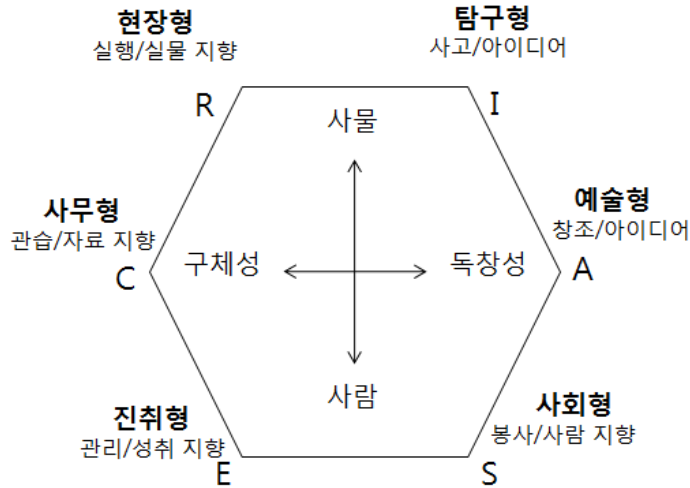


<그림 III-2> Holland 직업흥미유형.

유사한 직업흥미유형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직업 환경조건에서는 그들만의 흥미가 반영되는 직업조건에 맞는 환경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직업조건에 맞는 환경도 설명한 바와 같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Holland는 4가지 가설에 의한 흥미유형과 직업유형을 각 여섯 부류로 나눴다. Holland 여섯 가지 직업흥미유형을 특징¹⁰³⁾에 따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수 있다. 각각의 환경은 그에 상응하는 흥미유형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며, 또한 특유의 문제와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상황을 구성한다. 가정 3.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알맞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가정 4. 개인의 행동은 흥미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103) 김정택 외, 『STRONG 진로검사 매뉴얼』 (어세스타, 2013), pp.39~40,



<그림 III-3> Holland 직업흥미유형 특징.¹⁰⁴⁾

직업흥미유형의 여섯 가지 배치는 첫 글자를 따서 ‘RIASEC’ 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Holland의 육각모형에 보면, 근접한 위치의 유형끼리는 유사한 점이 많고, 거리가 먼 유형끼리는 닮은 점이 대체적 없다. 예를 들면 I-A-S는 성격적 특성과 흥미, 직무선호 등에서 아주 관련성이 높다. 대각선 위치에 있는 유형끼리는 직무기능이나 성격적 특징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도형에서 보듯이 현장형이나 탐구형은 사람보다 어떤 사물에 더 관심이 많다. 반면에 사회형이나 진취형은 사람에게 중점적 관심이 많다. 예술형은 사무형에 비해 더 창조적이며 독창적이다. 반면에 사무형은 예술형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며 근거지향적이라고 이다. 도형에서 한 칸 건너뛴 R-A는 일반적으로 안정된 직업선호 경향이나 경력에 자신의 직업목표와 성취가 분명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2. 사주명리상담의 체계

동, 서의 세계의 인류는 누구나 인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구체적 실상은 서로 다르다 그것은 바로 문화코드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에 의존하게 된다. 문화적

104) 김정택 외, 『STRONG 진로검사 매뉴얼』 (어세스타, 2013), p.11.

무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¹⁰⁵⁾

크게 보아 동·서양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동·서양은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바탕으로 문화를 형성 해왔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순환론적 세계관 전일적 자연관 속에서 사물들을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종합적 사고를 하며 회귀와 중용을 추구하고 사건들 간의 관련성을 잘 파악하고 뚜렷하게 모순된 듯한 양방의 이론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서구인들은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사람의 내부적인 특성만을 강조하며 사물의 속성자체에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그 속성에 기반 하여 규칙화하고 그 범위를 통해 해당된 규칙을 만들고 그 사물의 행동을 논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속에서 자연의 본질에 대한 분석적 탐구 범주화 과정을 거치며 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또 서구인들은 논쟁을 중시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형식논리를 자주 사용하며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직선적·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 아니면 저것’의 양분화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집착한다.¹⁰⁶⁾ 이러한 내용의 기반에서 끊임없이 동, 서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이해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에 따른 대표적인 심리검사로는 동양은 사주명리학이 있고 서구에서는 MBTI, 애니어그램 등이 있다.

동양적 사유방식 즉 음양오행론을 근간으로 한 순환론적 가치관 및 전일적 자연관과의 관련성과 집단무의식의 공동체 사유 등이 집약되어 내려온 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주명리학적 문화라 할 수 있다. 명리학의 유래는 우리문화의 무의식속에 인식된 코드에 집단무의식으로 형성하고 있는 주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인식체계의 잠재적 근간을 이루어 온 것이다.

사주문화의 바탕이 되는 사주명리학은 우주동정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의 타고난 품성과 운세의 길흉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사주명리학에 대한 정의는 사주명리학이 운세의 길흉보다 성격을 더 우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주의 궁극적 의의는 개인의 미래 예측이나 길흉화복보다 그 사람의 인성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것에 있는 것이다.¹⁰⁷⁾

『중용(中庸)』에서는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라는 구절

105) Clotaire Rapaille 저, 김상철·김정수 번역, 『컬처 코드』(리더스북, 2007), p.49.

106) Nisbett, Richard E. 저, 최인철 번역, 『생각의 지도』(김영사, 2004), p.186.

107) 정국용, 「性格特性의 豫測을 위한 四柱命理學에 관한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pp.7-8.

이 있다.²⁴⁾ 성과 명은 같은 말이다. 유가(儒家)에서는 천명을 인간에 내재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한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명, 즉 성은 당연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쉬지 않고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천지자연의 마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은 천지자연의 마음과 같으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받게 되는 천지의 기운은 다르며 그것을 60갑자로 표현하고 있는 사주명식은 개체 자아의 구조를 의미 있는 언어(五行)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주 그 자체가 운명이라 하기 보다는 운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구조적 접근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명(性命)이 공간성 마음과 신체를 갖는다면 운명(運命)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성명(性命)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소우주 자체적으로 타고난 시간인 10년 단위의 대운과 우주의 1년 주기성 시간인 세운의 영향을 받아 언제 어떠한 실상을 보일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주명리학은 융이 말하는 ‘완전한 성격이론의 요건’인 구조적 역학적 발달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주명리학은 천지자연의 운행원리인 음양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를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를 빌어서 출생정보에 의한 사주를 통해 사람의 대소사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문으로 천지자연과 사람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천인합일사상 즉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사주명리나 점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청년기가 진학 취업 혼인 등,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여서 다른 세대에 비해 심리적 갈등이 많은 시기인데다 사주와 점복은 미신이라고 교육받았던 기성세대와 달리 사주와 점복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 없이 하나의 엄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개인 취향의 하나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사주명리학의 성격론, 즉 명리를 통해 인성교육의 취지에서 인지하게 하여 자신의 행동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자기이해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왜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인지하게 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로탐색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타고난 에너지를 말할 때는 사람의 명코드(命 code)적 접근이 가능하고, 성향적 판단을 할 때는 잠재된 의식·무의식코드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사주와의 접촉노력을 통해 내담자들의 자기이해를 증진시키고 운명은 어려울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온다는 원리이해를 통해 역경을 당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격심리 분석

사주명리학에서 보이는 인간의 가치관 및 성정에 대한 이론으로 주로 사주팔자의 일간과 월지를 중심으로 논해진다. 사주팔자에서 ‘4주’란 한사람이 출생한 연주(태세), 태어난 월(월주), 태어난 일(일주), 태어난 시간(시주)을 각각 간지로 치환한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간지’¹⁰⁸⁾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조선시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명리학의 기본적 이론에서 ‘4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하여 3간 4지의 명식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이론의 기반으로 종족 계통적 관계를 적용하여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즉 연간지는 조상을, 월간지는 부모를, 일간은 본인을 일지는 배우자를 시간지는 자손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일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¹⁰⁹⁾ 일간은 사주에서 주체자로서, 곧 주인으로 명주(命主)라고도 표기한다. 사주 구성상태가 명주의 정신기(精神氣)¹¹⁰⁾의 상태가 건왕함을 기뻐한다. 이유는 정신기 삼자가 충족하면 자연히 사주가 중화되기 때문이다.

일간과 함께 ‘4주’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월지(月支)이다. 월지는 명주가 탄생하여 생을 마칠 때까지의 사령처(司令處) 또는 통치사령부(統治司令部)가 되는 것으로, 즉 사회활동 무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간이 개인적인 길·흉·화·복에 관계된다면, 월지는 사회적인 지위·귀천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¹¹⁾

다음 내용을 통해서도 사주팔자 중 일간과 월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08)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일컫는 말이다. 천간(天干)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申壬癸) 10개이며 십간(十干), 또는 십천간(十天干)이라고도 한다.

109) 구중회 앞의 책, pp.32~135, 일간 위주론은 서자평의 저서에 처음 출현하는데 서대승자평의 『자평연원』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연해자평』 ‘육친총론’에 등장한다. 육친은 부모 조상 형제 아내 자손을 말한다.

110) 精이란 일간을 생하는 편인, 정인을 말하고, 神이란 일간을 극하는 재관을 말한다. 氣는 일간과 동기인 비견 또는 겁재를 말한다.

111) 정대봉, 「명리학에서 월지 중심의 간명법과 격국 운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pp.60~61.

『연해자평평주(淵海子平評註)』 「계선(繼善)」편에서는 “사람의 귀하고 함을 알려면 먼저 月令인 제강(提綱)을 보아야 한다. 사주의 月令은 命의 중심이 되어 이끄는 ‘宮’¹¹²⁾이라 하였고, 註에서도, “月令은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한 나라의 강기(綱紀)를 장악하는 것이므로 삶과 죽음이 이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제강(提綱)이라고 한다.”¹¹³⁾고 기술하고 있다.

『적천수천미(適天髓闡微)』 「月令」을 살펴보면, “月令은 제강(提綱)의 본부이다. 비유한다면 집이라고 할 수 있다. 月令에 당령한 神은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므로 점치지 않으면 불가하다”¹¹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철초(任鐵樵)는 『적천수징의(適天髓徵義)』 「月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月令은 命 중에서 중요한 곳이다. 기상(氣象)이든, 격국(格局)이든, 용신(用神)이든, 모두 제강(提綱)의 사령에 속해 있다. 천간(天干)에 투간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1) 음양오행의 심리 특성

사주명리학에서 성정 및 성향에 대한 논의는 남송(南宋)시대의 인물인 서승(徐升)이 저술한 『연해(淵海)』를 통한 명대(明代)에 편찬된 『연해자평(淵海子平)』 중의 성정(性情)에 관한 이론을 삼권에서 다루고 있다.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는 “성정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이 발한 바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퍼는 바이고,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혈기로 육체가 이루어졌으니,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가 두루 미쳐서 관계한다.”고 밝히고 있다.¹¹⁵⁾ 이러한 성정에 대한 개념은 주자와 정자가 말한 바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주자에 비해서 인간의 성정을 더 세분화했으며, 오행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를 첨가함으로써 인간의 성정을 이해함에 독자적인 영

112)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繼善」註 : “月令者, 如人臣行君之令, 掌一國之綱紀, 生殺

113)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繼善」註 : “月令者, 如人臣行君之令, 掌一國之綱紀, 生殺皆由之, 故曰提綱.”

114) 任鐵樵 增注, 袁樹珊 撰輯, 『適天髓闡微』 「月令」: “月令乃提綱之府, 譬之宅也, 人元爲用 事之神, 宅之定向也, 不可以不卜.”

115) (宋)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p.163. “性情者, 乃喜怒哀樂愛惡欲之所發, 仁義禮智信之所布, 父精母血而成形, 皆金木水火土之關係也.”

역으로서 발전, 승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 인(仁)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있다. 어질고 착한 소년처럼 따스한 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강인한 생명을 지니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화의 기운은 예(禮)를 주재하고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있다. 사람을 공경하고 위의(威儀)가 있다.¹¹⁶⁾ 토의 기운 신(信)을 주도하다. 진실하고 성실(成實)한 마음이 있다. 감정이 두터우며 지극히 성실하다. 행동과 말을 서로 주의 하고 신불(神佛)을 좋아하고 공경한다.¹¹⁷⁾ 금의 기운은 의(義)를 주재하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있다. 의를 내세워 재물을 분배하는 마음이 크다.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용감한 호걸이다. 또한 중용을 지킨다.¹¹⁸⁾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지(智)를 주재하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있다. 마음은 깊고도 깊다.¹¹⁹⁾ 성정에 대한 논의는 오행기운의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에 따라서 사람의 성정을 나누기에 이른다.

목의 기운이 태과하면 성격이 편향(偏向)하다. 반면 부족하면 선한 마음이 부족하다. 또한 투기하는 마음이 생긴다.¹²⁰⁾ 화의 기운이 태과하면 성품이 급하고 하고 과격하다. 불급(不及)하면 질투가 심하다. 나태하고 게으르다. 토가 태과(太過)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잔정이 없고 까다로움이 심하다. 또한 일간(日干)이 약(弱)하면 움츠러들어 수치스러움을 두려워한다. 일간(日干)이 강(強)하면 엉뚱하고 융통성 없는 주장하고 자만하고 오만하다.¹²¹⁾

금의 기운이 태과(太過)하면 어진 마음이 없다. 시비를 좋아하고 무리한 욕심스럽다. 불급(不及)하면 공상이 많고 결단성이 불투명하고 인색하고 일에 대해서 실천함에 변덕스럽다.¹²²⁾

수의 기운이 태과(太過)하면 교묘(巧妙)함이 있고 경박(輕薄)하며 단정하지 못하다. 최선을 다하지 태도로 실패가 잦다. 모사와 악을 좋아한다. 불급(不及)하면 담이 적다. 협동하는 마음이 적다. 사람이 왜소하다.¹²³⁾

116) 위의 책, p.164. “主禮，辭讓之心，恭敬威儀.”

117) 위의 책, p.164.

118) 위의 책, p.164. “主義，羞惡之心，仗義疏財，敢勇豪傑，知廉恥，主人中庸.”

119) 위의 책, p.164.

120) 앞의 책, p.164. “太過則折，執物性偏，不及少仁，心生妒意.”

121) 앞의 책, p. 165. “太過則孤介硬吝，不得衆情，沉毒狠戾，失信顛倒，且如日干弱，則退縮怕羞，日干強，則妄誕，執一自傲，以上自以輕重言之，萬無一失.”

122) 위의 책, p.164.

명리학이론에서는 인간의 성정과악을 음양오행의 태과(太過)와 불급(不及)에 의해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개인특유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담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효율적인 의의가 있다.¹²⁴⁾

(2) 십성의 심리특성

명리학 연구에서 심리를 분석 하고 성격을 분류할 때 일간의 성정론과 아울러 바로 이러한 십성론이 바탕이 된다. 명리(命理) 십성(十星)은 통변성(通變星)이라고도 하는데 통변(通變)¹²⁵⁾은 오행의 상생상극 등에 의하여 명식을 분석하는 원칙으로 사주팔자를 통변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사주명리학은 한마디로 기에 의한 작용이다. 오행이 자연의 기의 현상이라면 사주를 구성하는 십성의 작용 또한 기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 속에 있는 십성은 기의 강약과 흐름에 따라 보이지 않게 변화하고 상호연관을 가지므로 성격과 아울러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²⁶⁾ 또한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즉, 나와 주변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사회성에서 나타나는 심리관계로 볼 수 있다.¹²⁷⁾

<표 III-5> 십성의 심리와 전문능력

십성	십성의 기질과 성향	십성의 심리구조		기능
		긍정적 심리	부정적 심리	
비견	독립적인 동질의성향등	주체심리, 자기효능감 우수등	자기이기적심리 등	자립성, 적극성, 책임감, , 실천력, 추진력등
겁재	독단적 성향, 등	주도적 지배심리등	배타적 우월심리	

123) 위의 책, p. 164.

124) 이석영, 『사주첩경(四柱捷徑)』 (2002)

125) 『周易』「繫辭下傳」 “窮하면 通하고 通하면 變한다” 는 동양사유의 핵심적 의의를 말하는 만물의 변화에 대한 이치를 줄여 표현한 것. 명리학의 구조에 따라 풀이하는 것을 통변으로 칭한다.

126) 이중재, 앞의 책, p.684.

127) 정하룡, 「명리학의 성격유형분류연구-MBTI유형별 사주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p.37.

식신	희생적, 현실적 이타적, 창조적 성향등	창의적 연구심리등	자기 주관적 도취심리	친화력, 몰입력, 응용력, 표현력, 설득력, 어휘력, 등
상관	표현과 정신적 성향등	감각적 친화심리등	파격적, 이기적, 이탈심리	
정재	노력과 보수적, 이재 성향등	세부적 수리 분석심리등	소극적 회의심리등	활동성, 수리력, 현실성, 실용성, 조직력, 분석력등
편재	탐재와 유동적 성향등	획득적 유용심리등	탐욕적 소유심리등	
정관	규범과 모범적 보수성향	조직적 도덕심리, 등	자학적 수축심리	조직력, 분별력, 관리력, 통제력, 인내력, 도덕성등
편관	결단과 행동적, 상하분별, 성향	관리적, 지도적, 명예심리	공격적 경쟁심리등	
정인	명예와 자존적, 의무적 성향	학문적 탐구심리	폐단적 극단심리	기억력, 기본충실 분석력, 기획력, 창조력, 수집력, 논리성
편인	재치와 추구적 성향	직관적 자율심리	냉소적 가학심리	

* 출처: 김기승, 『명리학 정론』 pp. 140~168.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서울: 창해, 2004, 2006), p. 377. 연구자 재정리.

성격심리 분석을 통한 심리특성에 대한 활용은 복지상담 현장에서나 명리상담에서 가장 먼저 상담에 임하는 순서에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성향 및 성격 파악을 시작으로,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도출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 대한 정보를 논의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심성에 대한 내용이다.

(3) 일간의 강약에 따른 성정

명리상담에서의 명식을 논할 때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일간의 신강, 신약의 구별이라 할 수 있다. 신강 신약이 명료하게 구분되어야만 명식의 주인공인 일간에게 필요한 사주명리학의 핵심 요체인 용신이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고 대운과 세운을 대입하여 시기의 긍정과 부정적인 상황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사주

명식에서 일간의 중심으로 타 오행으로부터 득령, 득지, 득세의 기운을 얻게 되면 태강한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런 구조를 이루면 최강으로 분류하고 성향으로 는 자기도취에 잘 빠지고 만용, 의심, 이탈 행동 등의 기질이 있다.

時 日 月 年
 壬 丙 丙 丁
 寅 午 午 巳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위 구조는 丙火 일간이 득령 득지 득세로 모두 일간을 돕고 있고 시간에 임수가 있으나 년간 정화와 정임합화(丁壬合火)하여 木이 되어 火오행을 거역할 수 없게 되므로 종왕격으로 최강의 명식이 된다. 이 경우에는 木, 火, 土 운(대운과 세운)은 긍정적 상황을 맞게 되고, 火를 거스르는 金, 水 운(대운과 세운)은 부정적인 상황을 맞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식의 구조가 신강구조를 이룰 경우 성향은 자기 주체가 강하고 고집이 있으며 판단력과 인내력이 우수하다. 그 외 지구력, 책임감, 자신감, 통솔력, 타개력, 개척자의 정신 등이 주요 속성에 속한다. 반면에 최신약의 구조는 일간을 중심으로 실령, 실지, 실세로서 일간이 의지할 데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명식에서 왕한 오행의 기운을 따라 종(從)하는 것을 말한다.

時 日 月 年
 辛 丁 癸 癸
 丑 酉 亥 丑

己 戊 丁 丙 乙 甲
 巳 辰 卯 寅 丑 子

위 명식은 丁火 일간(日干)이 실령, 실지, 실세하여 일간이 의지할 곳이 전무하다. 명식 내 최강한 水 관성에 따르는 종살격(從殺格)이다. 水, 金 운(대운과 세운)은 긍정의 상황을 맞게 되고 土, 木, 火운(대운과 세운)에는 부정적인 상황

을 맞는다. 신약의 성격은 지구력이 약하고 인내와 결단력이 부족하며 의지력이 과하고 매사가 용두사미격으로 일의 마무리가 미흡하다. 남의 말에 변화를 잘한다. 득령, 득지, 득세 중 일부만을 얻게 되어서 신약구조의 명식으로 분류된 구조의 성향은 인내력이 없고 타인의 주장에 수시로 흔들리며 기(氣)가 약하여 정신력과 체질이 허약하다. 무슨 일이든지 경솔하게 말만 앞서고 실천이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강이면 좋고 신약이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명식의 분류를 통해 용신을 설정 하는데 절대 필요한 이론적 공식이라 생각하면 타당할 것 같다.

2) 진로직업적성 분석

(1) 십성의 직업적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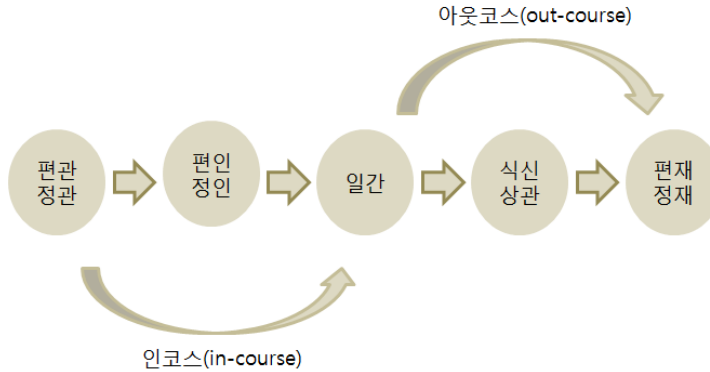
십성은 독자적인 기질과 작용에 따른 직업적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가진다. 특히 사주명식 내에서 튼튼한 격국이 형성되거나 용신으로 작용할 때 직업적성과 호환관계를 이루게 된다. 사주 전체의 구조에서 음양오행의 편중과 함께 연계되어 지는 십성의 특질이 직업적성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 복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사주의 격과 희신의 역할일지라도 일간이 요구하는 관계에 있는가를 주목하여야 한다.¹²⁸⁾

십성의 상호관계 중 일간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코스로 인(in-course)코스와 일간을 중심으로 배출하는 코스로 아웃(out-course)코스를 형성하는 도형적으로 직업의 선명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명식의 일간이 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즉 천간의 시사성은 일간이 원하는 의도로 사회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지지는 일간이 내면적이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의미한 것이다.

직업적성의 이론으로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론은 격국과 용신을 통하여 거기서 표출된 경쟁력이 강한 오행을 선정 하여 오행과 십성의 기질 과 특성을 참조 한다.

<그림 III-4>는 코스에 의한 직업체질이 조합된 구조이다.

128) 김기승,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서울: 창해, 2006), p. 291



<그림 III-4>인코스과 아웃코스의 모형.129)

(2) 격국 · 용신과 직업

이 연구에서는 복지상담에서 활용하기위한 직업 방향성에 대해 사주명리학에서의 타고난 직업성향을 활용하는 격국(格局)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명리이론에서의 격국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직업적 기질을 통한 적성과 사회적 성공여부에 대한 정도를 예측한다. 그런 면에서 지능과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사주의 대체적인 성공 유무는 용신과 관계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은 사주의 천간의 오행과 대운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직업적성의 활용성도 사주의 환경에서 나타난다. 아래 <표 III-6>은 격에 의한 직업의식의 분류표이다.

<표 III-6> 격과 십성의 직업의식

사주구조	직업의식
인성강, 인성격	의식주 생활을 의한 수단으로 갖는 의식
비겁강, 비겁격	자존감 및 자아실현의 의식
식상강, 식상격	사람관계의 활용의식
재성강, 재성격	자신의 능력의식
관성강, 관성격	사회적 명예와 지위 확보의식

129) 출처: 김기승, 『선천적성상담검사 상담매뉴얼』 (서울: 선천적성평가원, 2008), 연구자 재구성.

인-비-식	수행과정형 중심을 통한 여가 지향적 의식
재-생-관	성과 중심의 일 지향적 의식

* 출처: 김기승, 『명리직업상담론』, p. 60. 연구자 재정리.

십성은 각각의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격(格)을 통한 직업적성은 1차적으로 표출 된다. 그리고 표출된 격에 따라 직업구조가 형성되는 동시에 격을 보조 하는 희신(喜神)의 역량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이 달라진다.

격국과 용신법은 개인의 가치관과 성패 유무를 나타내며 직업적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명식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음양오행의 과중과 함께 십성의 특질이 직업성향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십성의 직업적성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십성에 따른 직업적성

십성	직업적성
비견	프리랜서, 의사, 미용업, 언론사, 기자, 조경, 물류유통, 사진, 변호사, 출장소, 건축, 스포츠, 납품업, 주유소 등
겁재	기술, 스포츠, 구매업, 창고관리직, 경호원, 경비원, 보석세공, 투기업, 기자, 요리사, 운수업, 조각가 등
식신	교사, 의사, 생산, 예능, 종교, 보육사, 연구원, 유치원, 제조업, 음식점, 호텔, 사회복지사, 서비스업, 농산업, 식료품업, 도매업 등
상관	예체능, 과학자, 디자이너, 발명가, 대변인, 강사, 종교인, 아나운서, 코디네이터, 유통업, 제조업, 변호사, 가수, 역술가, 문필가, 수리업, 외판업 등
편재	무역, 부동산, 증권, 투자, 사업, 금융업, 전당포, 음식점, 유흥업, 약물업, 생산업, 경영, 축산업, 여행사 등
정재	금융업, 상업, 경리, 세무사, 회계사, 생산제조업, 부동산, 관리, 운수업, 학원, 건축업, 무역, 도매업, 신용사업 등
편관	군인, 경찰, 경호원, 교도관, 군무원, 형무관, 경비원, 별정직, 정치가, 기술직, 하사관, 장성, 종교지도자 등
정관	학자, 행정관, 사법관, 군인, 경찰, 공무원, 통계업, 비서, 총무, 위탁관리, 회사원, 지배인, 관공계통, 의류제조업 등
편인	여행사, 소개업, 종교가, 디자인, 골동품, 보석, 오락, 역술, 부동산, 인테리어, 출판업, 예능, 언론인, 인쇄업, 요리업, 미용, 배우

	등
정인	교육, 번역, 학원, 문화예술, 언론, 종교, 출판, 컴퓨터 직종, 방송 작가, 일반예술, 행정, 저술, 응용미술, 창작적 업무 등

* 출처: 김기승, 『앞의 책』(서울: 창해, 2006), p. 291, 연구자 재정리.

이와 같은 내용의 지능들의 조합으로 발현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직업유형을 비교하여 정리 하면, 직업유형은 일간을 중심으로 인코스와 아웃코스로 분류된다. 기준이 되는 일간 오행의 중심으로 오행의 인풋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발현되는 관성이 인성을 상생하는 인코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면적인 포용하는 심리의 코스이다.

일간을 중심으로 아웃되는 방향으로 성향이 발현되는 식상과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아웃코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면적인 표출심리가 되는 코스이다. 즉 일간을 중심으로 기운이 유입되는 방향인 편관과 정관과 편인과 정인으로 구성되는 관인상생의 구조는 인코스라 한다. 일간을 중심으로 기운이 배출되는 방향의 식신과 상관과 편재와 정재로 구성되는 식상생재의 구조는 아웃코스라 하게 되며, 인코스와 아웃코스에 분류되지 않거나 또는 혼재된 구조는 코스를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코스 분류를 통하여 명리직업상담의 직업적성 유형이 분류된다.

(3) 십성의 직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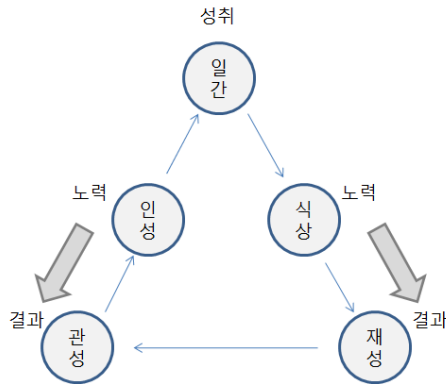
개인의 직업목표는 일반적으로 격국(格局)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기본이다. 그 다음이 격(格)과 함께 이루는 유형이며 최종적으로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하여 격과 유형에 중심축으로 구성 되는 십성(十星)의 상관관계로 분석된다.

직업 목표란 일간이 이루고 싶은 마음과 가장 잘 적응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선천적성이기도 하다.¹³⁰⁾ 그러나 직업목표에 대한 실현 결과는 개개인의 특성적인 사주구성과 함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없다. 명리직업상담의 목적은 이처럼 경쟁력 있는 자신의 적성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일간을 중심으로 각 십성은 서로 노력을 통해 결과를 가진다. 명식의 구조에서 식상의 역할의 노력은 재성을 통한 결과를 나타낸다. 식상의 활동이 없는 재성은 식상의 특성인 연구나 활동의 노력 없이 재물 또는 결과만을 얻으려는 심리 작용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재성 없는 식상은 노력을 하여도 결과를 담을 그

130) 김기승, 『명리직업상담론』(서울: 창해, 2009).

뜻이 없는 심리가 내재되는 이치이다. 또한 인성의 노력은 관성을 통해 결과로 나타난다. 인성 없는 관성은 인성 특성에 해당되는 지식축적 또는 자격증 취득 과정 등에 해당되는 노력이 없이 명예나 지위와 같은 결과만 얻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이치이다.



<그림Ⅲ-5> 노력지향과 결과지향의 십성.

<표 Ⅲ-8> 사주구조에 따른 직업목적과 활동유형

구 분	직업목적과 활동유형
인성 ↔ 식상	노력(공부)해서 활용하는 노력의 전문성이 직업목적
	과정 중시형
관성 → 인성	노력(공부)해서 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업목적
	과정과 결과 중시형
식상 → 재성	노력(연구)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이익창출이 직업목적
	과정과 결과 중시형
관성 ⇄ 재성	주어진 환경들을 활용한 이익과 권력창출이 직업목적
	결과 중시형(과정보다 결과가 중요)

각각의 십성이 갖고 있는 특성의 활용 방안의 이해하는 학습은 결과 중시형이 기본이 된다. 또한 대운이나 세운에서 새롭게 십성이 개입되게 되면 새로운 직업 목적을 가진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직업목표를 만들고 기존의 직업에 변화를 가지게 된다. 명식의 유형이나 대운과 세운의 변화에 따른 식상생재와 관인상생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도 직업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즉 변화에 따른 유형의 구

조로 인비식과 재생관 구조 역시 직업목표의 방향성을 새로이 갖게 된다.

(2) 사주명식의 유형별 심리 속성

태어난 출생정보를 천간지지로 치환을 통해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상모이론에 의한 사주명식을 갖추어 일간의 심리적 요인 및 혈연 관계를 살펴며 일간의 성격과 행동적 특징을 나타내는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명식의 유형을 분류한다.

사주유형을 구분하는 하는 데에 분류가 어려운 명식의 몇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천간에서 뚜렷한 상생 상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지지의 십성도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 해당 십성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 다른 경우의 예를 보면 월지 관성 월에 태어난 경우이다. 천간에 식상과 관성이 투간하였을 때, 이럴 경우에 관인상생을 먼저 선정하였다. 물론 식상과 관성의 월지 환경을 참조하였다.

명식의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되는 관점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난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려는 속성이 있을 것이다. 생존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환경의 적응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생존의 수단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관성월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관이라 불리는 편관과 정관의 통제하고 구속하려는 특성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이 요구하는 적절성의 자질을 기르려고 할 것이다. 개인의 자질을 기르는 것에 해당하는 십성의 특성을 가진 것은 인성이다. 관성과 인성이 상생하는 적응방식은 자연스러운 최선의 관계가 될 것이다. 사주명식에 있는 관인상생의 특성이 주요하게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고,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① 관인상생(官印相生)유형

명식의 일간이 살아가면서 노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취하려는 외적인 조건인 관성과 노력하고 준비하며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내적 성향인 인성과의 조우이다. 관성은 인성에 대해 상생하며, 인성의 갖춰진 환경적 조건에 합당하므로 관성의 생을 받는다. 일반적인 관인상생의 성향의 특성은 관성의 사회적 활동인 환경에 동조하고자 하는 인성의 수용력의 의미에 의한 일간의 성향으로는 수용적이

다. 다만 통제적 속성을 가진 관성의 역할과 수용적 인성의 속성상, 다소 자기주장이나 표현에 적극적이지 않다. 즉 외부로 부터 유입되는 기운을 잘 받아들이고 이를 자기화하는 수용적인 특성이 장점이다.

<관인상생 유형의 예>

<乾命> 庚 丁 癸 癸
戊 巳 亥 卯

丙 丁 戊 己 庚 辛 壬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丁火 일간이 연간과 월간에 癸水가 투간되어 편관이 강하고 연지와 월지의 亥卯가 반합하여 인성도 매우 강한 관인상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사주명식의 주인은 직장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 안에서 처세를 매우 잘 하여 누구보다 진급이 빠르고 사내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② 식상생재(食傷生財)유형

재성은 노력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재물, 결과, 소유물 등에 해당하는 심성이다. 활동역량인 재성을 얻는 방법은 일간의 고유한 활동에 의한 식상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일간은 재성이라는 결과를 갖기 위해 식상이라는 활동을 통하는 것이다. 또한 식상은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왕성하고 재성의 공간 장악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에 적극적이다. 그러한 식상생재의 유형은 자기 개방이 남다른 특성의 소유자이다. 또한 식상생재 유형은 개방성이 강한 유형에 해당한다.

<식상생재 유형의 예>

<乾命> 癸 戊 庚 丁
丑 申 戌 未

癸 甲 乙 丙 丁 戊 己
辰 巳 午 未 申 酉 戌

戊土 일간이 庚金이라는 식신이 일지 申金에 뿌리를 두었으며, 癸水라는 정재가 지지의 丑申에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는 식신생재의 구조이다. 위 명식의 주인은 丑戌未라는 일간의 뿌리가 강하여 식신생재의 구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일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량 있는 홍보기획회사의 대표이다.

③ 식상견관(食傷見官)유형의 예

자기 개방적인 특성인 식상의 성향에 식상견관 의 관성과 상극하는 유형으로 개방적 성향과 수용적이고 통제적성향의 갈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식상과 관성의 강약을 통해서 명식의 상호작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식상견관의 경우는 언어적 자기 개방성에 대해 이를 식상의 저항적인 행동양식이라 말하기도 한다. 일간이 관성에 적응하려는 보수적 성향도 역시 일간의 특성이 될 것이다. 특히 통제적이라 지각되는 환경에서 일간의 특성은 빠른 두뇌 회전으로 현실에 대응 하는 순발력이 남다른 특성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될 것이다. 수용적 태도보다는 상당한 자기주장과 일관된 행동의 소유자의 유형이다.

<식상견관 유형의 예>

<乾命> 辛 戊 乙 乙
酉 辰 酉 卯

戊 己 庚 辛 壬 癸 甲
寅 卯 辰 巳 午 未 申

戊土 일간의 명식의 주인은 辰酉가 합하여 金 기운을 띄고 있고 천간에 辛金이 투간되어 상관이 힘이 있다. 연간과 월간에 乙木이 투간되어 정관이며 상관과 정관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구조이다.

④ 재극인(財剋印)유형의 예

<재극인유형의 예>

<坤命> 辛 壬 丙 丁
丑 申 午 未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壬水 일간이 丑申에 뿌리를 둔 辛금이 투간되어 인성을 이루었고 午未에 뿌리를 두고 丙丁이라는 재성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투간되어 강한 재성을 이루어 재극인의 구조가 되었다.

⑤인아식(印我食), 인비식 명식유형

<인비식 유형의 예>

<坤命> 壬 庚 己 乙
午 寅 丑 巳

丙 乙 甲 癸 壬 辛 庚
申 未 午 巳 辰 卯 寅

庚金 일간이 丑土에서 己土가 투간되어 정인이 되었고, 丑土에 뿌리를 둔 壬水가 투간되어 식신이 되었다. 일간의 양쪽에 정인과 식신이 위치하여 인비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⑥재생관(財生官)명식의 유형

<재생관유형의 예>

<坤命> 甲 甲 辛 辛
子 寅 丑 丑

戊 丁 丙 乙 甲 癸 壬
申 未 午 巳 辰 卯 寅

甲木 일간에 연지와 월지에 丑土가 정재이며 丑土에 뿌리를 둔 辛금이 연간과

월간에 투간되어 정관이 되었다.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있는 재생관구조가 뚜렷하며 寅木에 뿌리를 두고 시간의 비견을 두고 있는 명식의 주인은 비겁도 왕하여 강한 재성과 관성을 능히 거느릴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다.

앞에서 거론한 유형분류를 세분화하듯이 명식의 음양과 오행에 따라서 더 많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 유형들도 십성의 분류에 의한 음양오행속성을 포함된 기질과 성향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명식의 구조적 심리를 파악하여 복지 상담에 필요한 성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큰 틀의 분류를 하였다.

3) 생애주기의 시기와 때의 선택

오늘날 사주명리학은 긍정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학의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여 학문적인 평가 작업과 함께 학문적 체계를 세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¹³¹⁾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제도권 내에서 사주명리학이 현실적으로 연구 되고 있으며 학사문헌고증 이론의 타당도 검증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주명리학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법을 개발하고 성격·직업·적성검사와 같은 다양한 과학적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사주명리학은 한 사람의 출생年月日時를 통하여 성격 및 흥미, 적성, 진로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나아가 시기의 길흉(吉凶)과 부귀(富貴)의 경중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삶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나침반을 제공한다. 특히 사주명리는 자아의 성찰, 개인의 문제에 대한 능력과 성향의 자각, 개인의 정체성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적 측면에서 정보제공 도구로써 매우 가치가 있다.¹³²⁾

이처럼 사주상담이란 한 사람의 삶에 여정의 과정에서 성공에 따른 성패와 길흉을 분석하여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슬기롭게 처신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지침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주명리상담의 해석은 개인의 성격, 성향 등 생활의 참여도와 관련되는 미시체계와 사

131) 김태균, 『현대명리학 개론』 (서울: 양림출판사, 2004), pp.13~15.

132) 유경진, 『해석 사주명리학 입문서』 (서울: 역림관, 2012), p.53.

회적 조직적 활동에 관련되는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습과 문화와 가치관에 해당되는 거시체계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애주기 즉 대운, 세운과 성패와 길흉의 결과를 가늠 하는 용신의 상호작용은 바로 개인의 삶의 여정의 환경에 미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하듯 명리상담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사주의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파악이나 혹은 진로방향에 따른 성패의 가능성 및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내담자(來談者)는 사주명리를 개인의 일상의 현실에서 대두되는 현실적인 사안에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통찰적 접근보다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식 명리상담을 선호하여 상담자의 즉각적인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추세로 사주명리상담은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문답을 통해 예측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근거로서 사주명리상담은 전통적으로 현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문제 해결방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¹³³⁾

사회복지학이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상담심리학과와의 융복합이 이루어진 배경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다.¹³⁴⁾ 복지상담은 복지실천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천적 체계이다. 사주명리학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또한 숱한 세월의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곧, 사주명리의 생명력은 현실, 지금(Now), 때(Timing)를 가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육구이론과 사주명리의 비교

십성(十星)은 각각의 속성에 따른 성격과 기질이 있다. 명식 내에 일간을 중심으로 타 간지(干支)의 구성된 관계에서 속성 및 기질의 작용력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사주명식에 배속된 오행들은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육신을 세분화한 명칭이다. 10개로 상징되는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하여오는

133) 김미라 · 백용매,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Vol.13 No.2 (2010), pp.33~45.

134) 고수현 외, 『사회복지상담론』 (서울: 수양재, 2017), p.11.

정인(正印)과 편인(偏印), 일간과 같은 오행의 비견(比肩), 겁재(劫財), 일간이 생하는 식신(食神), 상관(傷官), 일간이 극하는 관계로 정재(正財), 편재(偏財), 그리고 일간을 극하여 오는 정관(正官), 편관(偏官)의 열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십성은 고유의 특성을 띄우게 되고, 반면에 십성은 나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사회복지상담현장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삶의 방향성 제고에 따른 십성의 욕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주는 생극제화(生剋制化)¹³⁵⁾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화(中和)를 목적으로 하며 편고(偏枯)¹³⁶⁾하거나 유통되지 않는 것은 부정적 요소로 본다. 또한 중화(中和)를 주도하는 십성은 각각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각각의 고유한 성정(性情)과 심리구조를 지닌 십성간의 상대적 작용인 ‘상대성(相對性)’과 ‘욕구(欲求)’를 잘 이해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하여 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적성, 인간관계,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특성을 알게 되고 대안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십성은 기본적으로 일간에게 주는 영향(氣)이 있는 반면, 타 간지에 분포되어 있는 육신에게서 원하는 욕구도 있다. 이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못할 때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며, 행복과 불행 을 느끼게¹³⁷⁾ 된다.

이러한 십성의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로 욕구충족이론의 서구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활용하여 사주명리학의 십성이론에 적용한 내용이다. 매슬로우 욕구이론에서는 충동의 근원인 욕구는 첫째, 생리적 욕구, 둘째, 안전의 욕구, 셋째, 사회적 욕구, 넷째, 존경의 욕구, 다섯째, 자아실현의 욕구로 다섯 단계의 욕구체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강한 욕구는 인간에의 가장 잠재된 욕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135) 김기승, 『명리직업상담론』(서울: 창해, 2010), 사주에 干支 간 生剋制화와 刑沖會合하는 다변적 작용은 十星의 심리를 주관하여 이원적인 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깊은 이해와 통찰을 요구하게 된다. 다만, 사주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격국용신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됨을 중시해야 한다.

136) 김기승, 앞의 책(2010), 사주내의 五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배치된다면 안정된 格局으로 전환되어 갈 수 있는 상비력(常備力)과 대체 생산력(生產力)이 주어지지만, 어느 한 오행이 전무(全無)한 상황에서는 균형의 실조로서 정신적 측면 또는 전반적으로 수용공급이 깨어지는 구조로 침체에 이르게 된다. 대운에서 충족요건이 될 수 있는 오행이 들어 올 때는 새로운 구조편성으로 변화를 겪는다.

137) 김기승, 『사주심리와 인간경영』(서울: 창해, 2006), p.107.

욕구 충족이론은 개인이 직무를 통해서 얻는 성과의 양을 중시하고 그 양이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이론으로 쉐퍼(Schaffer, 1953), 매슬로우(Maslow, 1954)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욕구충족체계는 명리상담의 도구인 음양오행을 비롯해 인간의 성향과 성격에 대한 작용을 하는 요인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에 사주명리의 심성의 성격적 발현이 근본적 요인의 장점을 강조하여 다소 유전적인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9> 와 같다.

<표 III-9> 편중된 심성과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와의 관계

편중된 심성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와의 관계
인 성	생리적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관 성	안전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식 상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비 겁	자존심 충족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재 성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출처: 김종만, 「욕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

4. 측정 도구의 비교와 효과성

현대적인 심리검사의 시초는 19세기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학생 중에서 정신 지체아를 구별하기 위한 비네(Binet)가 실시한 검사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17년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신병을 상대로 한 일반 지능수준을 분리한 육군 알파 테스트(Army-Alpha Test)라는 집단지능 검사가 최초의 집단 지능 검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성검사는 대부분 질문지법으로 방대한 페이지의 문제를 해결해서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기 평가 방식을 사용하는 검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질문지법이던 자기평가방식이던 모두 언어표현능력의 발달 정도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¹³⁸⁾

138) 김기승, 「명리이론을 활용한 선천적성검사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p.63.

1) 서구 질문지법의 장·단점 분석

(1) 특성요인이론(trait-factor theory)의 장·단점 분석

특성요인이론(trait-factor theory)의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파슨스(F. Parsons), 윌리엄슨(E. G. Williamson), 헐(C. Hull), 밀러(C. H. Miller) 등이 있는데, 개인의 적성, 흥미, 지능, 가치관, 인성과 같은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검사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밝혀내고, 각각의 직업들이 요구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이론¹³⁹⁾이다. 특성요인 이론에 의한 진로지도는 첫째,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며, 둘째, 이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 정보를 수집하며, 셋째,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을 하는 일이고 주된 활동¹⁴⁰⁾이 되고 있다.

특성요인이론의 장, 단점을 살펴보면 심리 상담 및 검사를 활용하여 수집된 직업정보를 통해 직업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실용성과 합리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성요인이론의 단점으로는 주로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결과에서 얻어진 정보의 타당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성이론이란 지속적 안정적인가? 또는 특성이론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등의 논란이다. ‘특성이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문제에 있어, 특성이론이 지능과 같이 개인의 내적 특성요인이론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학습되는 것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만약 특성요인이론이 학습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학습에 따라 특성이론도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성이론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특성요인이론 직업상담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결론하여 볼 때, 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참고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특성요인이론의 상담이 매우 지시적이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이며 통제적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정서적 영향을 과소평가한 점과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단순화하여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에

139) 김충기 외,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서울: 동문사, 2011), pp. 331~338.

140) 강재태·배종훈,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09), pp. 94~95.

필요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들의 가족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 등 사회문제의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을 축소평가하기 쉽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 욕구이론(need theory)의 장·단점 분석

욕구이론(need theory)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을 자신들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론가로는 대표적으로 로우, 홀랜드, 호포크 등이 있다. 로우(A. Roe)의 주장으로는 아동기에 이미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에 의해 직업선택에 갖게 된다고 보았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의 5단계를 기반으로 한 초기 인생경험이 직업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7가지 가정을 발전시켰다. 그는 내담자의 직업지향성의 관련에 대해 가정환경에 따른 다음과 같은 가설을 주장하였다.

무리하게 보호를 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예능계통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인간지향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인간지향적인 성격으로 공동적인 환경의 서비스 직종의 직무를 선호한다. 부모 사랑이 부족하게 자란 사람은 대체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게 되며, 과학계통, 연구계통과 같은 사람들과 접촉이 적은 직무를 선호한다. 한편 로우는 직업분류를 8종(비즈니스직, 조직단체직, 산업기술직, 옥외활동직, 과학관련직, 일반문화직, 예체능직, 서비스직)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홀랜드(J. L. Holland)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동기를 타고난 유전적 소질과 환경적, 문화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직업선택 행동은 개인의 인성의 표출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선호직업으로 인성의 표출이 용이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선호에 대해 홀랜드는 직업적 성격유형이라고 하였다. 또한 홀랜드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로 성격유형을 구분하였다.

욕구이론의 장점으로는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쉽게 접근을 하여 내담자가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점이다. 또한 홀랜드의 6가지 유형은 근접하기가 쉽고 상담의 도구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반면에 욕구이론의 단점으로는 개인의 흥미요소에 맞는 선택이라는 점이다. 흥미요소로 선택된 직종이 반드시 성공한다

는 보장이 없고,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3) 정신분석이론의 장·단점 분석

정신분석이론(psychoanalytic theory)은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¹⁴¹⁾. 대표적인 학자로는 나흐만(B. Nachmann), 시겔(S. J. Segal), 보딘(E. S. Bordin) 등이 있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생리적 욕구에 대한 충족의 대안을 9가지의 직업군을 제시하였다. 정신분석이론의 장점은 생리적 욕구에 대한 인간의 원천적 충동과 욕구를 사회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정신분석이론의 단점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활용하지만 능력과 적성에 대한 정보를 개인의 직업 선택 시 타당한 실증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일에 대하여 욕구충족의 관점에서만 보고 문화, 기타 경제, 사회적 원인들을 참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 MBTI 검사의 장·단점 분석

지필식 성격검사 중에 검사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브릭스와 그녀의 자녀인 마이어 모녀가 개발한 OMBTI(Myers-Briggs Type Indication)가 있다.

이 검사의 이론적 배경은 1921년에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 발견한 여덟 가지 심리유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브릭스와 마이어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향과 그리고 의존하는 정보에 따른 종류 및 의사결정의 과정에서의 방법 그리고 삶의 정도에 따라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4개의 선호경향과 16개의 성격유형(<표 III-10 >참조)으로 발전시켰다.

141) 김윤정, 『알기쉬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서울: 학지사, 2011), P.58.

<표 III-10> MBTI 성격유형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¹⁴²⁾
ESTJ	ESFJ	ENFJ	ENTJ

성격검사의 단점은 측정하려는 특성이 명확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허구성과 무응답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가 검사목적에 따라 자신의 본심과는 달리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성격검사의 단점¹⁴³⁾이다.

(5) Holland 검사의 장·단점 분석

홀랜드의 진로이론에서는 직업적성을 6가지로 나누고 있다. 홀랜드의 진로 성격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실형은 도구(연장), 기계, 측정기구류와 같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만지는 신체 기능을 선호한다. 물건을 다루거나 제조하고 개조하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창의성보다는 기능성이 요구되고, 실

142) 앞의 책, p.28, “ENTP형은 직관(N)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잘 발달시키며 삶에 있어서도 직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가장 전념한다. 그리고 직관(N)을 제어하기 위해 T(사고)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T(사고)는 직관(N)이 열렬히 추구하는 것까지 거부하지는 못한다. 이 유형은 외부세계에서 새로운 가능성(N)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한다.(직관형은 자기가 계획한 활동들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소홀한데 ENTP가 더 그러하다.) ENTP가 지나치게 많은 활동들은 별일 때 T(사고)가 요구된다. 즉 ENTP는 자기 내부세계(I)로 들어가 각 활동을 추진 또는 포기함으로써 요구되는 댓가와 결과를 분석한 뒤에, 어떤 계획을 포기할지 논리적 판단(T)을 하게 된다. ENTP의 열등기능은 감각(S)이다. ENTP는 가능성(N)만을 추구하는 데에만 정열을 쏟다가 현실(S)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훈련해야 한다. 유형이론에서는 ENTP의 경우 감각(S)과 감정(F)이 가장 서서히 발달된다고 한다. 직관을 통해 선택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서 감각(S)과 감정(F)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ENTP는 자기가 입안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실들을 알아야 하고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감각(S)이 나서서 작용함으로써 직관(N)을 도울 수 있다. 더구나 그가 추진하는 계획이 팀웍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F)이 나서서 직관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143) 강재태 외,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재』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p.68~69.

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며,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우선한다.

탐구형은 주로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의학, 생명과학, 물리학 등에 흥미를 느낀다.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즐겨하고, 과학에 관한 지식의 욕구에 만족감을 느낀다. 과학정보를 분석, 평가하거나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잘한다. 6가지 유형 중 학력이 가장 높다.

관습형은 시간활용이 남다르다. 기획적이다. 준비철저하다. 우수하고 세밀하며 모든 일에 정확하다. 집중력이 높고, 문서작성, 서류관리, 예금관리, 예산설정 등에 능력과 흥미가 남다르다.

예술형은 창조적인 상상력이 풍부하다. 창의적 프로젝트라든가 기획력에 두각을 나타낸다. 자기를 표현하는 일에 관심과 흥미가 많다. 대체적으로 학력 정도는 이 유형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진취형은 사람을 리드하고 타협하고 제품의 정보교환 및 주변을 선도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선호하며 타인에게 칭찬과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모든 일에 성취욕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협치를 잘한다. 또한 모험심이 강하다.

사회형은 주변에 관심을 가진다. 봉사에 흥미가 많고 타인의 고민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데 앞장선다. 언변이 좋고, 경청에 집중하여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규칙에 불편을 느끼며 사람 사귀기를 좋아한다.

육각형 도형에서 근접에 있는 유형끼리는 비슷비슷하며 떨어진 유형과는 다른 점이 많게 된다. 홀랜드 적성검사의 단점으로는 수학적 재능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점에 있다. 학과 선택에 있어서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수학적 능력에 따른 적성이다. 그럼에도 수학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이공계열 학과를 선택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데에 따른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 계통의 직업을 갖기에 부적절한 부분의 설명이 부족한 점이 단점이다.

2) 사주명리학적 적성 및 성격검사의 필요성

이상의 내용으로 검토해본 심리검사와 적성검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지필식의 검사가 갖는 한계로서 독해능력이 높은 내담자는 독해능력이 낮은 내담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반화된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결과와 검사자의 실제생활을 대조하는 절차에서 일치되는 부분과

의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 따른 상담의 방향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현재 실용화 되어서 사용하는 각종검사들의 결과는 응시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결과로 규정짓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¹⁴⁴⁾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되는 점은 같은 표준검사에 응답하는 경우라도 내담자의 기분과 마음상황에 따라 답이 정확치 않는다는 것이고 지문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내담자들에게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현장 및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서구식 자기보고를 통한 심리검사를 전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내용과 같이 지필식 자기보고의 한계 내지는 보완을 위한 사주명리학을 통한 출생과 동시에 타고나는 기질과 적성 및 개인이해의 활용을 위한 명리학의 타고난 기질이론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명리학에서는 부모의 유전자와 우주의 기운(SOUL DNA)의 기질에 따른 재능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5.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사주명리학의 적용

1)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칼 로저스는 상담자로서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상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상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현저한 정서적 유형(pattern)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결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이 중요하다. 만약 상담자가 자신에 대해 이와 같은 통찰을 상당한 정도로 하고 있지 않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편견과 감정으로 편향되기 쉽다. 상담자는 또한 왜 자신이 만족스럽게 상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을 하여야만 한다(Rogers, 1939).¹⁴⁵⁾ 즉, 상담자가 자기기만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담자는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 ‘가치의 비난적인 조건’을 직면하고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과 대화를 이루기 위해 고통스러운 과

144) 강재태 · 배종훈, 앞의 책(2009), P.77.

145) Carl R. Rogers 저, 한승호 · 한성열 번역,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1998), p.321.

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로저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⁴⁶⁾ 즉, 상담자 자신은 과거의 경험에서 형성되고 부여된 가치의 조건화로 인하여 자신을 비판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상담자는 이를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여되어 외부로부터 단순히 긍정적인 칭찬을 받기 위함은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상담자 자신의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진지한 울림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지하게 살펴 궁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수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통찰(洞察)을 할 경우, 인간중심 상담자는 클라이언트를 진정으로 조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경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모든 직업 생활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갔고, 내 스스로도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 당시에는 내가 자주 외롭거나 어리석다고 느꼈을지라도, ‘옳다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 지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 지침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나에게 경험은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정당성에 대한 시금석은 내 자신의 경험이며, 경험 가운데서 질서를 발견하는 것을 즐긴다. 또한 깨닫는 데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친절하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내 사고를 재조정하기를 싫어하고 이전의 지각하고 개념화하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지만,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의 고통스러운 재조직이야말로 바로 학습이며,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삶을 바라보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언제나 더 만족스럽게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는 개념이다. 내가 보기에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감정들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가장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을 표현하거나 서로 공유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내가 예술가와 시인들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독특함을 용감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 도

146) Dave Mearns, Brian Thorne 저, 주은선 번역, 『인간중심 상담의 임상적 적용』(서울: 학지사, 2012), p.92.

움이 되었다(Rogers, 1961).¹⁴⁷⁾

인본주의상담이론의 대표적 학자의 자신에 대한 통찰에 관한 상기의 글은 결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가 지향한 상담자의 자세로서 진실성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그래서 공감적 이해를 통한 인간과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역설한 이론을 이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자기 스스로 궁구(窮究)한 자기이해의 힘은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 자신이 동양의 사유체계인 명리학을 활용해서 자기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자신의 가치관이 동요되지 않기 위한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중심 상담자도 클라이언트와 같은 입장으로 성장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 가치를 배제하는 것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사람중심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자기 분석을 통한 자기이해를 충분히 해야 한다.

2) 사주명리 상담자의 자기이해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와 상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너를 구별하고, 또 자신 스스로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관념적 체계인 자아개념(self-concept)은 인간 본질적 성향을 규명하기 위해 형성되는 심리적 구성요소이다.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각, 신념 및 태도의 독특한 체계이다. 즉 자아개념은 한 개체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개념이자 자기상(self-image)이다.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총체적 지각으로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⁸⁾

현대심리학에서는 자아개념을 자기(self), 자아(ego)¹⁴⁹⁾, 자기개념(self-concept),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 자기지식(self-knowledge), 자기체계(self-system), 자기 상(self-image), 자아정체감(ego-identify), 자기도식(self-

147) Rogers, C. R. 저, 오제은 번역, 『사람-중심 상담』(서울: 학지사, 2007), pp.34~40.

148) 김권수, 『성공을 부르는 인간관계』(서울: 기문사, 2010), p.9.

149) 양준석, 「애니어그램 집단 워크샵이 자기이해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p.1.

schema)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용어라 할지라도 학자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¹⁵⁰⁾ 자아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기 상(self-image), 자아정체감(자아정체성, self-identification), 자아존중감(자긍심, self-esteem) 등이 있다.¹⁵¹⁾ 이 연구에서는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이라 판단 되어 자아(ego)보다는 자기(self)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상담자의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중요 시사점은 자신의 경험 세계에 대해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한다면 자신을 수용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한다면 상황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러내며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이해를 위한 과정에서의 자기수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기수용이란 편견 없는 판단으로 자신의 존재, 견해, 태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기수용이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만큼 상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개방도 수월해지게 된다.

자기 자신의 개방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의도나 행동을 통한 유연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는 상호간 이해와 신뢰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관계 형성은 내담자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호감과 친밀감을 얻기가 쉽다는 것이다.

자신개방의 방법은 언어적인 방법도 있지만 행동, 표정,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도 포함되며 비언어적소통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의사소통 시 타인의 비언어적 실마리를 알아채고 이해하는 능력이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큼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비언어적인 표현도 적절한 언어적 소통과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이다.¹⁵²⁾

철학자 플라톤은 “마음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른 이에게 다가가야만 다른 이도 진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개방은 인

150) 권석만 외,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서울: 운주사, 2008), p.341.

151) 김광수 외, 『성공을 부르는 인간관계』 (서울: 기문사, 2007), p.27.

152) 김선형, 「지도자 인성의 공개부분의 크기와 학교조직 건강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p.36.

간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곧 자신의 개방을 통해서 라포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개방에 대한 의의는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인간관계를 구성하는데 있다. 적절한 자신의 개방은 상담의 주체자로서 가져야 할 기술이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상호간에 개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자신의 개방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사유체계를 담고 있는 사주명리학은 전술한 바와 같은 남다른 자기이해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사주명식의 구성을 판단하여 상담의 현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오늘날 제도권의 대학원에서는 사주명리학을 통한 타고난 성격분석 및 성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김종만, 2005: 정국용, 2003: 정하룡, 2009 등).

사주명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의 성향과 심리는 명식의 음양오행의 구성의 중화와 태과 및 불급에 따라 행동패턴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십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의 분석을 통해서이다. 십성의 편관, 편인, 상관을 구비한 명식의 소유자는 자기이해를 통한 명리상담에서의 역할이 남다르다는 결론을 연구자의 오랜 명리상담의 임상을 통해 갖게 되었다.

6. 사주명리상담에 대한 소결

앞서 사주명리학의 이해를 통해 명리상담에 대한 접근이론들 가운데에 이론적 논의에서 음양론과 오행론 그리고 십신론, 격국론과 용신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이론들은 상호 독자적 성향을 띠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명리학적 이론들의 큰 특징이다. 타고난 사주의 성정을 포함한 특성과 기질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것들이 조합되어 한 사람의 전체적인 성향과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사주명리 상담의 가치라 할 것이다. 명리학의 십성이론은 명리학의 많은 이론 중, 자기이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리상담의 주요한 특화된 이론이자 가장 큰 장점이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사회 환경의 상호 적합도에 따른 본인의 성향, 즉 본인만의 장점을 개발하여 직무 만족도에 대해 스스로 활용하여 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현대 사회의 환경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져서 매

일의 일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생존을 위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적응하는 데에 각자의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래되어온 사주명리학의 역할이 사람의 길흉에 관한 부분에 치우쳐 있었다면, 현대 사주명리학에서는 타고난 기질 및 성향, 적성, 소질 등에 대한 정보에 더욱 치중하여 그에 따른 생애주기의 성패와 부귀의 경중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누구에게나 일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도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명리상담의 역할로 선택적 의사결정 및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주의 분석은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에 의하여 논리적, 체계적으로 풀이되며 동양사유적 체계에서는 우주론적 사상에서 사람도 소우주로 보고 우주의 생성, 변화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우주와 인간의 관계로서 인간이 갖는 인성의 사상으로 이해된다.¹⁵³⁾ 그러므로 명리상담의 궁극적 의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앞날을 예측하고 인간들의 길흉 및 성패만이 아닌 타고난 성향분석에 따른 방향성 제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의 성정을 분석하여 자기이해를 통하여 인격수양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성향도 판단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명리상담에 있는 것이다.

동양의 인성론은 본체론적 접근인 내향적 관념론이라면 서양의 성격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외향적 인식론¹⁵⁴⁾이라 할 수 있다. 사주명리학은 동양철학의 분야이면서도 관념론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의 生年月日時를 운명적 본체로 중시하면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사주팔자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존재성과 역동성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욕구와 행동 간의 관계성을 분석적 체계를 통하여 다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주상담에서는 현안적인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담론을 가지게 된다. 또한 명리상담에서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들은, 사주의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파악이나 혹은 생애주기의 성패의 가능성 및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사주명리상담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문답을 통해 예측방향의 가능성을 설정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주명리 상담

153) 정국용, 앞의 논문, p.7.

154) 신규범, 『조직행동의 설계와 관리 및 변화』(서울: 형설출판사, 1999), p.110.

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방식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는 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¹⁵⁵⁾ 하지만 산업화의 시대적 상황은 날로 확장되어 가면 갈수록, 사회구조는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는 만큼 다행히 명리학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현재의 사주명리학의 위치는 고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새로운 학문적 융합을 시도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치 있는 명리고전의 학문적 이론을 현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의 모색이다. 이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스스로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상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어 준다.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만족의 명리상담만이 주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주명리학의 접근 방식을 통하여 사람이 갖는 원천적인 문제인 삶의 질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무엇보다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자기이해의 장을 통해 자기효능감의 확립에 기여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155) 김미라 · 백용매, 앞의 논문, pp.33~45.

IV. 사회복지와 명리상담 적용사례

사회복지 실천과정이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 및 또는 집단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은 크게 초기, 중간, 종결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내용이나 과제가 순환되거나 중복되기도 하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접수단계, 자료수집과 사정단계, 계획수립단계, 개입단계, 평가와 종결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주명리 상담기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 실천과정 중 사정단계와 개입단계에서 사주명리이론이 활용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미혼모 상담사례

다음 사례는 2018년 7월~10월에 걸쳐 상담에 임했던 미혼모 클라이언트의 실제 상담일지를 토대로 상담에 사주명리학이 개입된 예시이다. <표 IV-1>은 클라이언트를 처음 접하고 개인정보 등 자료 수집과 개입하게 되는 초기 단계의 기록이다.

<표 IV-1> 미혼모의 사례 1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7월 26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1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巳時(양)
내담자 정보	가. 인적사항 · 본인: 000(48세, 여) 조건부수급 2급 · 자녀1: 000(16세, 여) 나. 직업 · 과거: - 여상을 졸업한 후 경리일. - 시골 면사무소 전산 보조를 오래 했음(당시 계속 했으면 지금쯤 정규직이 되었을 거 같아 후회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7년 근무(산부인과 5년 근무, 00병원 2년 근무) - 머리 염색방 직원으로 근무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머리 염색방 운영 (2017년1월 개업) <p>다. 기타 가족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10년 전 사망. 생전에 술, 담배로 가족을 힘들게 했었음 · 모:67세 농사일. 봄가을 나무장사. 몸이 안 좋음. · 2남 2녀 중 장녀 · 큰 남동생과 딸이 대화를 잘 나눔. · 작은 남동생 가족과 친분
<p>일반적 상담 내용</p>	<p>* 현재 상황, 특히 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나 차량, 부채 등에 관해 상세히 알아봄.</p> <p>가. 심리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황과 양육의 문제로 불안한 상태. <p>나. 본인이 생각하는 당면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부남이었던 아이 아빠와 법적으로 문제가 얹혀있음.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됨. · 지난 2018년 0월 0일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를 받아 96개월 월 납 00원을 상환 중임. 매월 상환액이 부담이 됨. · 2017년 0월 개업한 염색방의 수입이 적어 운영 여부에 대한 고민(월세 25만원. 동종업종이 지역에 너무 많이 생겨 경쟁력도 없음) -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이다 · 지인차용 여동생 000만원 중 차용 월 분납으로 상환 중 - 빚이 늘어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의 인터넷 강의비 2년 선납으로 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 카드로 납부(이후 딸이 인터넷 강의를 제대로 안 들어 잦은 다툼이 있음) · 염색방 직원으로 있을 때 보다 현재 개업을 한 이후 수입은 적고 운영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음. <p>다. 주거와 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 보증금 0,500만원/ 월세 00만원(주거급여) 2018년 4월 재계약 · 과거 주거 이력 : 주공아파트(자가) 0,000만원에 구입해서 20년 기거했음. 0,500만원에 매매 (빚 0,000만원 상환+ 차구입 선불+ 임대아파트 보증금) - 차량

- 모닝 2015년식, 어머니 명의, 할부 2년으로 구입, 할부 완불.

라. 미래계획

- 구체적인 계획 없음. 친척언니가 거주시내에 ‘00’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매니저로 와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 고민 중임.

* 내담자의 출생정보

時	日	月	年
丁	戊	己	辛
巳	申	亥	亥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가. 격과 사주구조로 본 성격 및 성향

- 위 사주 명식은 戊土일간 亥月生으로 재격이다. 戊土 일간이 실령, 실지를 하여 신약구조로서 己土의 조력이 있다 하나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편재가 너무 강하면 소유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으며 이기적이며 의지력이 약하다. 재성이 강하여 인성을 파괴하여 배운 것을 사용하기 어렵고 욕심은 있으나 불평과 불만이 많다. 이때 일간이 강하면 능히 재물을 취할 수 있으나 위 사주구조는 겹재가 있어도 힘이 없고 인성의 뿌리도 巳申 合水로 변질되어 매우 신약해져 재성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성의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경우이다.

나. 대운의 흐름으로 본 직업의 변화

- 일간이 맞이하는 대운의 흐름을 보면 水 대운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간신히 여상고를 나와 경리보조를 거쳐 시골 면사무소 전산보조 업무를 20대 중반까지 하던 중 이직을 하여 간호조무사, 염색방 직원 등의 직업을 가지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을 한다.

다. 사주구조에 따른 이성문제

- 관성은 여자에게는, 육친으로는 남자, 남편이며 직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명식에서 남자는 亥水 지장간의 甲木인데 물에 잠긴 형상으로 남자와의 인연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혼기가 차도록 만나는 남자마다 유부남이었던 이유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

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주명식의 유형으로 보면 식상생재로 이루어져 있어 장사가 잘 될 것 같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재다 신약 구조에 가까운데다가, 이 명식은 신약구조로서 식상, 재성, 관성은 신약한 일간을 더욱 신약하게 하므로 부정적이 역할이 크다. - 명식의 주인공은 현재 48세로 유부남과의 혼외 딸을 낳아 미혼 모가 되어 2급 조건부수급자이며 현재 딸은 16세이다. <p>라. 경제상황 및 직업에 대한 방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의 친부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현재 머리 염색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너무 적어 경제상황이 힘들고 중학생인 딸의 양육이 어렵지만 딸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력으로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는 일간의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火土 용신(用神)을 만나는 시기를 위해, 미용자격증 준비를 권유하였다.
--	--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상황과 심리상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담자는 인본주의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상담에 임하였다.

만일 인본주의이론에서 상담의 기법을 논하라면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가치, 철학을 상담에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본주의 이론의 기법들은 내담자에게 존중과 수용, 그리고 이해를 공감적으로 전달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안전하게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Rogers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리고 일치성 혹은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¹⁵⁶⁾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결여되면 다른 것의 효과가 반감하는 상호관계 속에 있다. 즉 진실성이 결여된 공감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존중이 결여된 진실성 역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인간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의 잠재력이 일상에서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는 내담자는 상담자가 내담자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상담자의 자세로 인해 자기개방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일관된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내담자는 자기개념과 경험이 불일치하는 데 따른 방어

156) Rogers, C. R.,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1957), 95-103.

나 현실 왜곡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자기통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는 내담자는 상담자가 내담자인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상담자의 자세로 인해 자기개방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일관된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내담자는 자기개념과 경험이 불일치하는 데 따른 방어나 현실 왜곡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자기통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¹⁵⁷⁾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으며, 2회차 상담에 내담자를 다시 만났을 때는 훨씬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IV-2>는 위 사례의 2회차 상담일지이다.

<표 IV-2> 미혼모의 사례 2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8월 9일				상담자	이 00
내담자	0 0 0	女	회차	2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巳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본인이 느끼는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문제: 현재 수입이 적어 신복위의 변제금 월납입액 000원이 부담됨. - 직업: 불안하다. 하지만 당장 가게를 그만두기는 힘든 상황임. - 아이 문제: 저녁 시간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함. 엄마가 일찍 와서 저녁도 차려주고 함께 있기를 바람. 어려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서 길렀음. 중학 입학하면서 함께 생활. 딸은 엄마가 다시 간 호조무사 일을 하기를 바람. 엄마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예민함. - 양육비 문제: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 수입이 줄어 돈이 필요해질 때마다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문자에 대해 더한 감정이 담긴 답 문자를 보며 상처를 받고 있음. 법원으로부터 위로금(벌금)으로 양육비 지급을 대신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함. 통지서는 분실했음. - 나의 문제: 행복하지 않다. 00아빠에 대한 원망이 크다. 00아빠 부인도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른의 문제로 아이 양육비를 막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 억울하다. 불안하고 암담하게 느껴진다. 상담시간 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내 문제를 같이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힘이 된다. 도움을 받고 싶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157) 정원철, 『사회복지상담』 (파주시: 양서원, 2005), p.196.

	<p>나. 상담사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가게 운영과 집 살림살이를 따로 구분해서 수입과 지출을 기입해 본다. 정리를 하더라도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함.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는 방법,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함. - 아이와 내담자의 문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를 권함.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도 적응이 힘들지만 아이도 힘들 수 있음을 인정. 본인에 대한 꾸준한 고찰이 필요함. 아이들과의 대화법도 중요함. 혼자가 아닌 주위의 자원을 활용해 보길 권함. 00복지관내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보기(모녀가 함께 심리 상담이 필요함). <p>딸과 어른스러운 대화를 하기 권함. 부담을 주지는 않되, 어른 처럼 대하며 엄마의 상황도 정리해서 전달. 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청하기도 해야 함. 대화를 통해 엄마도 함께 성장하며 위로가 됨을 이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문제: 분실한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오기. 법적인 자문을 요청해도 됨을 안내함.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함. 결정이 될 때까지는 더 이상 00아빠에게 문자하지 않기로 함. - 금융문제: 수입과 지출의 차를 파악해본다. 신복위의 변제금을 갚지 않고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음. 월납보험료가 비중이 큼. 지출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미래설계를 통해 필요자금을 계산해 보고 월지출의 예산을 세워보기로 함. - 딸의 친부는 공무원 아내와 주말 부부였음. 이혼을 하고 본인과 함께 살 거라고 믿고 출산을 함. 출산 후 이혼의 뜻이 없음을 알고 헤어짐.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이후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 양육비 지급이 불규칙했음. 2004년 양육비 소송을 해서 월 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후 지급이 안돼서 가압류를 신청함. 가압류신청을 계기로 00아빠와 감정적 싸움이 잦아짐. 00아빠의 부인이 당시 간통죄로 고소를 했었고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위로금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 다시 소송이 있었고, 위로금(이자까지 적용)지급을 빌미로 양육비를 안주는 걸로 통보가 왔음. 본인은 부부가 작정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되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의 문제이고, 아이 양육은 다른 문제 아니냐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최근도 00아빠와 문자로 다툼. 법적으로 문제 삼아주길 바란다면 도리어 공격당함
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	<p>가. 격으로 본 내담자의 성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는 戊土 일간에 亥月生으로 편재격이며 年支에도 亥水가 있으며 일지와 시지도 巳申이 六合하여 水기운을 머금고 있으므로 재성(財星)이 강한 편이다. 편재격의 성향은 이재에 뛰어나

	<p>고 기회를 잘 활용하며 수리력과 가치판단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우유부단하고 감정기복이 많고 주변에 의해 변화가 많을 수 있으며 지구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p> <p>나. 사주구조(course)로 본 내담자의 성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사주구조는 식상생재의 out-course구조이다. 식상생재의 사주구조는 활동성과 경제활동에 있어 우수한 재능이 있고 확실한 결과를 얻고나 하는 사업적 기질이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 내담자는 신약한 일간이므로 자신의 재능을 모두 발휘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 <p>다. 상담사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격(格)이나 사주구조에서 본 장 단점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고 내담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같이 탐구했다. 신약한 일간에 식상생재 구조를 가진 내담자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펼 수 있는 때를 살펴보니 58세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그 사이에는 자기 기술을 활용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인 장사보다는 자격증이 있고 자기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이 좋은데 이미 자격증이 있는 미용업이 알맞겠다고 권유했다. 또한 법률적인 관계는 여성가족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도록 안내하였다.
--	--

<표 IV-3>은 3회차 내담자를 상담한 일지인데 얼굴 표정이 많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모습을 대할 수 있었다. 커트기술을 배워서 활용하고 있었으며, 미용봉사를 통해 실력도 늘이고 자존감도 높일 것을 권유하였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표 IV-3> 미혼모의 사례 3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10월 04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3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巳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직업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트기술을 익힘(소상공회의소를 통해 00전문대 교수님께 무료로 교육 받음). 커트 서비스를 조금씩 해주고 있음. <p>나. 자녀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통화해봄. 학교 성적이 평균 80점이 안된다고 함. 체육에 특기가 있으니 체육학과를 목표로 고교진학을 권유받음(태권도3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학원만 다니기로 함. - 고교는 00정보기술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취업을 하거나 00여고나 00여고를 진학해서 대학을 목표하는 것. <p>다. 상담사의 조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향상이 안 되는 원인을 학원에서 찾음. 학원을 자주 옮기게 됨. 학원비부담이 커서 학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 학원비가 안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했다가 자녀가 학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만두는 상황의 연속임.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학원 다니는 것을 미루도록 조언했지만 자녀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바로 후회하는 경향이 있음. 자녀의 요구에 따라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여 진행하기를 권함. - 자녀에 대한 대화의 어려움이 있음. 미혼모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을 권함(복지영역의 자원 활용 요청) - 미용사 자격증이 있고 커트를 할 수 있지만 기술이 부족함. 노인정 등 커트 자원봉사를 권함.
<p>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p>	<p>처음 상담을 하기 위해 마주할 때보다 표정은 매우 밝아 보였다. 戊土 일간이 갖는 성정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정을 찾아 가는 듯하기도 하고 내담자 자신이 상담에 임하면서 줄곧 자신을 이해, 파악하고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데에 많은 동의를 한 결과라 유추된다.</p> <p>일간의 신약 요인을 식(食), 재(財)로 보면 관성이 들어온다는 것 또한 일간의 신약요인(부정적 역할)이 된다.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직업이 자주 바뀐 것도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己土, 겁재를 회신으로 보고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직업이나 직무가 좋으며, 상관성의 번득이는 창의력을 활용하고 편재의 장점인 공간의 미(美)를 연출할 수 있는 미용기술로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 급 동의를 하며 재차 확인을 하는 내담자에게 관성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다시 주지시켰다. 관성은 여자에게는 남자, 남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식의 주인공의 기운은 남자의 인연에 많은 고심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명식에서 관성은 시간에 자리한 丁火인 정인에 연결되며 남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현재 처한 상황은 누가 시켜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얘기했다. 본처와 이혼을 하고 정식 부부의 인연으로 살겠다는 말을 믿고 지금의 아이의 출산을 순순히 받아들인 내담자는 판단이 흐리다는 것이며, 다시 재혼을 생각할 경우에는 본인만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세상을 많이 경험한 선배 등의 의견을 중시해서 새로운 선택이 있기를 당부하였다. 사주명식의 긍정의 에너지가 모이는 火, 土운 중 올해 에너지인 土운의 강력한 에너지가 일간에 긍정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성부에 의뢰한 양육비 문제는 유리한 결과를 맞이할 것으</p>

	로 판단하였다.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비전으로는 머리 커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숙련의 대안으로 복지관 미용봉사를 통한 경험을 쌓고, 항상 미혼모로서 우울한 일상에서 나 자신 외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효능감의 회복은 곧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구현하는 과정임을 공감하는 상담으로 마쳤다.
--	--

2. 한부모가정 상담사례

<표 IV-4> 한부모가정의 사례 1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7월 26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1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巳時(양)
내담자 정보	<p>가. 인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000(49세, 여) 환경기사로 근무(대학4년에 환경기사 취득) 1995년 결혼, 2008년 이혼 - 자녀 1: (24세 딸) 00대 수학교육과 4년 재학 중. 동거 - 자녀 2: (23세 딸) 00대 간호학과 3년 재학 중, 동거 <p>나. 직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4학년 때 환경기사(수질)취득. 졸업 후 환경기사로 근무(4년), 결혼 후 경력 단절 - 2003년 웅진000 코디로 근무(2년)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원 6개월 교육으로 ITQ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 -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교실 교사(3년) 성대결절로 퇴사함 - 00병원 수질환경기사로 취업해서 근무 5년 일 이 워낙 힘들어서 목 디스크가 움.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3년 전 퇴직. - 환경기사 7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기술사로 인정. 현재 기술사임 - 퇴직 후 홈000 주얼리샵에서 3개월 근무, 염색방 3년 운영 등 쉬지 않고 일을 했음. 염색방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월 수입이 000만원을 넘지 못했음. -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 수질환경기술사로 근무 중 이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불안한 상태임. 다른 사람은 많이 그만 두었지만 환경기술사는 꼭 있어야하는 직책이라 혼자 사무까지 보는 상황임. 					

	<p>다. 기타 가족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남 3녀 중 셋째 - 부 78세, 모 81세 건강 양호하신 편이며 면장 출신이신 아버지는 농사도 많이 지으셨음. 유복한 가정. 형제간의 우애도 좋아 화목함 - 이혼 직후 2009년 1년 동안 형제들이 돈을 모아 보조하여 줌.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양육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후 모 친권. 이혼당시 양육비는 필요 없으니 친권만 달라고 정리했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음. - 2016년 10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청구소송(조달청관할)으로 이혼 당시부터 자녀 만 18세까지 소급계산하여 0,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진행은 안 함. 담당자의 조정으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두 아이에게 교육비, 핸드폰 요금을 친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봄. - 올해 초 용돈을 3개월간 보내지 않아서 담당자를 통해 연락해보니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오지도 않고 아빠도 안 만나줘서 용돈을 안 보낸 거라는 답을 들음. 아이들을 설득함. “한 달에 아빠가 주는 00만 원을 엄마가 벌려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호프집이나 식당에서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 너희가 좀 도와주렴.” <p>나. 남편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둘째 임신 때부터 바람을 피웠고 잦은 말다툼 끝에 구타도 함. 아이들 5살, 4살 되던 해에 너무 힘들어 아이들을 두고 6개월 동안 가출함. 시어머니가 아이들 돌봄(6개월 동안 아이들과 시모 사이가 나빠짐). - 2002년 남편이 찾아와 재결합. 토목일을 하던 남편이 부업으로 가요주점(유흥업소 1급)을 내면서 마담과 바람이 나서 결국 이혼하게 됨. <p>다. 당면과제(본인이 생각하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아주 잘했던 큰아이가 00대를 들어간 것도 엄청 아까웠음. 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수학교육과를 지망했던 건데 임용고시가 너무 어렵다고 도전도 안 하는 상황. 아빠가 주는 용돈 20만원이 턱없이 부족할텐데 아르바이트도 1년 정도는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음. 욕심이 없는 것인지 의욕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대화가 안 된다. - 회사가 불안해서 계속 다녀야 하나? - 주택 문제 : 현재 LH임대아파트 곧 법정 한부모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주택에서 나와야 하나? <p>라. 주거문제</p>

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

- LH임대아파트 보증금 0000만원, 월세 00만원, 2018 9월 재계약 예정

마. 상담사 의견

- 희망 키움 통장을 신청하도록 권유함.
- 월 지출 내용을 파악할 것을 권유함.

* 내담자의 출생정보

時	日	月	年
丁	戊	丁	己
巳	戌	丑	酉

乙	甲	癸	壬	辛	庚	己	戊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가. 격과 사주구조로 본 성격 및 성향

- 戊土일간이 丑月에 태어난 내담자는 丑월의 지장간 중 己土가 투간되어 겹재격이다. 먼저 戊土일간의 성향을 살펴보면 일간이 월지의 통근으로 신강의 조건이 된다. 戊土일간의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목표한 것에 대한 꾸준한 인내를 한다. 또한 신용과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장점이다. 다만 이 명식의 경우는 자기생각을 쉽게 꺾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유형일 것으로 상담의 단초를 가져갔다. 일간이 지지와 같은 오행으로 간여지동의 신강구조가 갖는 부정적 의미로 우려성은 일간의 지지는 배우자 자리로서 배우자의 인연에 대한 주의가 요하는 것이다.

나. 직업에 관한 상담

- 명리이론에서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격국에서 살핀다. 이 명식의 격은 겹재격이다. 명리의 이론에서는 명식의 중화를 최상의 구조로 인식하는 것으로 강한 일간 및 격을 중화시키는 관성의 역할인 木이 부재한 구조이다. 관성은 여자에게 의미는 직업, 남편을 가리킨다. 내담자 스스로는 주어진 직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없었다. 이번 상담을 계기로 새로운 직업 및 직업에 대한 타고난 기질을 통한 내담자 자신이 재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얻는데 지혜를 모아보자는 데 동의하였다.

다. 자녀 문제 상담

- 1회차 상담에서 당장에 걱정 되는 딸에 문제에 대한 포괄적 기운에 대한 전망은 내담자 자신에게 있어 자식의 관계성을 식상

	<p>성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이 명식에서 식상성은 회·용신에 해당되는 심성임을 감안하면 큰 딸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였다.</p> <p>라.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지는 2회 차 상담에 임할 때는 새로운 직업 모색을 위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갖기로 하였다. - 또한 주거 재계약에 관한 문제는 임대관련 측에 직접 문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 선택을 할 것을 권유함. - 한부모 관련 임대차 정책도 있지만, 서민을 위한 정부주도 임대차 사업도 있다는 것을 제안함.
--	---

<표 IV-5> 한부모가정의 사례 2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8월 09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2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巳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본인이 느끼는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불안하다. 수질담당 환경기술사로 취업했으나 수질 외의 환경 분야 업무도 시작하고 있어서 업무가 벅참. 회계업무 사무직도 퇴사를 시켜 본인이 사무업무도 함께 하고 있음. 본인 업무가 아닌 전산일 등 잔무가 많음. - 집문제: 휴먼시아 LH임대 아파트 다음달 9월 재계약 예정. 큰 아이 졸업 후 재계약이 안 될 거 같아 걱정임. - 아이들 문제: 기대가 컸던 큰아이와 대화가 안 됨. - 본인의 문제: 행복하지 않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늘 상황이 힘들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적으나마 내 용돈도 정해서 주고 좋아하는 기아야구를 직접 가서 응원하며 관람한다. 00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잘 모르겠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복지상담을 하면서 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상담이 도움이 된다. <p>나. 상담사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전공자이며 자격증을 인정받는 업무라는 점에서 본인도 자긍심이 있음.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심신이 상할 정도의 업무 배정은 대표와 충분히 대화를 하도록 권함.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한 내담자의 성향으로 이전 직장에서 목 디스크 수술 경험도 상기함. - 집 문제: 큰아이가 수입이 생겨도 1회는 재계약이 가능(2020년 재계약가능). 소득분위에 따른 상담은 직접 전화해 보아야 함. 주거복지센터, LH 기존 전세임대주택도 권함. 기존 전세임대의 장점을 안내함. 차상위 탈락으로 입주가 어려워지면, 버팀목 전 					

	<p>세 자금 대출도 가능함을 안내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기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나의 문제: 본인에 대한 꾸준한 고찰이 필요함. 아이들과의 대화법도 중요함. 혼자가 아닌 주위의 자원을 활용해 보길 권함. 00복지관내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보기. - 8월 지출내역을 분류해서 적어보기로 함. 9월부터는 예산을 세워 지출해보기로 함.
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리상담의 장점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주기에 마주친 현안에 대한 적절한 처신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모으는 장임을 유지하는 자리로 상담을 이어갔다. - 내담자의 직장의 불투명 하여진 직무에 대한 불안감에 우울하다는 질문에 답을 하였다. 명리상담에서 읽힐 수 있는 때, 시기의 에너지로 보면 을, 戊戌년 특히 戊土, 일간의 스트레스는 을 한 해 이어질 것으로 유추된다. 1회 차 상담 때 제언했던 내담자 자신의 천재성을 찾아 전문가로서의 평생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재차 환기를 시켰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 명리이론의 유형별 직업을 나누는 과정에는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유형, 즉, 인비식의 유형은 전문가 스타일이다. 식상성의 욕구이론에는 상대들과의 친밀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에 소속되어 이타심의 배려를 통한 상대들과의 관계에 깊은 욕구를 갖는다. 이 명식의 구조에는 월지와 년지의 반합을 통한 식상의 의미는 많은 대상을 위해 지식을 전달하는 직무가 최적임을 설명하였다. - 戊土일간으로 인성과 비겁으로 신강한 명식에게 우선적으로는 木의 관성의 제어가 급한데 이 명식에서는 아쉽게도 한 점 없다. 그나마 이에 대처하는 차선의 방법은 식상성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여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대처하는 삶으로 그 때 그 때 모면하는 임기응변식의 태도는 순간적으로는 좋을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은 무게로 다가온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축월생으로 조후용신인 火의 조력인 인성, 즉 부모의 재력의 도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 IV-6> 한부모가정의 사례 3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8월 30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3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巳時(양)
일반적 상담	가. 금융관리 상담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가계부를 다이어리에 정리함. 지출을 분류하여 작성하니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음. - 9월 지출을 정리한 후 다음 상담 시간에 10월 예산세우기를 하기로 함. - 본인이 몇 년 동안 4차례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여러 번 수령했음. 현재 자궁근종이 커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임. 보험을 유지하기로 함. - 희망플러스2에 가입되어 9월부터 00만원 저축 시작함. - 9월 지출 내역을 고정지출, 수시지출, 연 지출, 내 용돈으로 나누어 적어오기(양식제공) - 예산에 맞게 생활하기, 연 지출, 저축 금액 정하기 <p>나. 거취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다. 아버지가 계시는 00에 가서 농사일을 할까하는 마음도 있음. 아버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데 계속 땅을 사는 걸로 알고 있음. 농지가 있어서 함께 농사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됨. <p>다. 직업과 진로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음.
<p>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p>	<p>가. 심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회차 상담 중에 논의 하였던 우울해진 자신에게 용돈을 줘서 취미를 가져보면 좋겠다는 제안에 실제로 실천하였다 한다. 그 예로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의 경기장을 찾아 직접 관람을 해보았다는 것이다. - 명리학 이론 중에서 사주명식의 중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명식은 戊土 일간으로 몹시 추운 겨울생이므로 비록 명식에 火가 월간과 시주에 있다고 하나 명리학에서 온도를 참조하는 곳은 월지이다. 하지만 완전 겨울생으로 정서적 감정 상태는 정보와 인식의 수축 현상으로 자기 과보호 현상이 있으며, 닫힌 마음의 폐쇄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다행인 것은 내담자는 戊戌일주로 추운 한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건조한 일주이다. 그래서 우울해진 정서 상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p>나. 건강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식에 木오행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木오행이 관장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명식에 투출되지 않은 水오행은 비록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긴 하지만 구조상 부족한 오행으로 간주된다. 水오행이 관장하

	<p>는 질환에 대한 우려 역시 전문가적 진단과 처방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였다.</p> <p>다. 직업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환경기사로서 전공자 신분보장에 대한 불만의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는 근무처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분야에서도 수질쪽을 선택한 것은 명식에 필요한 수기운을 보충하므로 좋은 아이템일 수 있다. - 끝없는 지적 탐구성은 심성으로 인성에 해당되며, 일간을 중심으로 비겁에 해당되는 직무는 자기신체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식상의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내담자의 사주명식의 중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타적이며 배려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담자의 사주 구성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도 잘 맞을 것으로 생각되어 내담자에게 제안해보았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금 직장을 다니며 사이버대학에 3학년 편입해서 공부해보는 방법을 설명함.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므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정보제공. 이공계 전공자로 인문학이나 사회학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직업과 연관이 된다면 더 좋을 거 같다고 제언함. <p>라. 가족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친정부모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도시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 - 그의 부친은 지역의 면장으로 퇴임한 환경을 갖고 있어 내담자의 향후 계획에 일정한 역할이 기대된다. - 내담자 명식에서 식상성의 유용성은 자식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큰 딸과의 관계는 계속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설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다음 상담시간에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상담을 마쳤다.
--	--

<표 IV-7> 한부모가정의 사례 4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10월 04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4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巳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금융관리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지출 파악 후 11월부터 예산 세우기 해보기로 함.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생활이지만 이전 사용하던 가계부보다 체계적이라서 돈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하게 된 점이 좋다고 평함. - 연 지출 저축을 시작하기로 함. 월 20만원 예정 - 연간 수입과 지출 확인; 변동수입이 일정하지 않음. 매월 지출 					

	<p>과약 후 월별로 고정수입과 변동수입 월 지출 연 지출을 적어보기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나누기를 통한 잔고 파악이 용이하므로 통장의 잔고를 매달 적어보면서 자산을 파악해 보기로 함(용지 제공) <p>나. 자녀와의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아이는 워낙 공부를 잘해서 기대가 컸지만 현재 의욕이 없이 사는 모습에 실망이 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외출도 안하고 씻지도 않고 집안일도 안하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낌. 대학 졸업반이고 11월 임용고시가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음. <p>고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고 주말에도 집에 오면 과외나 학원 등 공부를 주로 했음. 당시 생활비 150만원 중 100만원을 사교육비로 쓸 정도로 교육에 적극적이었음. 그 때도 자녀와 대화는 안 했음. 큰 아이와 누군가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함.</p> <p>다. 직업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1,2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한부모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이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음. 준비가 필요함을 느낌 <p>라. 상담사의 조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엄마가 대화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알아보기로 함. 중1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음. 자녀는 엄마가 권유하면 상담에 응할 것이라고 함(복지영역의 자원 활용을 알아보기로 함) - 내년 한해는 직장을 다니며 공부를 할 수 있으므로 00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를 3학년 편입하여 공부하기로 함.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나 재가방문요양센터 등의 업무 등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보기로 함.
<p>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p>	<p>가. 거주지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는 겹재격의 구조로서 격이 갖는 조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거주에 관한 문제도 관련 기관을 통하여 계약연장을 하게 될 수 있는 통보를 받았다. <p>나. 자녀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상성이 많이 발달한 내담자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 조급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태도로 대화를 전개할 것을 상담을 통해 계속 주문하였고, 내담자는 실행에 옮겨 큰 딸의 숙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이 갖는 임용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회복해야 하며 인근 관계기관의 심리상담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고 딸과 의논하기로 했다. <p>다. 직장 및 진로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 자신의 직장 내 직무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의견을 제시하였고 적절한 선처를 받게 되어서 일상이 매우 즐거워졌다고 한다. - 2차 3차 상담에서 논의하였던 사회복지관련 대학 편입에 관련해서는 2019년 봄 학기에 등록하기로 하였다. <p>라. 상담사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과 같이 복지상담과 명리상담을 통한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였으며 자기이해를 통해 심층적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생의 여정에서 그 때 그 때의 선택을 통한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상담시간이었다.
--	--

3. 기초수급자 상담사례

<표 IV-8> 기초수급자의 사례 1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7월 25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1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亥時(양)
내담자 정보	<p>가. 인적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000 (52세 여성) 1992년 결혼. 2012년 이혼. 수급지정 - 자녀 1 : (27세 남) 00대학교 체육학과 3년(편입함) 서울에서 기거(LH대학생전세임대 아빠가 부담) 서울 유학 중이지만 생활비를 전혀 가져가지 않음. 근로+교내 장학금 월 00만원 받음. - 자녀 2 : (25세 여) 00대 상담심리학과 13학번. 동거 - 자녀 3 : (23세 여) 00대 문헌정보학과. 동거 <p>나. 기타 가족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80세 00거주 - 모 2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 2남 1녀 중 장녀. - 시모 79세 시모와 관계가 좋음. 워낙 잘해주셔서 홀로 지내는 시모를 이혼은 했지만 더 연세가 들면 모시고 살 생각이 있음. - 전남편이 독자. 전 남편은 처음부터 무능력한 사람이었고 지금 					

	<p>도 어렵게 지내고 있음.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 작고하신 시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무능하셨던 분. 시모가 며느리를 잘 이해해주심.</p>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당면문제(본인이 생각하는 문제)</p> <p>- 부채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담보대출금 과 자녀1편입 공부할 때 소요한 경비.· 보험 약관 대출 0,000 자녀2의 뉴질랜드 연수 계획으로 000만원 추가대출 함· 자녀 학자금 대출 과생활비로 사용해서 본인이 상환해야한다고 생각함.· 채무조정 경험 : 2004년 개인회생으로 상환함. <p>- 보험확인: 본인 보험 월 보험료 00만원 정도라 부담됨.</p> <p>나. 직업</p> <p>- 개인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함. 직장경력 19년. 안정적인 편임.</p> <p>다. 주거 및 차량</p> <p>- 주거; 00시 임대APT 보증금 0,000만원/ 월세 00만원(0만원은 주거복지 혜택)</p> <p>- 경차 모닝. 2015년식 할부 없음. 본인 소유(차를 구입하고 너무나 행복했음. 계속 유지할 예정)</p> <p>라. 기타</p> <p>- 자녀 3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수급지정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음. “애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가 면제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일인지 저희는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p> <p>- 매주 토요일 새벽 5:30, 독서 모임을 10년간 가짐. 현재는 독서 모임은 마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모임을 하고 있음.</p>																												
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	<p>* 내담자의 출생정보</p> <table><tr><th>時</th><th>日</th><th>月</th><th>年</th></tr><tr><td>丁</td><td>庚</td><td>己</td><td>丁</td></tr><tr><td>亥</td><td>辰</td><td>酉</td><td>未</td></tr></table> <table><tr><td>丁</td><td>丙</td><td>乙</td><td>甲</td><td>癸</td><td>壬</td><td>辛</td><td>庚</td></tr><tr><td>巳</td><td>辰</td><td>卯</td><td>寅</td><td>丑</td><td>子</td><td>亥</td><td>戌</td></tr></table> <p>가. 격과 사주구조로 본 성격 및 성향</p> <p>- 庚金일간의 속성을 보면 신강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결단력과</p>	時	日	月	年	丁	庚	己	丁	亥	辰	酉	未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時	日	月	年																										
丁	庚	己	丁																										
亥	辰	酉	未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p>추진력이 좋다. 정신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이성적 판단, 분석, 통제력 역시 긍정적 역할을 한다.</p> <p>절기 가을의 왕지酉월에 태어났다. 일간과의 음양이 다르므로 겹재격이다.</p> <p>십성 겹재의 기질은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독단적인 행동이 투철하다. 겹재의 특성인 조급함으로 인해 대인 관계에 다소 서운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p> <p>나. 사주구조에 따른 이성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리학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중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부르는데 이 명식에서 丁火가 된다. 십성으로 정관이다. 여자에게 관성은 직업이자 남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명식에서 관성의 역할이 긍정적일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관성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오행 木의 조력이 전혀 없다. 이 명식에서 오행 木의 역할은 관성을 생해주는 역할이다. 하지만 명식 자체에 투출되어 있지 못하고, 지장간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상당히 무력하다고 해석한다. 또 한가지, 일주를 보았을 때, 일지는 일간의 배우자 자리로 辰土오행이 자리하고 있다. 십성으로 나를 생해주는 편인은 일간이 신강하여지는 요인이므로 배우자 자리를 논할 때는 다소 불리하게 해석된다. <p>다. 대운의 흐름으로 본 직업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애주기인 대운이 木 대운에 도래하여 직장을 유지하고 사주구조가 관인상생의 구조이므로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 사주명리에서 기질적 직업관을 격에서 유추하는데 이 명식의 소유자는 겹재격이다. 자신만의 자격을 활용하는 직무군에 종사하면 좋을 것이다. 이에 따른 미래 직업에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표 IV-9> 기초수급자의 사례 2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8월 09일 18:30-21:00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2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亥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금융관리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고정 지출과 월 수시 지출은 급여로, 연 지출은 대출로 지출하고 있음. 보험 조정이 필요함. - 희망 키움 통장은 2019년 11월까지 3년 만기: 만기시점까지 수급권자 유지. 이후는 '탈 수급'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나누기’를 완료함. 8월 지출을 적어보고 다음 상담 시간에 9월 예산을 세워보기로 함. <p>나. 직업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가 심한 편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당장 대안이 없어 참고 지내요.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다면 그만두고 다른 길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문화 해설사 하고 싶은데 준비하다 교육을 가서 받아야 하는 게 있어 미루었어요. 시간을 못 내서요. 주 10시간을 최대로 하면 월 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혹시나 하고 따두었는데~”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기로 함. “생활 관리사와 문화 해설사를 같이 하면 자녀들 졸업 후에는 혼자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고 숨이 막히게 느껴지는 지금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p>다.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남편이 최근 직장을 다님. 본인이 소개해서 취업을 함. 본인 보다 수입이 많아졌지만 생활비 도움은 없음. -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의 내용 알아보기.
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	<p>가. 자녀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명식에서의 자녀를 나타내는 십성은 시지(時支)의 亥水이다. 시지는 자식성의 자리로서 자식성이 희신의 역할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의 표시이다. 이 명식 구조상 자식과의 인연은 매우 깊고 끈끈한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亥水성의 자녀들이 태도는 사회 적응력은 남다를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 매우 우수할 것이다. <p>다만 조후적인 발란스가 불리하므로 자식의 건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전달했다.</p> <p>나. 경제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걱정하는 경제적 문제는 생애주기인 대운이 재물을 관장하는 십성인 재성운에 도래하여 명식에서 부재한 木 오행을 갖추게 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은 무사히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V-10> 기초수급자의 사례 3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10월 13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女	회차	3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亥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가. 가족에 관한 상담

- 자녀1이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가면서 약관 대출 받은 000만원은 자녀가 돌아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상환 가능함.
- 자녀2가 계약직으로 취업을 함. 월 생활비로 20만원씩 보태기로 함. 자녀2에게 나가던 용돈이 줄어들음. 이후 자녀2의 보험료납부도 본인이 하기로 함.
- 자녀3이 대학 4학년이라 취업을 하면 자녀2처럼 생활비 일부와 본인의 보험료납부를 하면 생활비가 수입범위에서 지출될 수 있고 수입의 일부는 부채상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됨. 세세한 계획은 10월 지출 내역까지 확인해 보고 세워보기로 함.
- 전 남편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애들 아빠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책임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보험료를 감당하지 않을 거 같아서요.”

나. 직업문제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여전히 심함.
-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 위탁 같은 것도 알아보고 싶어요.”
- 상담사의 조언: 다문화 포털 사이트 ‘다누리’ 소개. 00지역의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안내함. 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보기로 함. 한국어 교육서비스 등도 관심은 있으나 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자녀생활서비스를 권유함. 자원봉사부터 시작해 보길 권함.

다. 재무목표

- 현재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며 보험약관대출 등을 받으며 생활함. 금융 상담을 진행하며 신용카드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있음. “저는 상담을 통해 지출을 분류하는 방법과 예산을 세워 소비해야겠다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통장나누기가 현재는 마이너스라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내년 초에는 확실히 진행될 거 같아요.”
- 현재 3남매가 대학생. 자녀3 2019년 졸업, 자녀1 2019년 복학, 2020년 2월 졸업. 이후 내담자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예상됨. “저는 친한 친구랑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호주가서 카페 취업해서 생활해보는 것도 꿈꾸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업매이는 게 없으니^^”
- 2019년 11월 희망 키움 통장: 3년 만기로 0000만원 수령이 예상됨. 이후 탈 수급이 목표!
- 2018년 말까지 예산대로 통장나누기, 연 지출 저축 실천하기를 목표로 함.
- 00시 다문화지원센터에 연락해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알아보기로 함.

<p>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p>	<p>가. 때와 시기의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庚辰일주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甲寅재성 대운을 맞아 원국에서 는 지장간에만 존재하였던 재성이 발휘될 때이다. 일상에서 그동안 움추려 있었던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가 때마침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 하여 실현하여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자존감이 팽 배한 여지는 주기라고 할 수 있다. - 재성의 심리적인 욕구를 살펴보면 재성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목적이 있는 실현의 욕구성이다. 사람은 누구나 재물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가능성의 타진 을 겸한 재물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는 시기이다. <p>나. 가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설계는 자녀들의 사회 활동의 유무, 즉 취업을 통한 경제 활동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내담자에게는 자녀에 해당하는 식상이 회 · 용신이므로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적어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측된 다. - 비록 이혼은 하였지만 남편과의 관계설정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 력 말고는 남편의 취업을 알선 할 정도의 돈독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의 남성관의 가치변화에 따른 또 다른 인연에 대한 의견 을 낼 때도 내담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듯하다. <p>다. 직장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는 스트레스를 감안하면서 직장생활을 오래 유지한 것은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다행인 것은 내담자 의 사주명식의 구조가 천간으로 관인상생이 이루어져 원만히 직 장생활이 가능하였던 결로 유추 되었다. - 내담자 자신이 장년에 다문화교육복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 역시 지적욕구로 자신을 개발하여 필요한 대상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심리체계의 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취미로 바리스타 공부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는 건강 한 노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	--

내담자는 상담 초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으나 본인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꺼려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지향하는 것,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표현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다. 수급자로 자녀양육을 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탈 수급에 대한 준비로 자신감도 생겼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 초기에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했으며, 돈에 대한 걱정과 빚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상담 후기에는 월 고정지출, 월 수시지출, 연 지출을 나누어 예산을 세워 예산에 맞게 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의 지출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다. 통장나누기를 하게 되었으며, 신용카드 지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점차 줄이고 있다. 연 지출 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연지출 저축이 이루어지면 신용카드를 없앨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상담 이전에는 아파트보증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받은 상태였으며, 월납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종신보험을 해약하였고, 본인의 보장성 보험과 가족보험료도 조정하였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갚아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게 되었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커졌다.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담 전에는 경리업무의 사무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직업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견디고 있었다. 상담 이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의 장점이 아이 양육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알고 본인에게 맞는 다문화지원 사업인 다문화가정 방문 자녀 도우미 일을 알아보기로 하는 등, 직업선택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 장애인 상담사례

<표 IV-11> 장애인의 사례 1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7년 11월 10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男	회차	1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子時(양)
내담자 정보	* 인적 사항 - 000 (41세. 남)님은 미혼이고 지체 1급 장애인이다. - 15세때 교통사고 후 학교는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졸자격 취득함. -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고 있음. 부모님은 경제활동중이다. - 형제로는 결혼한 남동생이 있음. 작년에 남동생가족 6명이 부모					

	<p>님 택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3대 9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음.</p> <p>-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함.</p>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내담자 사전욕구</p> <p>- 현재 가계소득으로 생활하기에 괜찮은 편이다. 부채는 없고(과거에도 없었고) 저축은 하고 있다. 장애인이라서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된다.</p> <p>-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어서 허전하다.</p> <p>- 투자를 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다.</p> <p>- 지출관리, 저축계획을 잘하고 싶다.</p> <p>나. 직업</p> <p>- 국립재활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공부 이후 복지관에서 수리기술을 익혀서 현재의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해오고 있음.</p> <p>다. 주택 및 재무사항</p> <p>- 주택: 부모님주택에서 거주</p> <p>- 자산: 사고보상금으로 매입한 토지가 있음 가게 보증금 등.</p> <p>라. 상담자의 조언</p> <p>- 사업수입과 사업지출(개인지출포함)을 구별하여 파악한다.</p> <p>- 현재 현금흐름을 확인한다.</p> <p>- 사업안정 유지계획을 수립한다.(자산투입, 부모님지원 요청 등)</p>																												
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	<p>* 내담자의 출생정보</p> <table> <tr> <td>時</td> <td>日</td> <td>月</td> <td>年</td> </tr> <tr> <td>壬</td> <td>戌</td> <td>丁</td> <td>丁</td> </tr> <tr> <td>子</td> <td>寅</td> <td>未</td> <td>巳</td> </tr> </table> <table> <tr> <td>己</td> <td>庚</td> <td>辛</td> <td>壬</td> <td>癸</td> <td>甲</td> <td>乙</td> <td>丙</td> </tr> <tr> <td>亥</td> <td>子</td> <td>丑</td> <td>寅</td> <td>卯</td> <td>辰</td> <td>巳</td> <td>午</td> </tr> </table> <p>가. 격과 사주구조로 본 성격 및 성향</p> <p>- 戊寅일주의 성격으로는 신용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소유자로 정서적으로 신경이 예민하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쓰는 일을 무</p>	時	日	月	年	壬	戌	丁	丁	子	寅	未	巳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時	日	月	年																										
壬	戌	丁	丁																										
子	寅	未	巳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p>척 싫어한다. 매사에 심사숙고하여 일을 처리하는 처신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받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戊土 일간으로 未月에 여기(餘氣)인 丁火가 월지, 연지에 투간하여 편인격이다. 십성 중 편인이 갖는 기질로 보는 직업의 성향은 전문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직무에서 탁월한 발전을 한다. - 사주 명식이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을 제외한 일곱 자의 십성, 즉 일간을 생하는 인성과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겁의 조력이 많을 때 대체적으로 신강의 조건이 된다. 이 명식의 구조는 득령, 득세를 한 구조로서 신강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 명식의 신강 조건인 편인성을 중화하는 水오행은 재성으로, 내담자의 용신으로 볼 수 있다. -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14세 즈음에 월지와 년지의 변화로 사회적 활동의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편인격으로 자기개발에 무척 관심과 실천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내담자는 건강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검정고시를 마치는 학구파이다. 단 편인의 특성으로 실용학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p>나. 경제상황 및 직업에 대한 방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성이 용신인 관계로 컴퓨터 수리점의 직무가 최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고객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 재성 용신으로 일상에서 항상 사업장 외에 투자를 계획하지만 2018년은 철저한 투자정보에 관심을 갖고 실제 투자의 시기는 2019년 하반기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0년 庚子년이 되면 사업장은 매우 안정될 것으로 명리상담의 생애주기 관련 이론을 설명하였다.
--	--

<표 IV-12> 장애인 사례 2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7년 12월 15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男	회차	2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子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내담자의 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을 더 확대하고 싶지만 멈춘 상태: 학교컴퓨터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기위해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했다. 그런데 장애 때문에 수주가 안 된다. 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사고가 생기면 30분 내로 즉시 와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 결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멈춤: 여자들에 대한 실망이 많다. 내담자를 대출에 이용하려는 여자도 있었고, 여자 친구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외면당하곤 했다. 상처가 많아서 용기가 없다. 그러나 결혼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 					

	<p>나. 내담자의 자산에 대한 생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의 토지재산은 약 2억원 정도이지만 활용계획 없음 전체는 4억원 규모인데 부모님의 기여분이 2억원 정도이며 매각 후 그 정도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p>다. 상담사의 조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까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잘하는 것일까? - 인간본성에 만족하는 돈쓰기가 충족되어야하고, 그리고 이성애에 만족하는 돈쓰기를 만들어야한다. - 식욕, 수면욕, 안전욕, 성욕(이성과 사랑이고 충족보존이고 가족 구성이고 자녀양육 욕구로 확대됨) -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그런데 나는 얼마가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p>라.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흐름을 안정화 한다: 적자일 경우 내가 가장 행복해할 지출(먹는 것과 용돈 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본능에 어울리지 않고 장기적일 경우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의기소침, 무기력 등)이 온다. - 월 사업 소득으로 안 될 경우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필요도 있다. -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사진을 보낸다. - 결혼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결혼은 본능적인 지출만족에 부합한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찾아본다. 정보를 검색해본다.
<p>사주를 활용한 상담 내용</p>	<p>가. 직업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시대에 직업, 직무의 성격상 거래처에 유지하려면 출장수리가 가능하여야 하는 현실상황을 극복하여야 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출장에 응하지 못하면 거래처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컴퓨터 활용 교육의 직무를 병행하면서 차츰 교육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도록 조언했다. 편인의 특성상 기술적 이론체계의 설명은 남다른 탁월한 부분이 있다. <p>나. 결혼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리이론에서는 남자에게 재성은 아내와 재물을 상징한다. 이 내담자의 사주명식에서는 용신이 재성이다. 재성의 긍정적 역할은 나에게 좋은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물이 내담자에게는 있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

	- 내담자 자신이 경험한 여자에 대한 인식을 떨칠 수 있는 자신의 자기효능감 회복에 실제적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 폰 활용법등 우선적으로 스터디반이라도 운영하여 볼 것을 제안하였다.
--	---

<표 IV-13> 장애인의 사례 3회차 상담

상담일시	2018년 1월 16일				상담자	이 0 0
내담자	0 0 0	男	회차	3	생년월일시	00년0월0일 子時(양)
일반적 상담 내용	<p>가. 돈 관리방법 상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가진 돈과 내 몸의 활동에너지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 돈 관리를 하는 목적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 소득관리: 소득관리는 단기간 할 수 없다. 사업장 확대 현재 안 된다. - 예산배분: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각각의 지출영역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있는가를 파악해야한다. 사무실운영비, 차량운행비, 식재료비, 용돈 등. - 지출실행: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든 가심비(가격대비 심리적만족)든 자기 선택으로 지출하면 된다 - 월 소득과 기존자산을 삶의 단계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현금흐름을 안정화한다. - 주요지출내역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적정 금액은 000만원이다. 컴퓨터 부품구입비용은 최소 00만원 이상이다. : 월 사업소득으로 안될 경우는 어머니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갚는다. : 한 달 용돈은 00만원이다. <p>나. 결혼에 관한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을 준비한다. - 결혼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 12월 31일 교회에서 내년에는 결혼하게 도와달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교회의 힘을 얻을 것이다. - 국제결혼은 생각이 없다. 					
사주를	* 1· 2회차 상담에서 주된 관심사는 첫째, 사업장 운영에 대한					

<p>활용한 상담 내용</p>	<p>고민과 우려에 대한 주제였다. 두 번째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이었고 세 번째는 투자 관련 부분이었다.</p> <p>가. 직업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고민인 사업장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출장업무 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출장업무 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가지는 것은 심성 편인의 기질 및 특성에는 상황 대처능력과 교육적 직무 또한 남다르다는 점을 응용하는 것이다. <p>나. 결혼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불편을 느끼고 불편한 몸의 조건은 남과 다른 나만의 입장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상태를 공감하는 결혼이 어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철학을 펼칠 수 있었을 때 결혼대상자 역시 결혼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공감하는 자세였다. <p>다. 투자 관련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번째의 주제인 투자 관련에 대해 명리이론적으로 판단하면 재물에 대한 깊은 인연이 있으므로 조급해 하지 말고 2019년 하반기부터 투자 분야의 전문가 조력을 통해 하는 것으로 하고 상담을 마쳤다. <p>라. 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해 내담자 자신은 건강한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움츠리지 않는 태도로 일상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상담의 시간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	--

내담자는 상담을 종료하며 생각하지도 못한 금전관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얘기했다. 또한 지출체크를 하면서 지출패턴을 알게 되었으며 돈 관리 계획을 세웠고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관리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이 돈에 관한 교육과 공통된 생각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고 했으며 결혼할 자신감도 생겼다고 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복지 상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동양사유적인 이론에 부합되는 사주명리학과 현재 복지현장에서 사용되는 서구식 상담기법과의 융합을 통해, 마음의 빈곤과 소통의 부재를 안고 고통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도이다. 앞서 연구자의 연구목적에서 밝혔듯이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사유체계는 동양적 사유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상자들로서 서구적 방식의 상담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상담의 주체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상담서비스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2.2%)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상담 기술부족(32.7%) 순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오영진, 2010). 특히,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자(조양원, 2002, 도귀화, 2004, 조양원, 김현채, 2000, 배정희, 2004) 들은 상담지식 기술 부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담에 필요한 지식이나 상담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심리적 갈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용하는 복지상담기술의 내용은 서구심리학의 활용이 전부이다. 이론적 실천모형은 크게 나누어 보면 정신역동적 이론 모형, 행동주의 이론 모형, 인본주의 이론 모형 등 주요 심리학 세력에 의한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요 이론 모형 등은 상담자가 갖추고 있는 능력이나 선호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 검사 도구에 있어서는 성격검사, 문장완성검사, 적성검사, 그림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사 도구는 사회복지상담에 필요한 당사자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단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해결과 성장 및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심리상담의 접근방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상담의 개입과 기술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리학의 제1세력인 정신역동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주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나 초기경험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 심리학의 제2

세력인 행동주의는 단순한 동물행동의 연구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기계론적 인간관과 연구방법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대안적 제시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3세력이라 불리는 인본주의가 결성되었다. 인본주의의 관점은 인간을 정신분석학에서처럼 과거 경험에 의해 성격이 결정되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았다. 또한 행동주의이론에서처럼 인간을 외부자격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고 행동이 좌우되는 반응체로 보지 않았다.

인본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성격이론가들은 사람은 세상을 지각하는 고유한 틀을 가진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로 보며 사람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지각, 즉 개인의 신념, 행동, 정서, 관계가 각자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인본주의 학자인 매슬로우는 심리학의 중요성을 인간의 건강한 면을 이해하여 야만 비로소 병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인간의 병리적인 측면보다 건강한 본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창조성이 인간의 잠재적 본성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다. 매슬로우의 주요 이론은 건강한 성격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떠한 동기가 위계적으로 조직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사람의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 다른 인본주의 학자인 로저스 역시 인간은 성장가능성이 있고, 인생목표와 행동성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율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타고난 자기실현의 경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한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서구심리상담 이론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론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밝혔다.

한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상담심리학자가 상담 현장에서 적용하는 주요 심리이론 중 58.0%, 심리상담가의 경우에는 73.8%가 인본주의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⁵⁸⁾ 이는 동양사유적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사유체계가 사람중심의 인본주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같은 이유로 연구자는 서구의 상담이론 중에서 인본주의에 더 관심을 갖고 이 연구에 임하였다.

158) 주은선, “한국심리치료자들의 특성과 실무현황-심리치료자들의 성장을 위한 국제연구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15권 3호 (2003).

이 연구에서는 명리상담에 필요한 상담분석이론으로 용신론, 격국론, 십신론, 음양론, 오행론, 십신론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명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당사자의 성향, 직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론을 살폈다. 이에 따른 사례를 통하여 타고난 기질에 따른 진로, 적성 등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상담의 체계로서 서구상담 이론체계 시스템을 살피고 인본주의 제창자로 알려진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 및 욕구이론가인 매슬로우 학설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서구상담의 기반이 되는 측정도구인 설문지 기법을 살피고 서구 상담이론 학설인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적 이론, 의사결정이론, 욕구이론, 발달이론, 특성요인이론 등을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복지상담 이론과 명리상담을 연관시켜 비교하면서 실제로 복지상담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임상적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상담현장에서 명리학적 보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명리상담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복지의 시기를 생애주기에서 제시함으로써 희망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복지 상담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치유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그에 따라 명리상담 도입의 효용성을 고찰하였다.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명리상담에서 필요한 언어적 설득 기능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깊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탐색하였다.

특히 자기보고식의 심리검사와 적성검사는 어린이나 문맹자에게 시행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지필식 검사를 응한 사람일지라도 기분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생정보 만으로 파악이 가능한 명리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타고난 기질에 따른 재능을 알 수 있다면 앞서 열거한 심리검사와 적성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타고난 기질과 적성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명리학적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사람이 누구나 갖는 출생정보를 통해 개인의 타고난 기질의 직업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구식 심리검사인 애니어그램이나 MBTI 심리검사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리상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사주명리학을 연구하는 것은 명리학만의 이론적 배경인 성격론과 직업적성론이 내담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연유로 서구의 검사방법과 함께 명리상담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리상담과 기존 복지상담에서 활용하고 있는 질문지법을 적절히 연관시켜 응

용하게 된다면, 명리상담과 복지상담의 현장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심리학이론을 명리상담의 성향 및 적성이론과 연관시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인본주의 이론 가운데 특히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이론이 명리상담의 자기이해 탐구에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다. 명리학적 상담을 통해 언어적 담론으로 내담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매우 감동적이라는 것은 명리상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서구 심리학자 슈퍼의 진로발달 이론에서도 출생할 때 능력과 흥미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동양적 사유의 기반인 명리학이야말로 오랜 세월동안 선천적 소질과 특성을 인정해왔다. 슈퍼의 이론에는 직업의 선택과 적응은 평생을 통해 변화하여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명리학 이론에서도 타고난 기질에 따른 재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견되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 특히 대운과 세운의 변화에 의해 성격과 특성, 능력과 가치관 및 직업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서구의 진로발달 이론도 상담을 통하여 특성과 소질과 재능이 있음을 주지하고 내담자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한다. 명리상담도 역시 자신만의 타고난 기질에 소용되는 분야에 필요한 특성과 재능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제안한다. 이처럼 서구심리상담 이론과 명리상담은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명리학의 상담론이 복지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사례를 제시하였다. 상담사례를 통하여 직업적성, 성격,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시기와 때를 유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명리상담을 적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활용적 측면에서도 실제적 효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담 종결 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삶의 방향성 제고에 있어서도 복지실천을 위한 명리학적 보완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통한 결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복지 상담과 명리상담의 융·복합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 제안하게 되었다.

명리상담이 복지 상담에 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제안은 이 연구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사주명리학을 운명론적인 접근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용어로서 인간의 자기이해(自己理解)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였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선경 · 최원석,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파주시: 양서원, 2012.
- 강진원, 『알기 쉬운 역의 응용』, 서울: 정신세계사, 2006.
- 강재태 · 배종훈,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09.
- 고병채, 『상담심리학』, 파주시: 양서원, 2011.
- 고수현 외, 『사회복지상담론』, 파주시: 수양재, 2017.
- 권중돈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2011.
- 김권수, 『성공을 부르는 인간관계』, 서울: 기문사, 2010.
- 김기승, 『명리대경』, 서울: 명운당, 2004.
- 김기승, 『명리학 정론』, 서울: 창해, 2004.
- 김기승,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서울: 창해, 2006.
- 김기승, 『명리직업상담론』, 서울: 창해, 2009.
- 김기승, 『사주심리치료학』, 서울: 창해, 2011.
- 김기승,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2016.
- 김기승 · 함혜수, 『십성의 기질과 사회성』, 서울: 다산글방, 2018.
- 김만태, 『한국사주명리연구』, 서울: 민속원, 2011.
- 김배성 · 박영창 공역, 『적천수강독』, 서울: 명운당, 2003.
- 김운정, 『알기쉬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2011.
- 김이영 · 배헌석 · 이우연,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고양시: 양성원, 2016.
- 김정택 · 심혜숙(2006),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6.
- 김정택 외, 『STRONG 진로검사 매뉴얼』, 어세스타, 2013.
- 김진희, 『알기쉬운 상수역학』, 서울: 보고사, 2013.
- 김찬동, 『연해자평정설』, 삼한출판사, 2011.
- 김춘경 외,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0.
- 김태균, 『현대명리학 개론』, 서울: 양림출판사, 2004.
- 김혜란 · 홍선미 · 공계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파주시: 나남출판, 2006.
- 김혜영 외, 『사회복지실천론』, 고양시: 공동체, 2010.
- 김홍경, 『노자: 삶의 기술, 늙은이의 노래』, 서울: 들녘, 2003.

- 노안영,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6.
- 노안영 · 강영신,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노안영 · 송현중, 『상담실습자를 위한 상담의 원리와 기술』, 서울: 학지사, 2006.
- 동중서 저, 남기현 번역, 『춘추번로』, 서울: 자유문고, 2005.
- 류종훈 외, 『사회복지현장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2013.
- 박옥희,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8.
- 박종홍, 『한국사상사논고-유학편』, 서울: 서문당, 1983.
- 박주현, 『사주심리학 2권』, 서울: 삼명, 2007.
- 박평원, 『명리대전』, 서울: 창해, 2000.
- 석만 외,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서울: 운주사, 2008.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대『학·중용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0.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논어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3.
- 양원석, 『명리학개론』, 서울: 대유학당, 2002.
- 엄명용 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1.
- 엄정상 역해, 『설문해자주: 부수자 역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오창순 외, 『인간행동과 환경 3판』, 서울: 학지사, 2015.
- 유경진, 『해석 사주명리학 입문서』, 서울: 역림관, 2012.
- 유창돈, 『李朝語辭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
- 윤호균, 『삶 · 상담 · 상담자』, 서울: 문지사, 1983.
- 이석영, 『사주첩경 권 삼』, 서울: 한국역학교육학원, 2002.
- 이석영), 『사주첩경 권 육』, 서울: 한국역학교육학원, 2002.
- 이재창 외,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1995.
- 정원철, 『사회복지상담』, 과주시: 양서원, 2005.
- 정창근, 『명리학 통론Ⅱ』, 서울: 장원, 2008.
- 조휘일 외,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지사, 1999.
- 주은선,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1.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 강선보, 「부버와 로저스의 상담론 비교 연구」, 한국교육사학, 17호 (1995).
- 고재민, 「사주명리의 궁성과 격국용신론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 김광린, “홍익인간사상의 민족사적 위상과 21세기적 가치, 『평화학논총』 제7권 2호 (2017)
- 김기승, 「사주명리를 통한 초등학생 영재판별 방법의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 김기승,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 김동구, “노자 도덕경의 상담론적 분석”, 『서원대학교학생생활연구』, 17(1999).
- 김동옥, 「질병에 대한 사주명리학적 접근과 생체에너지론적 접근 간의 비교연구-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한 상관성 규명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 김미경,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서 “진실성”의 의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 김영재,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 김미라 · 백용매,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3권 2호 (2010).
- 김인숙,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4).
- 김정희 · 이장호, “동양적 상담 지도 이론 모형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제2권 1호 (1989).
- 김종만,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 김충기, “Carl Rogers의 상담 이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생생활연구』, 1호 (1991).
- 김효중, 「사주십성과 다중지능의 비교연구」,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훈, 「徐子平의 明通賦에 대한 四柱學的 研究」,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나경미,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상관성에 관한 사주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박금해, 「홍익인간사상, 남북통일, 그리고 평화-홍익인간의 평화비전 실현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박선숙, 「사회복지상담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5).

박애선·황미구,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4호 (2008).

송진휘, 「기업 성인학습자 성격 특성으로서의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신상춘, 「사주가 운명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과의 관계-사주를 통한 다면적 인성판단을 위한 예비적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유성애, 「노자의 『도덕경』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윤호균, “노자의 도와 상담”, 『서울대학교학생연구』 10 (1973).

윤호균, “심리적 문제와 그 해결에 관한 불교와 상담의 접근”, 『서울대학교학생연구』 15 (1978).

윤호균,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한국심리학회 (1982).

윤희성, 「인간중심 상담의 활성화 방안연구 -인간중심 학습자들의 자기보고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이동식, “한국에서의 정신 치료 및 카운슬링의 철학적 정초 서설”, 『연세상담연구』, 제1권 1호 (1968).

이동식, “도와 카운슬링 및 카운슬러”, 『학생지도』, 13 (1971).

이웅, 「맹자의 교육사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이재규,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존중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

- 이종화, 「성격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범죄에 미치는 영향-명리학적 성격 이론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 이혜경, 「한국인의 심리특성에 맞는 상담 모색」,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 장문구, 「인간중심 상담에서 치료적 조건의 보완을 위한 사주명리학의 적용가능성 탐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 정국용,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 정대봉, 「명리학에서 월지 중심의 간명법과 격국 운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 정하룡, 「명리학의 성격유형분류연구-MBTI유형별 사주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 조명래, “Rogers의 인간 중심 상담과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조선대 외국문화연구』, 1 (1978).
- 조선숙,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본 이상의 소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2).
- 주석, 「행복에 관한 철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 차은경,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아동의 열등감과 부모양육의 상관성 연구-상담학적인 관점에서-」,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 최성수(2008), 「사주명리학에 근거한 건축 공간디자인 방법론 연구 -특히 양택풍수 현대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실, “동양사상에서의 상담적 요소의 분석: 불교와 노자 사상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2(2) (2000).
- 최옥채,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비평-사회복지실천론 교과서와 논자들의 연구문헌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4).
- 최현국, “사람-중심 상담 강의자료”, 『서울상담심리연구소』 (2013).
- 함혜수, 「사주의 편중된 심성이 개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 함혜수, 「감정노동종사자의 직무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주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홍덕건, 「동양적성상담 이론에 의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11).

[외국자료]

- 段建業, 『盲派命理』, 싱가포르: 時輪造化有限公司出版, 2006.
- 謝路軍 主編, 鄭同 點校, 四庫全書術數初集二, 北京: 華齡出版社, 2006.
-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 徐升 編著, □『淵海子平 卷2』, □배만: 瑞成書局, 1985.
- 徐樂吾, 『窮通寶鑑(欄江網)』,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 소강철 저, 노영균 역, 『황극경세서』, 서울: 대원출판사, 2009.
- 심효침(沈孝瞻) 저, 이을로 강해, 『子平眞詮講解』, 서울: 동학사, (2009).
- 심효침(沈孝瞻) 저, 서락오 평주, 『子平眞詮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2.
- 양계초 · 풍우란 외 저,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우익지옥 저, 길봉준 역, 『주역선해』, 도서출판 운주사, 2016.
- 張神峯, 『命理正宗』, 臺灣: 武陵出版社, 2007.
- 주희 저, 김진근 역, 『역학계몽』, 고양시: 청계출판사, 2008.
- 풍우란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서울: 까치글방, 1999.
- 袁樹珊 撰輯, 任鐵樵 增注, 『滴天髓闡微』,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 Adler Alfred 저, 윤성규 번역, 『나를 결정하는 고유한 패턴, 성격심리학』, 서울: 지식여행, 2012.
- Anderson, R., & Cissna, K. N., *The Martin Buber-Carl Rogers dialogue: a new transcript with commenta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 Barrett-Lennard, G. T., *Carl Rogers' helping system*,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 Egan, G. 저, 제석봉 · 유계식 · 박은영 역, 『유능한 상담자』, 서울: 학지사, (1999).
- Farber, B. A., Brink, D.C., & Raskin, P.M., *The psychotherapy of Carl Rogers: cases and commentary*,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 Friedlander, W. & Apte, 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J: Prentice-Hall, 1980.
- Hall, J. A., et al., "Iowa Case Management; Innovative social casework," *Social Work*, 47(2) (2002).
- Johnson, A., *Encyclopedia of Social Work*, US: NASW, 1965.
- Joseph, S., Linley, P. A. 저, 이훈진 · 김환 · 박세란 역, 『긍정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9.
- Jung C. G. 저, 설영환 역, 『C.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2007.
- Kirschenbaum, H., & Henderson, V. L., *The Carl Rogers reader*, Boston: Houghton Mifflin(1989).
- Kottler, J. A. 저, 최외선 · 최윤선 역, 『연민어린 치료』, 서울: 학지사, 2012.
- Mearns, D. Thorne, B. 저, 주은선 번역, 『인간중심 상담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학지사, 2012.
- Miller, S. D. Duncan, B. L. & Hubble, M. A. 저, 김희정 외 4인 역, 『유능한 상담자의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3.
- Myers, Isabel Briggs, Mary H. McCaulley,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 번역,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87.
- Nisbett, Richard E., 최인철 번역, 『생각의지도』, 서울: 김영사, 2004.
- Rapaille, Clotaire, 김상철 · 김정수 번역, 『컬처 코드』, 파주시: 리더스북, 2007.
- Rogers, C. R., *The clinical treatment of the problem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1939.
- Rogers, C. R. 저, 한승호 · 한성열 역,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 Rogers, C. 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1951.
- Rogers, C. R.,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1957).
- Rogers, C. R. 저, 주은선 역, 『진정한 사람되기』, 서울: 학지사, 2009.
- Rogers, C. R., *Freedom to learn*, Columbus: Charles E. Merrill Books, 1969.
- Rogers, C. R.,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New York: Delacorte Press,

1977.

Rogers, C. R. 저, 오제은 역, 『사람-중심 상담』, 서울: 학지사, 2007.

Rogers, C. R., "What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mean to m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5(4) (1995).

Rogers Natalie 저, 이정명 · 전미향 · 전태옥 역,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 창조
적 연결』,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Seden, J., *Counselling Skills in Social Work Practice*,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99.

Sheafor et al., *Techniques and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2nd
ed.*, Boston: Allyn & Bacon, 1991.

Stephen Joseph, P. Alex Linley, 이훈진 · 김환 · 박세란 역, 『긍정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9.

Slack, S., Reflection on a workshop with Carl Roger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5(2) (1985).

Thorne, B. 저, 이영희 · 박외숙 · 고향자 역, 『인간중심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
스』, 서울: 학지사, 2007.

Wilensky, H. L. & Lebeaux, C. N.,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The
impact of industrialism on the supply and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Free Press, 1965.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Saju -Myungri Theory to Social Welfare Counseling - Focusing on Humanistic Counseling Theory -

Lee, Euntae

*Department of Earth Management,
Major in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to activate welfare counseling in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where demand is increasing day by day. It is also an attemp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lients who are suffering from poverty and lack of communication by fusing oriental thought with the western-style counseling technique used in the welfare field.

There is a concern that western-style counseling may be considerable distance because the thinking system of social welfare subjects with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and different cultures is based on oriental reasons.

This research began with the discovery that Carl Rogers' theory of human psychology, which is based on human-centered values among western psychological counseling theories, resembled much of the oriental thought system.

The result of counseling would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client if the humanistic counseling theory centering on Carl Rogers is supplemented with the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human life cycle by using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oriental thought system as a tool.

The principle of humanism based counseling is to share the truth and unconditional affirmation with the client. It is natural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e client because it is possible to deduce the person's natural temperament or mind. I think that this is the reason why it can be a good tool for humanistic counseling if we use Saju-Myungri counseling service for social welfare counse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s it possible to apply Saju-Myungri theory to counselors' self-understanding in social welfare counseling? Second, is it possible to apply temperament theory of Saju-Myungri studies in terms of understanding clients in social welfare counseling? Third, is it possible to apply Saju-Myungri theo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lient empathically with a true and positive attitude in social welfare counseling?

The first is the discussion about whether Saju-Myungri theory can be applied to counselors' self-understanding in social welfare counseling.

Among the theories about the attitudes of the counselors who deal with clients in social welfare practice, humanistic theory has much influence on the social welfare ideology and the social welfare counseling theory compared to the psychodynamics or activism theory. Integrity, respect, and empathy based on humanistic theory are very useful in social welfare practice as a whole.

According to Carl Rogers, the founder of humanistic theory, the counselor must have an unwavering empathy for his or her values to understand the client sympathetically. Counselor's Self-understanding must be preceded in order for his or her identity to be unaffected. To do so, a counselor who does a person-centered counseling should have a thorough self-understanding.

As one of the various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it is very useful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selor himself. Through the study of literature research of Saju-Myungri,

it was shown that it is much more useful than any other thing to understand counselor himself or herself.

The second problem is the discussion about how to apply the temperament theory of Saju-Myungri studies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client in social welfare counseling. Through the literature of classic Myungri studies such as 「Yeonhaejapyung」, 「Jeockcheonsu」, etc., we explored the theories that can analyze the tendency of innate individuals and the possibility of the healing complement that can empathize and solve the real problems.

Third, it is a discussion on whether the Saju-Myungri theory can be applied to understand the client in a true and sympathetic way in social welfare counseling. The client's values and tendencies should be understood and consulted through Kyukguk and Saju-type of Myungri theory. Through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case studies that counselors enable a fundamental analysis of client problems and provide a trust-based and empathetic counseling.

In summary, it was found in literature studies and case studies that a sufficiently possibl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applicability of Myungri theory in human-centered consultation was established. There has been little academic achievement so far in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aju-Myungri and western psychology, which deals with human nature and human understanding based on human psycholog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in understanding human beings.

I think that any tool can be used for welfare counseling if it has a warm sense of value toward human beings. In this respect, Saju-Myungri can be used very positively for understanding human temperament and psychology.

Key Words : social welfare, Saju Myungri, humanistic counseling, social welfare practice, temperament, Carl Rogers